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BIBLE STUDY GROUP
TO IMPROVE EXPOSITORY PREACHING PREPARATION:
THE CASE OF 701 KOREAN CHURCH BIBLE STUDY GROUP**

강해설교 작성의 개선을 위한 성경 연구 모임 고찰: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을 중심으로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Shik Choi (최영식)

Lynchburg, Virginia

December 2021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MENTOR

Dr. Sungtaek Kim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READER

Dr. Yunseop Kim
Adjunct Professor

ABSTRACT

A STUDY ON BIBLE STUDY GROUP TO IMPROVE EXPOSITORY PREACHING PREPARATION: THE CASE OF 701 KOREAN CHURCH BIBLE STUDY GROUP

Young Shik Choi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1

Mentor: Dr. Sungtaek Kim

The rapid growth in number of Korean churches have led the period of quantitative revival. However, at same time, diverse problem emerged such as materialism and secularization. The main reason was due to the lack of spiritual growth of the church members. In this regard, expository preaching which provides clear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and applications to live as healthy Christians is inevitable. Many preachers in the past have had interest in and tried expository preaching but they could not write down their script with elements of expository preaching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training in this field. Additionally, they could not exceed their own ways of observing and studying because they were alone in this arena.

This study suggests proper ways to understand and prepare expository preaching. This suggestion will be derived from analyzing regular gatherings of 701 Korean church for Bible studies and preparing expository preaching.

Thesis Project Topic Abstract length: 150 words

ABSTRACT

초록

A STUDY ON BIBLE STUDY GROUP TO IMPROVE EXPOSITORY PREACHING PREPARATION: THE CASE OF 701 KOREAN CHURCH BIBLE STUDY GROUP

강해설교 작성의 개선을 위한 성경 연구 모임 고찰: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을 중심으로

Young Shik Choi (최영식)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1

Mentor: Dr. Sungtaek Kim

한국 교회 성도의 가파른 수적성장은 교회의 양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하였지만, 동시에 교회내의 물질주의, 세속화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하였다. 이는 성도의 영적 성장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강해설교가 필요하다. 설교자들은 강해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했지만 강해설교 작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훈련의 부재로 강해설교의 요소를 갖춘 설교작성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혼자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관찰과 연구방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강해설교의 올바른 이해와 작성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혼자 작성하는 중 나타나는 주해와 강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소재한 701 한인교회의 강해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연구 모임을 분석하여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길이: 108 words

ACKNOWLEDGEMENT

감사의 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위에 많은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논문의 모든 과정을 지도해 주시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 주시며 이끌어 주신 멘토 김성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사용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세하게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리더 김윤섭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과정을 진행하고 논문을 연구하는 기간 동안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신 701 한인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 논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연구에 동참해 주신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더불어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 장모님, 그리고 형제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빠, 몇 페이지 했어요?”라고 매일같이 물어봐 준 큰 딸 윤주와, 아빠 때문에 맘껏 떠들지 못했던 막내 아들 윤우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김지윤에게 참 고맙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 사역과 삶의 동반자로 같이 살아가며 아내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몸이 아픔에도 늘 그렇게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가정을 함께 이끌며 기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분 한분 이름을 적어가며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 갚을 길이 없어 더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iv
초록	
ACKNOWLEDGEMENTS.....	vi
감사의 글	
TABLES	xiii
표	
FIGURES	xiv
그림	
SUMMARY	xv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1
제 1 장: 서론	
1. Statement of the Problem.....	1
문제제기	
1) Church Growth.....	2
교회의 성장	
2) Change of Church Members	3
성도의 변화	
3) Pastor's Situation	4
목회자의 상황	
4) Statement of the Problem and Purpose of Study.....	6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Scope and Limitation of Study	9
연구의 범위와 한계	
3. Theoretical Basis for Expository Preaching	10
강해설교의 이론적 근거	
1) Biblical Basis	10
성경적 근거	

2) Theological Basis	12
신학적 근거	
3) Historical Basis	15
역사적 근거	
4. Statement of Methodology.....	18
연구 방법론	
5. Review of Literature	19
문헌 검토	
CHAPTER 2: Writing Expository Preaching and Bible Study Group	25
제 2 장: 강해설교 작성과 성경연구 모임	
1. Understanding Expository Preaching	26
강해설교의 이해	
1) The Definition of Expository Preaching	26
강해설교의 정의	
2) Importance of Expository Preaching and Role of Preacher	29
강해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자의 역할	
3) Benefits of Expository Preaching	32
강해설교의 유익	
4) Necessity of Expository Preaching	33
강해설교의 필요성	
2. Writing Expository Preaching.....	34
강해설교 작성	
1) Exegesis Process	34
주해 과정	
(1) Preparation Stage	35
준비 단계	
(2) Selecting Bible Texts	36
본문 선택	
(3) Background Studies	37
배경 연구	

(4) Detailed Studies	39
상세 연구	
(5) Integration of Results	40
본문 해석의 통합	
2) Expository Process	41
강해과정	
(1) Central Proposition of Texts	41
본문의 중심명제	
(2) Audience Analysis	43
청중 분석	
(3) Purpose of Preaching	43
설교의 목적	
(4) Central Proposition of Sermon.....	44
설교의 중심명제	
(5) Application.....	46
적용	
3) Preaching Manuscript Writing Process.....	48
설교작성 과정	
4) Expository Preaching Bible Study Group.....	51
강해설교 성경연구 모임	
(1) Benefits of Bible Study Group.....	51
성경연구 모임의 유익	
(2) Organization of Bible Study Group	51
성경연구 모임의 구성	
(3) Forms of Bible Study Group.....	53
성경연구 모임의 형태	
CHAPTER 3: The Case Study of 701 Korean Church Bible Study Group.....	55
제 3 장: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 사례연구	
1. Background.....	55
배경	

1) 701 Korean Church	55
701 한인교회	
2) Church Members.....	56
교회 구성원	
3) Necessity of Bible Study Group.....	57
성경연구 모임의 필요성	
2. Observation of Study Group	58
연구모임 관찰	
1) Prior Learning	58
선행 학습	
2) Case Study on Progression.....	62
진행의 사례	
(1) Case Study on Background Discussion	63
배경연구의 사례	
(2) Case Study on Detailed Discussion	67
상세연구의 사례	
(3) Case Study on Major Idea.....	68
핵심메시지의 사례	
(4) Case Study on Points and Proposition	71
대지와 명제의 사례	
(5) Case Study on Application.....	74
적용의 사례	
3) Evaluation	76
평가	
CHAPTER 4: Study on the Survey.....	78
제 4 장: 설문 연구	
1. Purpose and Procedures of Survey	78
설문의 목적과 진행	
1) Purpose of Survey	78
설문의 목적	

2) Participants.....	78
연구 대상	
3) Survey Composition and Contents.....	79
설문 구성과 내용	
2. Analysis on the 1 st Survey Results.....	80
1 차 설문 결과 분석	
1) Analysis of Reliability	80
신뢰도 분석	
2) Analysis of Minister.....	81
사역자 특성	
3. Results on the Cross-Analysis	82
교차분석	
1) Analysis of Demographic	83
인구 사회학적 분석	
2) Analysis of Ministry Environment.....	84
사역환경 측정	
3) Analysis of Preaching Ministry	86
설교사역 특성	
4. Decision Tree Model.....	91
의사결정나무 모형	
1) Procedure of Decision Tree	91
나무모형의 구성과정	
2) Detailed Algorithm	92
세부 알고리즘	
(1) Estimation of Node Model.....	92
노드 모형의 추정	
(2) Selection of Split Variable	92
분류 변수의 선택	
(3) Selection of Split Point or Set.....	93
분류 지점의 선택	
(4) Determination of Tree Size.....	94
나무 크기의 설정	

3) Analysis on the Decision Tree Data.....	94
나무모형 분석	
5. Analysis on the 2 nd Survey Results.....	95
2 차 설문 결과 분석	
1) Analysis of Minister and Ministry Environment.....	96
일반적 특성 및 사역환경	
2) Analysis of Preaching Ministry.....	97
설교사역 특성	
6. Evaluation of Analysis.....	100
분석평가	
CHAPTER 5: Conclusion.....	102
제 5 장: 결론	
1. Comparison of Survey Results	102
연구결과 비교	
2. Suggestions for Bible Study Group	103
성경 연구모임 제안	
3.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105
후속연구 제안	
Appendix A.....	107
부록 A	
Appendix B.....	117
부록 B	
Bibliography	123
참고자료	
IRB Approval.....	129
IRB 승인	

TABLES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1
2. 성별 구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83
3. 사역 배경 특성	84
4. 사역 환경 측정	85
5. 설교 사역 특성	86
6. 연령에 따른 사역자 직책과의 관계	87
7. 연령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의 관계	88
8. 교회목사 지위에 따른 출석 성도 수와의 관계	88
9. 교회 목사 지위에 따른 잘못된 해석을 인지한 경험과의 관계	89
10. 교회 목사 지위에 따른 잘못된 해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의 관계	89
11. 목회 기간에 따른 잘못된 해석을 인지한 경험과의 관계	90
12. 본문 연구의 어려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의 관계	90
13. 2차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역환경	96
14. 2차 연구 대상자의 설교 사역 특성	97

FIGURES

그림

1. 목적의 다리.....	45
2. 하박국서의 핵심메시지.....	71
3. 결측치 결과.....	80
4. 그림나무 모형의 예.....	91
5. 다른 사역자와 함께하는 성경연구의 필요성과 평균설교 횟수관계	94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Korean churches have grown in numbers rapidly in short years. Preaching have played its role as consolation and planting hope for the hurt. However, materialism and humanism that came along with economic growth led secularization within Korean churches. Korean churches and their church members failed to defend themselves from various issues which rose from failures to live according to biblical principles. In this regard, ministers began to have interest in expository preaching that could lead the church members to grow spiritually through drawing out the core principles of the Bible and applying them to their daily lives. Yet, ministers themselves had insufficient understanding and training in expository preaching. They also faced a challenge on how they are on their own in preparing expository preaching and this draws limits in Bible studies and makes objective observations of the Bible uneasy.

The significance of preaching is presented through the Bible. As in Matthew 22:19-20, “teaching them to obey,” this significance is encouraged continually through the gospels, Acts, the Epistles, and Revelations. The methods for expository preaching are also presented in the Bible such as in Nehemiah chapter 8: conveying God’s Word and its meaning. Expository preaching is to be established and prepared undergirded by the inerrancy of the Bible, belief in God, and understanding of God’s character. Throughout history, church fathers, reformers, scholars, and ministers have declared the-Word-based-expository-preaching grounded by the Bible just as the prophets and the apostles did.

The researcher will present proper ways to prepare expository preaching and solution

plans to issues that rise when preparing expository preaching through examining the Bible study gatherings for expository preaching of 701 Korean church.

CHAPTER 2

PREPARING EXPOSITORY PREACHING AND BIBLE STUDY GROUP

Expository preaching does not refer to a certain type of sermon or a certain conveying method. Rather, expository preaching is a transition process of principles found through exegesis of passages into applicable principles that are relevant to today's surroundings. In other words, expository preaching is delivering the applicable principles that are derived from principles found through the Bible exegesis so that the audience can understand and apply to their daily lives. In this regard, expository preaching is an effective way to teach God's will and principles that the Bible addresses to today's audience. The fact that the church members can live according to what the Bible pursues eventually becomes a driving force for healthy grows of the church.

To prepare for expository preaching, three stages should be completed: exegesis, exposition, and writing out the sermon. In the exegesis stage, following process is carried out. First, preachers should approach the preparation of preaching with balance between the spiritual preparation and the practical preparation. Preachers should ask guidance of the Spirit and pray as well as having the sufficient materials such as literatures, dictionaries, and commentaries. Second, passages need to be selected within the range of at least one paragraph. Passages c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church calendar, social issues, and subsequently in one of the books of the Bible, but it needs to be at least one paragraph so that what the author is intending to convey can be identified. Third, preachers need to observe and identify the whole background of the passage. They need to identify the periodic and cultural backgrounds. They can clearly understand what the small pieces mean by acknowledging how they fit into the big picture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They can vividly identify what the author intended to convey by

observing what is before and after each context, terminology, and grammatical structures. Fifth, they need to integrate the interpreted passage. Points of the sermon from each paragraph needs to be established from contents achieved from the interpretation. Through this procedure, central proposition is be found.

In the second stage, the expository stage, following process is carried out. First, the central proposition is to be established. Central proposition is an integrated theme that is the key of the passage that the author intends to convey to the first recipients. Second, preachers need to analyze the audience and prepare sermons that are relevant to them. Third, the purpose of the sermon should be established. This can be clearly identified when searching for why the author wrote the passage and what were the affects when the recipients read it. Fourth, preachers need to transform the central proposition of the passage into the central proposition of the sermon. This is a process of transforming the main point of the author into a general and biblical principle for today's audience. Fifth and lastly, preachers need to find the application points. Application points play their role in connecting the sermons with the daily lives of the audience, and thus, help them change and grow spiritually.

In the process of writing out the sermon, preachers are to relevantly structure and deploy the writing, apply example stories to help the audience understand better, and search for effective delivering methods.

It is hard to find one's own mistakes by oneself despite of following each stages mentioned above. By composing small groups for Bible study and participating in them, inspections of the self-studied contents can be made through discussions. It is beneficial because preachers can write sermons with objectively verified results of the Bible study along with multiple views that could not have been found on one's own.

CHAPTER 3

CASE STUDIES ON 701 CHURCH BIBLE STUDY GROUP

701 Korean Church was planted in 2015 with the vision from Sungtaek Kim, a homiletics scholar, which had goals to establish a healthy church and to train expository preachers who could deliver the Bible properly. Kim elaborated the roles for ministers as proclaiming and preaching the Word continually and protecting the church members from false teachings. The Bible Study Gathering was established upon the felt needs in taking responsibilities in these roles, in properly interpreting of the Bible, and in writing sermons according to those interpretations.

Each participant of the Bible Study Gathering learned how to study the Bible step-by-step with the same textbook prior to participate in the Bible Study Gathering. This process is imperative to have an identical methodology in interpreting the passages, and thus, to have smooth discussions because each participant has different views in observing and interpreting the passages. Via textbooks which are provided for prior learning process, the participants learn about the attitude as preachers and ministers;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pros of expository preaching; and the three steps of sermon preparation: exegesis, exposition, and writing the script. There are 15 detailed steps to complete the three steps; Step 1: Selecting the Passage, Step 2: Studying the Big Picture and the Background of the Passage, Step 3: Microscopic Detailed Study of the Passage, Step 4: Interpretation of the Passage and Writing Exegetical Points, Step 5: Analyzing the Audience, Step 6: The Purpose of the Sermon, Step 7: Transition from the Exegetical Points to the Sermon Points, Step 8: Deploying the Passage, Step 9: Application, Step 10: Determination of the Supplementary Materials, Step 11: Writing out the

Outline and the Main Body, Step 12: Writing out the Introduction undergirded from the Main Body, Step 13: Writing out the Conclusion, Step 14: Selecting the Sermon Title, Step 15: Practicing the Delivery of the Sermon.

The Bible Study Gathering was conducted every week and one of the books from the Bible was selected. Analysis of the audience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due to previous abundant identification from fellowship with the church members. Main discussion in the gathering was dominantly from step 2, background study, to step 7, transition of the points. Other steps were not mentioned unless there were special requests. Each participants had different roles every week. There was a presenter, a questioner, mere responder, and an answerer. Ministry issues related to contents of the Bible study were often addressed because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ministers. The Bible Study Gatherings were conducted offline only until the beginning of 2020, when COVID-19 pandemic occurred. Since then, it has been conducted via online platform. This platform eliminated the regional limits and helped former ministers who used to serve at 701 Korean Church participate possible.

Following are some benefits that the preachers can achieve. They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ample of the Bible Study Gathering. First, the passage can be observed in various views. Second, the passaged can be interpreted with various tools and methods. Third,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principles and integrating the passage interpretation can be effectively conducted. Fourth, preachers can inspect their own study process. Fifth, preachers are trained with personal Bible study that is conducted to participate in every week Bible Study Gathering.

The church members get the most benefit from these procedures because they encounter the Word continually through expository preaching, and thereby, develop their skills and understanding the Bible and application of principles in their daily lives.

CHAPTER 4

A RESEARCH SURVEY

Observing the frequency analysis of the first survey, ratio of male participants was higher than female participants and the average age of the senior pastors was 56 which reflected the aging reality of the churches. Regarding the education level, ratio of who graduated from Master level or Doctoral level were far higher and many of them were involved in ministries in long term as the average years in ministry showed 21.5. Yet, more than 70% of the churches were financially dependent which had less than 50 church members. Most of the ministers in these churches minister alone. As they take care of the church and preach frequently, the survey showed that they tended to purchase and rely on the studying literatures to resolve the difficulties of studying the Bible. The dominant difficulties when preparing for sermons were how they had to write sermons with merely their own views, expository preaching, and lack of mentors who could inspect their sermons. Through analyzing the first survey, it was attested that the issues that were mentioned in this study were happening in the ministry field.

The feature shown from the cross analysis was that the lower the age of the minister was, the more there was work overload, and vice versa. This feature was dominate among senior pastors. As the years of serving as senior pastors lengthened, they were exposed to situations where they had to preach frequently. Those who experienced this answered that they found some wrong points within their past sermons. The participants who showed low rate of work overload were found to endeavor for exposition of the Bible and its application while those who showed high rate of work overload tended to rely on literatures to resolve their issues.

The second survey was composed of questions derived from the first survey. It was

conducted with multiple choice questions as well as open-ended questions in order to converge the opinions from who participated in the Bible Study Gathering. Even though the questions having been open ended, 30.8% responded that, before participating in the Bible Study Gathering, they understood expository preaching as a mere sequential preaching of passages.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preaching were answered as lack of exegesis and time, lack of experience, objective Bible study, and application. When comparing studying alone and as a group, the pros of studying as groups were illustrated to be abundance of the study, perfection of the study, and inspection of the contents that were studied alone. Considering the improvements made after participating in the Bible Study Gathering, participants replied; time reduction, proper application, improvement in exegesis skills, and writing the-Word-centered-sermons. For the pros of the Gathering, multiple views for observing the passage and abundant studies for discussion were responded. For the cons of the Gathering, lack of methodology for constant Bible study, characteristics of each denomination, and decline in discussion due to insufficient individual studies were responded. Nevertheless,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gatherings such as the Bible Study Gathering in 701 Korean Church for expository preaching is necessary. Analyzing the two surveys, difficulties in preparing expository preaching alone were extant and plans for Bible Study Gatherings were found to be an aid to improving the preparation of preaching.

CHAPTER 5

CONCLUSION

When the church members learn the biblical principles and apply them to their daily lives, this can b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issues that emerge in churches. Thus, expository preaching can be a way to help the church members grow spiritually. For this, preachers need training in interpreting the Bible in the right way to properly prepare for preaching.

The researcher presented ways to properly interpret, exposit, and prepare for preaching through this study. Limits arise on how preachers have to study and prepare the sermon alone. The contents that are self-studied cannot be verified. Preachers have hard time investing much time in studying the Bible due to busy ministry. In order to resolve these limits, the researcher presented and verified that the Bible Study Gatherings can help develop the preaching preparation process through examining the Bible Study Gathering for expository preaching.

Following elements need to be considered when constructing a Bible Study Gathering when examining the ways that 701 Korean Church conducted the Bible Study Gathering. First, participants need to have the same direction and goals. Second, participants need to study the Bible with the same methodology. Third, prior individual study is essential before participating in the Bible Study Gathering. Fourth, there needs to be a leader who can lead and adjust the balance of each participant in the gatherings. Fifth, gatherings should take place persistently.

The researcher identified the methods of conducting the Bible Study Gatherings and the benefits when preparing expository preaching. However, despite of these benefits, maintaining these gatherings in the ministry field is a difficult task due to the limit of this study; that it was conducted through observing the ministers of merely one church.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suggested on examining several preachers in various regions who would participate in the Bible Study Gatherings and observing issues that rise from them, and thereby, study the ways to vitalize and maintain the Bible Study Gatherings when they actually established.

제 1 장

서론

1. 문제 제기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전해진 1900년대 초 이후 성도수의 급속한 성장은 근대화가 진행된 1980년까지 계속되었다. 성도수의 성장은 교회의 물질적 성장으로 이어졌으나 이로 인해 교회 내부와 밖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목회자의 자질 부족과 이기심은 심화되었으며, 교회는 세속화와 물질주의에 젖었고, 외적 팽창의 모습에 치우치는 문제들이 교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 교회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지탄은 높아지고 있다.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김성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가 갖는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있다. 물질만능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안에 들어와 중요한 성경원리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모습이 세상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²

교회에서 성경을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지혜의 책처럼 다루거나,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해 주는 교과서 정도로 이해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다.³ 이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이사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국민일보[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5679>, 2021년 5월 15일 접속.

2) 김성택, “강해설교 101” lecture note(PDF file), (Lynchburg, VA: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1), 101.

3) 유해룡, “교회의 위기와 복음선포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6권1집 (2014): 164.

1) 교회의 성장

한국의 교회는 1895년 복음이 전파되고 백여명의 교인으로 시작되어 125년의 길지 않은 역사 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성도의 수가 1983년에 8,889,194명이라는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 있어 설교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는 일본 강점기와 전쟁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아픔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이 후에도 가난으로 고난 받는 한국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사람들은 교회에 구심점이 되어 모이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70년대와 8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교회 성장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설교는 황금기를 맞이하였다.⁴ 이런 과정속에 한국교회만 가지는 설교의 특이점을 만들어 냈는데 개업예배, 돌 예배, 추도 예배 등 여러 곳에 예배라는 이름을 남용하고 설교를 진행해 설교가 하나의 행사 순서처럼 인식되게 된 것이다.⁵

한국에서 급속한 교회 성장을 하던 80 년대에 미국은 포용적 이민정책을 펼쳤고, 1986 년에 통과된 이민 개혁 및 통제에 관한 법령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극복을 위한 이민 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도 넓게 이민의 문호가 열리게 되었다.⁶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으며 당시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도 이민자들에 포함되었다. 미국에 도착한 성도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면서 동시에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있는 한인교회를 개척하거나 방문하게 되었다. 한인 모임의 구심점이 필요했던 한인 사회에서 교회는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었고, 한인이 밀집한 여러 지역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교회와 미국내 한인교회는 공통적으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여러 상황적 가치에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교단내 분열은 깊어지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물량주의, 배타주의, 기복신앙으로 인한 교회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세속화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

4) 류응렬,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적 흐름과 성경적 설교를 위한 제언.” 「신학지남」, 309호 (2011): 231-2.

5) 정장복, “설교 백년, 회교와 성찰의 전망.” 「기독교사상」, 43권 (1999): 48-53.

6) 김태근,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1호 (2017 여름): 95-6.

고,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주의는 21세기의 큰 기류가 되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⁷ 이러한 기류와 함께 성장한 인본주의는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며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역할과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2) 성도의 변화

전쟁 후 한국의 어려웠던 경제 상황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수고했던 국민은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을 올려 놓았다. 부지런한 국민들 안에 포함되어 있던 당시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하며 한국교회의 성장도 이끌었다. 미국에 정착한 성도들은 노동의 수고가 보장된 미국사회에서 비즈니스와 직업을 통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기 시작하였다. 성도들의 안정은 곧 많은 한인교회들이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 성장하던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사회적/경제적/교육적 상승에 맞추어 성경적인 삶의 원리와 적용점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성장과 안정을 이루고 개인적 풍요를 추구하게 되면서 드러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는 교회 구성원의 삶에 부작용을 동반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지나친 순종과 봉사를 요구하였고, 헌금의 강요와 헌신의 삶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다.

헌신의 삶을 살며 교회를 개척했던 세대는 지나게 되었고 기술과 정보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세대로 바뀌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미디어와 뉴스를 통해 쉽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회에 확산되고 그에 대한 비판은 성도들의 몫이 되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감당해야 할 봉사의 이유를 찾기 보다는, 교회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이유에 대해 교회에 흥미도 없고 너무 지루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⁸ 교회의 구성원은 점차적으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목회자에 대한 인식은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설교자들을 지적, 영적

7) 이규민,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 「신학논단」, 81집 (2015): 201-2.

8) George Barna and David Kinnaman, 「처치리스」. 장택수 역 (서울: 터치북스, 2015), 66-7.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⁹

개인주의가 팽배한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났으며, 인구절벽을 맞이한 교회는 성장의 내리막길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통합 장로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0 년 8,162 개의 교회는 2019 년 9,288 개로 1,126 개가 늘어났지만 교인수는 2010 년 약 285 만명에서 약 250 만명으로 줄었다. 그 중에 젊은 세대의 이탈은 심화되고 있으며 중고등부의 경우는 2010 년 18 만 8 천명이었던 학생수가 11 만 5 천명으로 줄었다.¹⁰ 청소년은 인터넷과 미디어에 많이 노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성장하다가 자신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인데, 청소년 연령층에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세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일 학교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1972 년 이후 출석 인원은 4100 만에서 2600 만으로 줄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오히려 미국의 인구는 23%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큰 교단의 주일 학생수는 70 년부터 90 년까지 43 프로가 감소하였고, 꾸준히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숫자도 43%감소하였다. 교회를 다니는 성인의 19% 만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답했다.¹¹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와 삶에 적용되는 설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그저 감동을 받고 싶어하며, 자신이 잘 아는 본문을 듣고 싶어하고, 쉬운 설교를 추구하고,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 지루하지 않게 듣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¹²

3) 목회자의 상황

종교개혁이 일어난 계기는 로마 카톨릭과 사제들이 자신의 물질과 부를 위해 성경말씀을 곡해하고 성도들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을 이끈 루터(Martin Luther)와 칼빈(John Calvin)은 교회는 목회자로 인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로 정의하였다.¹³ 목회자에게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9)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18.

10) 넘버즈,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온라인 자료]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67th_201016_Full_Report.pdf, 2021년 5월 3일 접속.

11) Thom Schultz and Joani Schultz 「지루함을 깨뜨리는 가르침의 기술」. 마영래 역 (서울: 디모테, 2000), 9.

12) 김홍진,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의도와 성도의 설교에 대한 니즈의 비교분석.” 「대학과 복음」, 14호 (2009): 204.

13) 정홍열,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 (한국 조직신학 논총 제20집), 18.

의 의도를 파악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사명에 충실했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70-80년대의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였다. 성장하는 교회는 예외 없이 좋은 설교를 가지고 있다는 설교자들의 생각은 더 나은 설교를 찾고 추구하게 되었다.¹⁴ 그 당시 발행되었던 기고를 보면 설교 작성을 하기위해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이 내용을 잠재의식속에 깊이 간직하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활동하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인의 당면요구를 깊이 관찰하고, 교인들의 요구에 수응 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물으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 이는 당시 설교가 교회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경험과 감정에 의지하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헌신을 약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성도수의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성장을 경험하게 되거나 목도하였던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을 내용을 떠나 더욱 자극적인 간증과 체험, 경험 위주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런 한국 교회의 악순환은 결국 설교자들의 강조점이 축복으로만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제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자는 기복적인 신앙을 지향하게 만들었다.¹⁶

복을 받기위해 순종적이었던 처음 신앙세대가 지나고, 교육과 생각의 사고방식이 다른 새로운 세대는 한국 역사에 있었던 삶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개인의 삶을 추구하고, 이해해야 행동으로 옮기며, 가치의 타당성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이다. 이들은 엄청난 정보 전달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며 설교를 마주하고 있다.¹⁷ 사회에 만연한 실용주의는 성경원리를 전하는 강해설교에 대해 구시대적 유물 정도로 평가절하하며,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공격적이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¹⁸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회중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설교를

14) 명성훈, 「교회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3), 288.

15) 이성현, “목회자와 설교준비.” 「신학지남」, 38권2집 (1971): 9-10.

16) 정홍열,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 19.

17)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18.

18) 문상기, “성경적 설교로서의 강해설교.” 「설교한국」, 1호 (2009): 52-80. 75-6.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경청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설교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¹⁹ 설교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달 방법에 더욱 치중하거나 각종 복합 미디어나 문화를 설교에 도입하여 효과적인 설교전달을 위해 노력하였다.²⁰ 이런 노력으로 설교자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길 원했지만 흡족히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더 은혜로운 설교를 추구하기 위해 숫자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설교자를 흉내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게 되었다.²¹ 장두만은 성도가 시간을 내어 예배에 참석하고도 설교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영적인 무관심의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설교자가 청중에게 필요한 설교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열심이 없는 설교자에 대한 주된 이유로 신학교 강의와 같은 설교와, 모방한 설교와, 설교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설교자의 현실을 지적했다.²²

4)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미국 갤럽이 한달에 한번이상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아직도 설교를 통하여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으며, 말씀이 자신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였다.²³ 청중은 설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내려 은혜가 가득 차길 원하며, 말씀을 들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길 기대한다.²⁴ 그러나 한국 교회에 찾아온 강단의 위기에 대해 한동구는 문제의 근원을 설교 내용이 성도들의 영적 공허감을 메우지 못하는 것에서 찾았다.²⁵

19)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설교자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7집, 2013), 131.

20)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19.

21) 김창훈,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에 있어서 네 가지 관심.” 「신학지남」, 71권3집 (2004): 116-7.

22) 장두만, “청중이 귀를 기울이는 설교, 어떻게 해야 하나?” 「성침논단」, 5권 (2007): 7-14.

23) 넘버즈, “미국 크리스천의 교회출석 이유.” [온라인 자료]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29th_200103_b1.pdf, 2021년 5월 5일 접속.

24) 김도인, 「설교자와 목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166.

25) 한동구,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와 영성적 설교.” 「복음과 신학」, 5권 (2002): 28.

교회의 한 성도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성도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된다. 그 유일한 시간을 통해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신앙적 삶에 더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을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습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인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자세는 배우기를 원하고, 배우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이고 문제 중심적이며,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다양함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²⁶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런 성도들의 요구들과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교를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생각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준비되지 못한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처드 라메쉬(Richard Ramesh)는 설교자들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어떤 설교자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구원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말씀속의 하나님도 믿지 않으며, 복음주의적 입장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어떤 설교자들은 성경 없이도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단에 서서 뉴스거리와 스포츠, 음악, 정치, 문화 등의 이슈에서 발췌된 예화로 가득 채워 설교를 전한다. 성경적인 내용이 결여된 설교를 하는 것이다.

셋째,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주시는 영감과 계시로 설교를 채워줄 것이라 생각하며 설교자가 감당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

넷째, 어떤 목회자들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교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나, 심방, 상담, 경조사 등 부차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설교자의 힘이 빠져버리게 되어 사역의 우선 순위인 설교를 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²⁷

26) Lawrence O. Richards and Gary J. Bredfeldt, 「창조적 성경교수법」, 안영혁, 이순옥 역 (서울: 그리심, 2010), 330-1.

27) Ramesh Richard,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정현 역 (서울: 디모데, 1998), 16-8.

어떤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²⁸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설교자들로 인한 피해를 교회와 성도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교회가 다시 번성하려면 충실하고 능력 있으며 성경적인 설교의 회복보다 더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²⁹ 그는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 성경 강해설교를 제시하며 그 설명으로 성경 본문으로부터 거기에 있는 핵심을 끌어내고 노출시키며, 성도들이 볼 수 있게 열며, 불분명한 것을 명백하게 하고, 매듭지어 있는 것을 풀어주고, 단단히 포장된 것을 펼쳐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³⁰ 이런 강점들로 인하여 많은 설교자들이 강해설교를 시도하지만 현실은 강해설교와는 거리가 먼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한다.³¹ 그 원인은 설교자들이 강해설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며, 원리에 충실한 강해설교를 작성하는 훈련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설교 작성시 성경 관찰과 주해, 강해와 설교의 중심명제를 파악하는데 있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한 실수가 생기지만 설교자가 혼자 준비해야하는 특성으로 인해 본인이 연구한 성경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설교를 통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의 전달이 성도들에게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강해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강해설교를 준비할 때 나타나는 여러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코비드 19(COVID19) 판데믹(Pandemic) 상황에 놓여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에 참여하여, 설교자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위해 701 한인교회의 강해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모임을 연구 조사하여, 본문말씀의 주해와 강해가 충실하게 작성된 강해설교가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8)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설교자를 중심으로」, 133-42.

29)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129.

30) Ibid., 139.

31)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22.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강해설교의 작성 원리를 파악하고 작성 방법을 제시하며, 작성 중 나타날 수 있는 설교자의 실수와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자가 각종 서적들과 통계자료, 학술지, 간행물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701 한인교회의 설교를 위한 성경공부 모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워싱턴 지역에 있는 한인 목회자와 701 한인교회 말씀 연구모임에 참가하였었거나, 현재 참가 중인 사역자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아래와 같은 범위와 한계가 설정된다.

첫째, 설교자의 범위이다. 미국내 다양한 지역의 한인교회 설교자와 여러 지역에 분포된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 환경과 작성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적 목회 환경과 도시 외곽의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 인근지역과 버지니아(Virginia)주로 그 조사 범위를 제한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성경 연구모임 참가자의 범위이다. 모든 설교자들이 강해설교에 작성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성경 연구모임 참가자는 동일한 강해설교 작성법에 대한 자료로 학습하여 강해설교에 대한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 연구에 참여해 토론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701 교회에서 성경연구모임에 6개월 이상 참여하였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는 많은 표본이 될 수 있는 성경연구 모임이 필요했지만, 담임목회자를 포함한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성경연구 모임을 하거나, 지역내 같은 뜻을 가진 목회자들을 찾아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에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모임을 분석하여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위치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의 문화적, 상황적 배경이 다름에도 설문연구가 미국 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방안이 각 지역에 처한 교회의 배경과 상황으로 인해 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3. 강해설교의 이론적 근거

1) 성경적 근거

성경에서 설교의 개념을 찾아보면 두 가지 요소가 부각 되는데 설교의 명령과 설교의 방식이다. 설교의 명령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권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20 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전서 4 장 13 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디모데후서 2 장 2 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 장 2 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도서 2 장 1 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와 같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³²

설교의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설교에 관한 몇 가지 동사적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케루소”이다. “설교하다”, “선포하다”는 뜻이 포함된 단어로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침례요한, 예수, 그리고 바울의 설교 행위에 모두 이 동사가 사용되었다.

둘째, “유앙겔리조”이다. “복음을 전하다”란 뜻으로 ‘케루소’와 상호 교환적이다.

셋째, “마르투레오”이다. “증거하다”, “증언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법적 술어이다. 요한복음 1 장 7-8 절에 침례요한은 빛을 증거하였고, 사도행전 15 장 35 절에서 요한계시록 1 장 2 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였다.

넷째, “디다스코”이다.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전하는 메시지의 목적과 내용에 초점을 둔다. 마태복음 28 장 20 절에 예수님이 가르칠 것을 명한것과, 디모데전서 6 장 2 절과 디모데후서 2 장 2 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것을 권했다.³³

이 단어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경적 방식을 나타내는 많은 동사들이 있다. 이 단어들의 사용에 한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설교자의 메시지가 오로지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것에 초점

32)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1993), 31.

33) Ibid., 32.

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³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강해설교를 나타내고 있다.

강해설교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로는 느헤미야 8장의 율법의 낭독과 해석을 살펴볼 수 있다. 8장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하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성벽이 재건된 후 절기의 준수 및 언약의 갱신에 대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시작 부분이다. 칠월이 되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한다. 에스라는 말씀을 읽었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 곧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 율법의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느 8:1-8).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여러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이해시켜 주었던 방법은 성경 강해 설교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율기 시작하였고 더하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다시 그 백성에게 중용하였을 때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였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느 8:9-12). 윌리엄슨(Williamson)은 백성들이 슬퍼하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반응(눈물)은 아마도 율법이 그들에게 낯설었다는 사실로 설명하기보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제공한 해석(7-8 절)으로 인해 그 율법이 그들의 상황에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에스라 9:1-2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에스라는(아마도 처음으로) 말씀 가운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부분이 시대를 초월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해석 방법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백성들은 양심이 찢려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³⁵

백성의 삶을 바꾸게 한 것에는 에스라와 영적리더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메세지에서 성경의 중심명제에 대한 충실한 해석과 호소가 뒷받침이 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강해설교의 구체적인 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회당에서 강해하셨다. 또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도

34) Ibid., 33-4.

35) D.A. Carson 외, 「IVP 성경주석」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2008), 591.

예수님은 주제식 강해를 펼치셨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강해를 하였고, 스테반은 순교하기 전 역사적, 전기적 강해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하였다.³⁶ 수많은 전도여행과 설교를 하였던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말씀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한다(행 20:27). 그는 또한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 그의 사랑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당부한다(딤후 2:15). 설교 본문에 충실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여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설교자는 성경 해석자여야 함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바울이 말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³⁷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고, 회심을 불러오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설교의 권위를 뒀야만 설교의 목적과 연결될 수 있다.³⁸

2) 신학적 근거

신학은 인간의 지성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분야다.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설명이 필요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곧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 체계화하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⁹ 설교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은 필요하다. 올바른 신학은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모든 기본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주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자극을 준다.⁴⁰

스토트는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설교의 개념과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즉 그의 존재, 그의 행위, 그리고 그의 목적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다. 우리가 믿는 신관에 따라 우리가 전하는 설교의 본질이 결정된다. 그리스도인은 설교자가 되기를 열망하기 전에 적어도 아마추어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⁴¹

36)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39.

37) 정성구, “강해설교와 성경해석.” 「신학지남」, 57권 3집 (1990): 99.

38) 류응렬, “강해 설교의 아버지 해돈 로빈슨의 설교신학.” 「신학지남」, 74권 1집 (2007): 235.

39) Charles C. Ryrie, 「평신도 신학입문」, 이한규 역 (서울: 두란노, 2002), 12-3.

40)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105.

41) Ibid., 106.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과 그 분의 성품을 믿는 설교자의 설교와, 확신 없이 믿지 못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설교자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그대로 설교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스토트는 하나님의 대한 확신을 가지는 설교자들이 가지는 신념에 대한 세가지 확언을 아래와 같이 말한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 완전하고, 순결하며, 빛이 비추는 것처럼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청중에게 비추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행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로서 그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다.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세우고 지키셨다. 성경의 하나님은 억눌린 인류를 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여호와와는 자신이 행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다. 현대 신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부인하고, 역사적 활동에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설명적인 말씀이 함께 있었음을 증명한다.⁴²

설교자가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신념과 함께 필요한 것은 성경에 관한 신학적 신념이다. 스토트는 설교자가 가져야 할 성경에 관한 신학적 신념에 대해서 세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셨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을 위임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신적 영감과 인간의 저작성을 함께하는 곧 인간의 입으로 말해졌고, 인간의 손으로 쓰이고, 인간의 말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시편 95편의 “오늘”을 인용하여 적용했듯,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지금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지금도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성경말씀은 현재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42) Ibid., 106-9.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 뿐 아니라 말씀하시며 계속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 장 12 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능력의 말씀을 나타낸다. 성경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생명의 통로라는 신념을 설교자들은 가져야 한다.⁴³

이 확신들은 모두 성경이 무오 하다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나온다.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해 찰스 라이리(Charles Ryrie)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첫째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모든 철자까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철자화 되어 나온 것과 다른 내용으로는 어떠한 약속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성경이 권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성경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경이 폐하여 질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경이 오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믿으셨음이 틀림없다.

셋째 주님은 한 단어, 심지어는 동사의 시제까지 깊은 차원의 논증을 하는 근거로 삼으셨다.⁴⁴

스토트는 “한 세대 동안 성경의 교리를 연구하였지만 그 진술에 있어서 가장 만족할 만한 모범은 성경은 하나님이 설교하는 책이라고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제임스 팩커(James Packer)의 표현을 이용해 설교에 있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⁵ 하지만 강해 설교자라고 하면서도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는 설교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무오 하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을 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오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책을 강해할 필요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오한 성경에 대한 설교자의 유일한 논리적 반응은 강해적으로 설교하여 성경 본문 전체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 그대로 정확하게 설교하여 청중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⁴⁶ 제임스 콕스(James Cox)는 “조직신학의 목적 중의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포괄적인 지

43) Ibid., 110-22.

44) Charles C. Ryrie, 「평신도 신학입문」, 135.

45)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116-7.

46)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54.

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직 신학의 추상적인 진술들이 그 기반 되는 성경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신학적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⁷

3) 역사적 근거

강해설교의 역사적 근거는 성경시대부터 시작한다. 성경시대 초기에는 성경이 주어지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계시적 설교가 나타나고 후 시대에는 말씀과 성경이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에 계시적 설교와 해석적 설교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계시적 설교의 대표적인 예로는 모세의 신명기 31 장에서 33 장까지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 여호수아나, 다윗, 솔로몬은 계시적이고 해석적이며 교훈을 주는 설교를 하였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미래의 예언과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였다. 신약시대에 들어 설교자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셨고, 사도들과 초기교회 지도자들의 설교는 강해설교의 역사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는 신학적 논문이기 보다는 설교였다. 그는 평생을 복음전도와 교사와 강해설교자의 모습으로서 살았다.⁴⁸

초기 기독교 시대와 중세 시대에 들어와 교회의 계급주의, 사도의 계승이라는 비 성경적인 개념, 헬라 사상의 혼합은 진리의 가르침과 말씀의 사역으로부터 설교의 세속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독교 초기 시대에 기독교 보호를 위한 변증론과 우화적 해석방법 등은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석식 해석방법을 통한 설교를 하던 설교자는 존 크리스소스톰(John Chrysostom)과 같은 일부의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 중세시대는 강해설교가 가장 희귀한 시대로 평가된다. 기독교 초기시대의 해석학적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카톨릭에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강해식으로 성경 본문을 다루지는 않았다. 중세시대가 끝날 무렵 나타난 몇몇 개혁자들이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자 했던 노력은 종교개혁시대 강해설교의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하였다.⁴⁹

47) James W. Cox, 「설교학」, 원광연 역 (경기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82.

48)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74-8.

49) Ibid., 79-86.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에 있어 최고의 권위라고 선포하고 최초의 완전한 영어 성경작업을 힘써 도우며 성경적인 설교를 하였다. 교황권, 면죄부, 화체설과 카톨릭의 부를 반박하는 일을 하며 목사의 가장 큰 임무가 설교라 생각하였다.⁵⁰ 종교개혁 전에 있던 르네상스때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카톨릭에 대한 부패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당시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성직자의 가르치는 기능은 언제나 해야 한다며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⁵¹ 종교개혁 시대까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만연했던 건강하지 않은 설교라 하더라도 설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⁵² 그러나 종교개혁의 시작과 함께 루터,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칼빈, 닉스(John Knox)와 같은 설교가들이 생겨났다. 그들의 설교의 특징은 예수의 수난과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단순한 복음 전달과,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직선적인 말씀 전달을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개혁가들은 카톨릭의 비 성경적인 모습을 알기에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여 성경적인 설교를 했고 이는 오늘날 나타나는 설교의 형태와 신학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⁵³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강조된 가르침과 설교의 중요성은 17 세기 청교도 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다. 리차드 박스터(Richard Baxter)는 성직자의 무지와 게으름, 방종을 보며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목회자들에게 성도에게 말씀과 행위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시대에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활동은 청교도 외에도 장소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⁵⁴ 영국의 윌리엄 팩스(William Fox), 독일의 모라비안(Moravian) 형제단, 존 번연(John Bynyan), 존 웨슬리(John Wesley)와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등 경건한 복음 주의적인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철학적이고도 무미건조한 설교를 지양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생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였

50)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28-9.

51) Ibid., 30.

52) Walter Brueggemann,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홍병룡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291.

53) 이훈구, 「설교학총론」 (서울: 양문문고, 1996), 69-73.

54)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35-7.

다.⁵⁵

20세기에 들어서며 인문주의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요를 기대하게 하였고 교회는 낙관주의적 분위기에 동조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조성된 낙관주의적 설교는 세계대전의 시작과 경제공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설교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 주었다.⁵⁶ 많은 설교자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고귀한 일을 한다는 신념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 서구사회에서의 지속된 회의론적인 시대의 분위기는 설교자들의 확신 있는 선포를 방해하였고, 설교의 쇠퇴는 곧 교회의 쇠퇴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설교의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들은 여러 교회 들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많은 목회자가 설교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⁵⁷ 이러한 배경 속에 시작된 한국 교회의 설교는 1895년 시작된 선교사의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초기 선교사들의 설교는 두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본문과는 관계없이 정한 제목에 맞추어 대지와 소지를 정한 후 적절한 성경 구절을 가져다 사용하는 제목 설교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특징은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의 사용이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어려운 강해 보다는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 선포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⁵⁸ 이후 시대에 일본의 탄압과 한국 전쟁,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 정교한 설교학의 이론이 정립되지는 못하였지만, 설교자들은 고난의 시절 가운데 설교를 통해 진리를 외치고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제시하였다.⁵⁹ 한국설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평양신학교의 객안련 교수 외에 1980년까지 설교학 전공 신학교육 교수가 없었다는 것은 설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⁶⁰ 교회의 양적 성장이 절정을 이루던 시대였지만 동시에 잘못된 설교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숙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55) 이훈구, 「설교학총론」, 73-5.

56)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43-8.

57) Ibid., 51-2.

58) 류응렬,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적 흐름과 성경적 설교를 위한 제언.”, 233.

59) 정장복, “설교 백년, 회고와 성찰의 전망.” 「기독교사상」, 43권 (1999): 43-6.

60) Ibid., 47.

단순한 복음의 전달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지만, 그 한계점은 교육과 미디어의 발달로 그 역할을 다 하였다. 류응렬은 현재의 설교신학에 대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학보다 주로 효과적인 전달로 청중에게 다가가는 전달법에 치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신학은 필연적으로 전달법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⁶¹

설교의 역사는 시작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와 목사가 성경을 설교의 근거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강해설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하여 구약의 선지자, 사도들이 했던 방법이다. 많은 교부와 종교개혁 때의 개혁자들의 설교 방법이 강해설교였다. 이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말씀 중심의 강해설교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신학자들의 설교방법도 강해설교였으며 이것이 전통적인 기독교 설교의 맥을 이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⁶²

4.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강해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강해설교를 작성할 때 설교자가 찾지 못했던 주제나, 어려운 주제나 강해, 본문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성경 연구모임의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강해설교 작성법의 제안은 701 성경연구 모임이 시작할 당시 세미나와 함께 제시되었던 훈련내용을 강해설교에 관련된 문헌들과 함께 연구하여 보완, 작성하였다.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하여 진행되는 강해설교 작성의 실제적 적용을 살펴보고, 개인이 작성했을 때 파악하기 어려운 실례들을 찾아 연구하였다. 설교자의 설교 사역에 관한 조사는 워싱턴 DC 근교에 위치한 다양한 한인교회와 701 한인교회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에게 직면한 문제들과 설교자의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강해설교의 필요성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강해설교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진술과 문헌 검토를 다룬다.

61) 류응렬,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적 흐름과 성경적 설교를 위한 제언.”, 259.

62) 이훈구, 「설교학총론」, 75-8.

2 장에서는 강해설교 작성에 대한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강해설교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본문 주해 연구와 중심명제 찾기, 강해와 설교적 중심명제 찾기, 원고 작성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성경 본문의 주해와 강해를 위한 성경연구 모임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한다.

3 장에서는 강해설교를 작성하는 중 나타나는 어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701 성경연구 모임에서 진행된 성경 연구 방법의 실패를 연구한다.

4 장에서는 설문 조사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목회자들의 목회 현황과 설교 현황, 설교 작성시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방안으로의 강해설교 작성법과 성경연구 모임을 검증한다.

5 장에서는 연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강해설교 작성과 성경 연구 모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5. 문헌검토

본 연구에 주로 사용된 문헌은 강해설교에 대한 이해와 강해설교 작성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한 서적들이다.

「강해설교 101」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강해설교 작성법을 제시하는 교재이다. 저자 김성택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수학한 강해설교 방법론을 실제 목회현장에서 사용하고, 경험에서 나온 설교학적 지침들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접목하고 수정하면서 한국 목회자들의 목회상황에 맞추어 저술하여 리버티 신학 대학원의 교재로 사용하였다. 저자는 한국적 목회상황에서 설교자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청중에게 성경적 설교 전달이나 가르침이 없었고 결국 한국 교회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결하고 성도를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강해설교를 통한 선포와 가르침이라 제시한다. 저자는 강해설교 준비를 크게 주해과정, 강해과정, 설교작성 3 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를 다시 5 단계로 나누어 총 15 단계로 세분화하여 설명했다. 저자는 큰 그림, 작은그림, 중간그림의 성경관찰을 통해 그 시대 성경저자가 일차 청중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일차 청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파악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본문의 중심명제를 찾는 과정을 지나, 청중분석과 설교의 목적을 찾아, 설교의 중심명제로 바꾸어 적용점을 찾게 한다. 각

단원마다 서술된 상세한 안내는 설교 작성자로 하여금 과정을 거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작성방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설교의 전달방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교재는 성경적 설교의 부재로 인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강해설교를 작성할 때 본문선택과 설교 후 강단에서 내려올 때까지 설교자가 알고 준비해야할 과정을 서술한 한국교회와 목회자에게 적합화 된 강해설교 지침서이다. 본 연구의 강해설교를 위한 성경연구 모임의 세미나 자료와 대부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2 장의 강해설교의 이해와 작성법을 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강해설교의 재발견」은 존 맥아더(John MacArthur) 외 저명 신학교수들이 설교자들이 효과적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해설교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총 5 부로 나뉘어져 각 부마다 3 장에서 5 장으로 이루어져 총 19 장으로 강해설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리처드 메이휴(Richard Mayhue)는 1 장의 제목을 “강해설교의 재발견”으로 선택하여 강해설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그 중요성과 작성법을 설명함과 동시에 책 전체의 서론과 같이 작성했다. 2 장부터는 강해설교의 배경 곧 신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2 부 4 장부터는 강해설교자의 자질과 설교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다. 3 부와 4 부 본문연구와 작성법을 통해 성경 본문선택과, 관찰 및 주해과정, 성경 연구에 필요한 도구설명 및 설교의 중심주제를 찾아 작성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5 부에서는 강해설교의 실제적 전달에 필요한 전달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특히 이 책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강해설교의 신학적, 역사적 의미의 설명을 통해 설교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강해설교」의 저자인 설교학자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은 본 저서를 통해 강해설교의 원리에서부터 실제까지 손쉽게 안내하는 책을 저술하여 복음주의 설교자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끼쳤다.⁶³ 이 책은 성경적 설교의 전달을 위한 강해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의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총 10장으로 단원을 나누어 각 장마다 설교작성의 단계를 포함해 소개하고 있다. 첫 장에서는 강해설교의 필요성과 설교자의 역할에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해설교의 정의를 알려주어 앞으

63) 박태현, “강해설교 원리와 실제.” 「신학지남」, 81권 4집 (2014): 301.

로 배우게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2장에서는 설교의 핵심적 아이디어 곧 성경의 개념 전달의 중요성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혹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뽑아내어 주된 생각인 주요소와 주요소를 설명하는 보충 요소를 작성하는 것을 알려 준다. 3장에서는 본문을 정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3장에서 찾은 주석적 아이디어를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사실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설교적 아이디어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설교의 방향과 목적, 곧 청중의 신앙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주석적인 아이디어를 설교적인 사상으로 바꾸는 중요성에 대해 서술한다. 6장에서는 설교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설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설정하고, 아이디어의 전개나 설교의 개요를 잘 확립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7장에서는 강해설교의 활성화에 대해 다루는데 작성된 개요를 더욱 확실히 설명, 증명, 적용, 증대시키는 자료로 재진술, 개요에 대한 설명과 정의, 사실에 관한 정보, 인용, 이야기, 예화 등의 사용을 권한다. 8장에서는 설교원고의 비중에 비해 짧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론과 결론의 작성을 다루고 9장과 10장은 언어와, 용모와, 제스처, 말의 높이와 속도 등 설교의 실제적인 전달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문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해설교 작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해설교 교과서와 같기 때문에 전반적인 강해설교 작성 구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스토트의 「현대교회와 설교」의 원서 제목은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Between Two Worlds”이다. 두 세계를 연결해 주는 설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설교의 역사적 개관을 상세히 알려주고 현재 설교의 대한 거부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설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념들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있다. 성경속의 모든 배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세계로 넘어와야 할 다리놓기로서의 설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 책의 제목이나 목차에서는 강해설교라는 주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책 본문 내용을 통해 스토트가 제안하는 설교가 강해설교라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스토트는 이 책을 통해 설교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깊게 논하는데 진실과 열정, 용기와 겸손은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명확히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설교의 역사와 설교자의 자세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라메쉬의 「삶을 변화시키는 7 단계 강해설교」는 강해설교 작성과정을 최대한 쉽고 단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특히 주해와 강해과정에 대한 예시가 많아 설교자로 하여금 방법론을 파악하고 작성하는 훈련을 하는 것에 많은 도움과 이해가 된다. 이 책은 설교 준비를 하나의 “몸”으로 주제를 잡고 본문의 삶과 골격과 심장 그리고 중심인 설교의 두뇌, 그리고 다시 설교의 골격과, 심장, 그리고 삶의 순서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각 단원의 목록과 같이 하여 설교의 준비가 어떻게 시작하여 선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돕고 있다. 간단한 7 단계의 대주제들에 비해 각 단원의 소주제가 흩어져 있지만 예제와 예화 도표를 통하여 독자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주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돕고 있다. 강해설교를 모르던 사람이라면 새로운 시도와 훈련을 해 볼수있게 해주고, 강해설교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방법에 서 좀 더 확실한 구조를 제시하며 설교작성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저자의 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작성 방법이기때, 설교작성의 실제적 적용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되었다.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통해 독자로 하여금 성경말씀을 독자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일반적인 여러 예화를 통해 독자가 책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연구에 관해 세 단계 관찰, 해석, 적용으로 나뉘는데 관찰에서는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해석에서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을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연구에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책의 마지막 단원에서 개인 성경공부와, 소그룹 성경공부에 관한 적용은 본 논문에 소그룹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스cott 듀발(Scott Duvall)과 다니엘 헤이즈(Daniel Hays)의 「성경해석」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성경 본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 우리의 현 상황에서 본문을 파악하고 신학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책은 스물 두개의 목록들이 다섯개의 대단원으로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다. 각 목록들은 서론, 설명과 예제와 결론, 그리고 과제로 구성되

어 있다. 첫 단원은 성경을 읽는 방법과 문장과 단의 세부적인 관찰, 단어와 대조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훈련하게 한다. 두번째 단원에서는 문맥에 있는 의미를 찾고, 당시의 배경과 환경을 연구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세번째 단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자가 전하려는 의미를 찾고 해석하여 알아낸 본문의 원리들이 주는 의미와 그 의미들이 현 시대로 왔을 때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네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인 신약, 구약의 해석여행에서는 각 성경의 특징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점등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성경을 읽었고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성경이 전달하고 하는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님을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많은 현대의 성경의 독자들 의식구조의 의하면 자신의 주관성을 넘어 객관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 결국 올바른 해석을 가져올 수 없기에 이 책을 통해 관찰과 주석과 연구를 통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⁶⁴ 성경연구 과정에 필요한 상세한 설명을 연구에 참조하였다.

듀발과 헤이즈는 「성경해석」의 성경 주해와 원리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적인 강해설교 작성할 수 있도록 「성경설교」를 카터(Terry G. Carter)와 함께 저술하였다. 이 책은 강해설교 작성을 10 단계로 구분해 성경 본문의 충실한 주해와 강해, 설교작성과 전달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강해설교 책들과 다른 점은 신약을 서신서와,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으로 구약을 내러티브, 율법, 예언서, 시편과 지혜문으로 나누어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본 연구 2 장의 강해설교 작성 과정을 비교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D.A. 카슨(D.A. Carson)의 「성경해석의 오류」 성경을 많이 접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네가지 곧 단어연구와, 문법적, 논리적, 그리고 전제 및 역사적 오류로 나누어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성경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 목회자나, 사역자는 자신도 모르게 해석을 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실수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성경해석자들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지적해 주고 있다. 저자는 해석자가 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오류를 나열하고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지식과, 이해가 없이

64) Duvall, J. Scott, and J. Daniel Hays, 「성경해석」, 류호영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6.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무지한 일인지 알게 해 주고 있다. 어느 한 부분에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편중되고 치우쳐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격해석에는 방해요소와 장벽만이 될 뿐임을 말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었듯 저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석하며 읽어가야 하는 것이 해석자의 임무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이 본 연구에 자주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설교자의 오류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앨버트 몰러(Albert Mohler)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설교의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설교는 점점 성경 본문과 멀어져 가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며, 강해 설교를 통해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회복시키고자 하기위해 설명하는 책이다.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은 설교 작성에 있어 청중에게 더 초점을 맞추었다. 설교자가 청중을 향해 최대한 그들이 성향으로 다가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 전달하라고 한다. 이 책은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고 필요 사항들을 수정해 주고, 설교의 기술 등을 제공해 주어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훈련시켜 주는 최적의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존 스토틀의 해석학적 원리와, 설교학적 원리를 모은 안병만의 「존 스토틀 설교의 원리와 방법」은 그의 생애부터 신학과 설교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그가 성경을 연구했던 해석학적 원리와 해석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성경시대와 현대의 넓은 차이를 건너올 수 있는 “다리놓기”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강해설교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외에도 여러 문헌을 통해 강해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제 2 장

강해설교 작성과 성경연구 모임

교회는 성경적인 설교와 함께 세워지고 잘못된 설교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성경적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통로이고 영혼의 변화를 불러온다. 교회에 변화와 활력을 가져오기에 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직결되어 있다.⁶⁵ 류응렬도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가 이런 상실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적인 교회와 설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⁶⁶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사해주는 능력이 있어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과 함께 기록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초대교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대로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성도는 신앙과 삶은 분리되었다.⁶⁷ 설교를 통해 성경의 원리를 이해한 성도라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한다. 이는 설교자의 성경적 원리를 포함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필수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목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성도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보고는 목회자 및 설교자가 성경적 가치관이 포함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⁶⁸ 이에 강해설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작성법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그리고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 연구의 설교자의 훈련과 설교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하려 한다.

65) 류응렬, “개혁주의 강해설교가 나아가야 할 다섯 가지 방향.” 『신학지남』, 72권 3집 (2005): 201-2.

66) 류응렬,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적 흐름과 성경적 설교를 위한 제언”, 232.

67) 박영철. 「구명난 복음을 기워라」 (서울: 규장, 2016), 12-3.

68) 넘버즈,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온라인 자료]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67th_201016_Full_Report.pdf, 2021년 5월 3일 접속.

1. 강해설교의 이해

박완철은 그의 기고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다스리신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한 설교는 교회 사역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⁶⁹ 복음주의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한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거룩히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하여 세상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는 것이다.⁷⁰ 강해설교는 설교의 주제와 대지 그리고 소지 모두를 본문에서 이끌어 내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초해 교인들의 삶에 연결시키는 방법이 된다.⁷¹ 성도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해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해설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1) 강해설교의 정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강해설교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강해설교” 단어의 사용이 교회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강해설교를 주제로 한 책들이 기독교 서점을 찾으면 쉽게 볼 수 있다. 설교를 사역의 중요 가치를 여겨 많은 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강해설교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설교는 성경을 연구하여 중요 단어 하나를 찾아 그 단어를 위주로 설교를 작성해 성도들에게 중요 단어를 각인시켜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노력을 한다.⁷² 강해설교를 작성하기 위해 글 쓰는 방법과 훈련에 집중하여 설교자의 능력 적인 측면의 향상을 추구하기도 한다.⁷³ 또 어떤 설교자들은 포인트 설교를

69) 박완철, “설교에서 성경 본문의 중요성.” 「신학정론」, 27권 2집 (2009): 330.

70) Graeme Goldworthy,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영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23.

71) 류응렬, “설교의 개요 이렇게 작성하라.” 「신학지남」, 73권 2집 (2006): 213.

72) 소재찬. 「설교,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234.

73) 김도인. 「설교는 글쓰기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384.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⁷⁴⁾ 이처럼 설교자들과 성도가 가지는 강해설교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강해설교 대한 오해는 대체로 네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설교 형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한 책을 순서대로 하는 설교라는 생각이며, 셋째는 주어진 본문을 한절씩 주석하는 설교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번째는 본문이 어느정도 길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⁷⁵⁾ 이런 오해들은 강해설교를 진행하며 나타나는 강해설교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요소들이 강해설교라고 할 수는 없다.

메이휴는 강해설교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첫째, 통일성과 방향성이 없이 단어와 구절을 하나하나 주석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본문의 대해 철저한 석의와 논리적 배열 없이 산만하게 주를 달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셋째, 본문 연구 없이 피상적인 의미에 기초한 연관 없는 제안이나 주장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넷째, 석의가 적절하다 할지라도 설교의 주제, 아웃라인, 주제의 발전이 없으면 강해설교가 아니다.

다섯째, 단순한 아웃라인에 설교적 요소 없이 약간의 살만 붙이는 것이 아니다.

여섯째, 본문에서 똑같이 중요한 다른 부분을 생략한 채, 본문 가운데 특정 부분만을 사용하는 제목 설교가 아니다.

일곱째, 주석에서 발견한 문법적 사실이나 인용구를 수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이 메시지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해야 한다.

여덟째, 설교적 구조와 수사학적 요소가 없는 주일학교 공과 타입의 강론이 아니다.

아홉째,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 읽는 것이 아니다.

열 번째, 경건의 시간이나 기도회에 나오는 개인적인 담화가 아니다.⁷⁶⁾

74) 최철광, “강해설교 제대로 하기: 강해설교는 포인트 설교가 아니다.” 「성침논단」, 12집 (2018): 269.

75) 류응렬, “강해설교 작성법.” 「복음과 신학」, 13집 (2011): 248-9.

76)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35.

그러나 선포되는 많은 설교의 대부분이 위의 나열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강해설교라면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첫째, 성경만이 메시지의 원천이다.

둘째, 세심한 석의를 통해 메시지를 성경으로부터 이끌어 낸다.

셋째, 성경을 정상적인 의미와 문맥에서 정확히 해석한다.

넷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성경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한다.

다섯째, 성경적 의미를 오늘날에 적용한다.⁷⁷

한국 교회에서는 주제설교와 본문설교가 강해설교로 오해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전통적 설교 형식인 주제설교는 설교자의 고유의 아이디어로 주관적인 주제가 설교의 핵심명제가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문을 2-3구절로 짧게 설교자의 취향에 따라 본문을 선택하는 본문설교의 경우는 구조와 핵심 단어를 깊게 분석하여 구절의 주해에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본문의 전후 문맥과 당시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적인 설교가 되기 쉽다.⁷⁸ 설교는 다수의 청중을 위해 객관적이어야 한다. 때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과 같은 주관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설교가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⁷⁹

안병만은 그의 책에서 강해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차펠은 “강해 설교에 대한 기술적 정의는 특정한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말씀을 관통하며 청중들의 삶에 적용되는 주제들과 부제들을 추출해 냄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로빈슨에 따르면 “강해 설교는 문맥 속의 구절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로부터 도출되고 전해져 온 성경적 개념의 전달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반하우스는 “강해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을 설명하고 삶의 모든 경험을 활용하여 강해진 내용을 현실 조명하는 법을 배우는 예술이다”고 한다. 라이펠트는 다음과 같이 간접적인 적용을 내리고 있다 “진정한 강해설교는 적당한 균형 안에서 말씀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적용을 병행한 것이다.” 바인즈는 강해설교를 “성경말씀의 구절을 설명하고 그것을 중심 주제와 요지에 따라 구성하며 결정적으로 청중들에게 그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⁸⁰

77) Ibid., 38.

78) 김성택, “강해설교 101”, 9.

79)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서울: 규장문화사, 1997), 55

80) 안병만, 「존 스토트의 설교의 원리와 방법」 (서울: 프리셋트선교회, 2001), 181-2.

즉 강해설교는 어떤 설교의 유형이나 전달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본문이 정확히 의도하는 바를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성택은 강해설교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강해설교는 하나의 설교의 형식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해 역사적, 문학적, 문법적, 신학적인 관점에서 주해를 하고, 그 해석에 근거하여 현대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다양한 설교형식)을 통해 전달하여, 바른 적용을 하게 하는 설교이다. 그 결과로 회중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⁸¹⁾

강해 설교는 본문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 정확히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청중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저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강해설교를 작성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작성법이 동반되어야 한다.

2) 강해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자의 역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은 빌립은 남쪽으로 내려가 성령의 인도로 내시를 만날 수 있었다. 내시에게 읽고 있는 글을 깨닫는지에 대해 물었고,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고 답하였다. 빌립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복음과 예수를 가르쳤고, 내시는 침례를 받았다. 내시에게는 성경 말씀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빌립은 성경의 내용을 풀어 가르쳤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 강해의 중요성과,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 강해의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정인교는 설교자의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설교자의 말이란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구체성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언인 한에서 ‘증언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 그것은 설교가 그리스도에서의 하나님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성서의 증언에 근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의 살아 있는 소리’가 설교자의 증언의 말이 되어 살아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⁸²⁾

81) 김성택, “강해설교 101”, 13.

82) 정인교. 「설교학총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50, Dietrich Ritschl, *A Theology of Proclamation*,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 70에서 재인용.

곧 설교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증언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이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동원은 문제의 설교자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했는데 첫번째는 자신과 설교에 대한 문제를 거부하는 설교도취형이며, 두번째는 설교의 능력이나 본인 설교의 권위를 확신하지 못하는 설교회의형이고, 세번째는 설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설교무관심형이며, 마지막 네번째는 본인의 설교작성이 기준과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힘들어하는 설교고민형 설교자이다.⁸³⁾ 이런 부류의 설교자들은 곧 설교의 위기를 가져온다. 앞서 나온 문제를 거부하는 설교도취형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설교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기기만에 빠지기 쉽다. 김지혁은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형의 자기기만을 세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성경저자의 의도를 위한 해석학적 과정 없이 자기의 선입견이나 경험을 본문의 의미로 믿는 해석학적 자기 기만이고, 두번째는 성령에게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가 감당해야할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자기의 습관과 성향에 빠져 설교 표절을 하는 등 실천적 자기기만을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설교자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취향의 맞는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본문 선택에서의 자기기만을 말하였다.⁸⁴⁾ 그렇기에 강해 설교학 책들은 강해설교 작성법에 앞서 설교자의 의무와 자세에 중요성에 대해 다룬다. 설교자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것을 기억하며 부여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⁸⁵⁾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전하며, 동시에 자신이 선포한 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도 있다. 설교자 본인이 말씀을 전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청중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딤후 4:16)라며 설교자의 역할과 그 삶의 행함의 중요성이 청중으로 하여금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고 강조한다. 김성택은 강해설교자의 역할에 대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련된 그들이 자연스레 삶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

83)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14-5.

84) 김지혁, “설교자의 자기기만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9호 (2016): 135.

85) 류응렬, “강해설교 작성법.” 「복음과 신학」, 13집 (2011): 277.

게 하는 사역이 우선순위인 것을 안다면, 목사들은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는 삶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⁸⁶

설교자는 자신의 임무를 알고 그 맡겨진 일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목사에게 설교는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책임이다. 설교는 목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떤 목사들은 설교에 목회의 생명을 걸고 심혈을 기울이며 준비하지만, 완성된 설교에 대해 본인은 만족하지 못하다.⁸⁷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결국 성도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에 설교자에게 더해지는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대의 목회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전달하는 임무보다는 청중이 듣기 원하는 것을 전하려는 경향이 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강해설교를 위해 회복되어야 할 명제에 대해서 리처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성경적 설교의 신빙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보다 개인적 적용에 보다 치중하는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들에 의해 변색되어가고 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순종해야 할 인간의 의무에 초점을 맞춘 선포이기를 요구한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는 강해설교야말로 성경에 충실한 설교이다.⁸⁸

강해설교는 설교자들이 변해가는 현대의 청중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의 진행을 위해서 설교자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 “강해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를 본문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석의의 과정과 현 상황에 맞는 본문 의미의 설명을 전제로 한다.” 고 리처드는 말했다.⁸⁹ 자기 설교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설교자는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자기만은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현실이다.⁹⁰ 설교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강해를 위한 전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의 헌신을 해야 한다.

86) 김성택, “강해설교 101”, 17.

87) 손달익, “주눅 든 현대 설교자를 위한 치유서.” 「눈에 띄는 좋은 책」, (2015): 98.

88)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25.

89) Ibid., 25.

90) 윤익세. 「당신도 명설교자가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 칼빈대학교출판부, 2005), 284.

3) 강해설교의 유익

강해설교의 유익에 대해 김성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강해설교의 장점은 주해 과정을 통해 얻은 성경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한다. 설교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여,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킨다.⁹¹⁾

즉 강해설교는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 대해 관찰과 해석, 적용하는 능력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⁹²⁾

설교자의 측면에서 강해설교가 주는 장점에 대해 김창훈은 여섯 가지로 말한다.⁹³⁾

첫째, 강해설교는 설교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 설교자가 사람의 말을 설교한다면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없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의 자신감으로 선포할 수 있다.

둘째, 설교자가 원하는 주제와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셋째,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성경의 원리를 강해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도 원만히 다룰 수 있다.

다섯째, 본문이 이어지는 강해설교를 하면 표적이 되는 설교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적다.

여섯째, 성도에게 목회자가 말씀에 근거해 살아간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강해설교는 청중의 삶에도 강한 충격을 준다.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헌신에 대한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설교의 표적이 아니라 말씀의 대상임을 안겨해주고, 교회의 사역에 성경적인 동기부여를 갖게 해주고,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해 준다.⁹⁴⁾

91) 김성택, “강해설교 101”, 14.

92) Ibid., 15.

93) 김창훈, “강해설교의 이해.” 『신학지남』, 72호 (2005): 202-11.

94) Richard Ramesh,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19-20.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선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며, 청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강해설교가 주는 주요한 유익이다. 이런 여러 유익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시작할 때 청중이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성이나 호기심을 느끼기 어렵고 설교의 대지가 다소 분산되는 단점은 유의해야 한다.⁹⁵

4) 강해설교의 필요성

윌리엄 고지(Willam Gouge)는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 청중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가르치고 배운 것들을 그들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사람들이 많은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사역자들이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는데 그가 16세기의 청교도 주석가였던 사실을 생각하면 당시에든 현재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⁹⁶ 18세기 캠벨 몰간(G. Campbell Morgan)은 사역자의 최상의 임무를 강조하며 다른 많은 일에 열중하다가 한가지 일, 곧 설교를 게을리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설명하였다.⁹⁷ 현재 상황에 더해진 문제는 설교자가 청중을 소비자로 생각하면서 아무리 전달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소비자가 흥미를 잃었다면 설교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목회 상황이다. 설교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기 보다는 청중이 듣기 원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⁹⁸ 설교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성경적인 말씀과 원리가 성도에게 가르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스토트는 목사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성경 연구를 하지 못하는 단 한가지 이유에 대해서 게으름을 지적하였다. 목사들이 그들의 일을 감독하거나 게을리 일한다고 비난할 사람도 없으며 자신의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목회 분야에 대해 과감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⁹⁹ 김남준은 게

95) 이승진, “강해설교,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기독교사상』, 48호 (2004): 127.

96)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26.

97) Ibid., 27.

98) Ibid., 30.

99)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225.

은 사람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된 정신세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건강한 사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게으름을 불충한 악으로 표현했다.¹⁰⁰ 지금 나타나는 한국교회의 위기에 주요 원인이 목사의 태만과 부실한 설교 때문인데 이는 설교자가 즉시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다.¹⁰¹ 물러는 현재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설교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많은 복음주의자는 주제 설교와 내러티브 설교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성경은 단지 간결한 성구 인용으로 내러티브의 자료 정도로 사용되고 만다고 지적하였다. 성도들의 관심은 마음을 끄는 것들에 대한 설교에 집중하게 되고 진지한 설교에 대한 욕구는 사라져 가고 있지만 많은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가 강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¹⁰²

에드 스테저(Ed Stezer)는 그의 저서인 교회성장 리포트를 통해 다시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은 살아 있는 예배와 성경적인 설교를 했으며 설교의 과반이상이 강해설교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의 리더들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¹⁰³ 교회에 생겨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과 공격받는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 강해설교가 절실하다.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해설교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꾸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2. 강해설교 작성

1) 주해 과정

사람들은 글이나 편지, 문헌을 읽을 때와 같이 늘 주해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 어떤 글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글은 해석이나 주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글이 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주해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글을 쓴 저자와 받는 수신자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어렵거나 글의 표현이나 형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하게 되면 글을 읽는 독자로서 글의 해석이 힘들게

100) 김남준, 「게으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26.

101) 김성택, “강해설교 101”, 4.

102) R. Albert Mohler, 「말씀하시는 하나님」, 김병하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77-8.

103) Ed Stetzer and Mike Dodson, 「다시 부흥한 324 교회 성장 리포트」, 김광석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10), 120-6.

된다. 이 외에도 언어의 차이, 문화적 장벽, 역사적 장벽 등의 문제들이 있으며, 글 자체가 편집의 산물인 경우 글을 해석 하기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주해를 위해 특별한 훈련과 도구, 작업은 필수적이다.¹⁰⁴

다음 소개하는 단계를 통해 성경을 주해하는 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1) 준비단계

본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교자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설교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자질 중에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주된 요소이다. 제임스 라스컵(James Rosscup)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오늘날 설교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설교준비의 여러 요소들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는 기도 사이에서 지혜롭게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강단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은 모든 시대를 통해 가장 위대한 소식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고 부지런한 통로가 되는 것이 그의 끊임없는 열망이어야 한다.¹⁰⁵

기도와 함께 성령이 조명하시는 역사를 설교자는 떠나서는 안 된다. 로버트 토마스(Robert Thomas)는 주해에 있어 성령과 설교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확한 석의는 궁극적으로 석의자의 연구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한다. 그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당한 적용 또한 불가능하다(고전 2:14).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고전 14:33,40),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성적인 피조물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석의 과정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다.¹⁰⁶

조명은 계시나 영감과 같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설교자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계시와 영감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을 것이지만 조명이 없다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조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계시를 이해할 수 없고 계시는 의미가 없어진다. 조명은 계시의 과정의 완성

104) John H. Hayes and Carl Holladay, 「성경 주석학」, 김근수 역 (서울: 솔로몬 말씀사, 1988), 9-19.

105)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137.

106) Ibid., 211.

이다.¹⁰⁷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풀어내며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의지해야 한다.

성경 주해를 위해서 양질의 도구 또한 필요하다. 다양한 역본의 성경과 성구사전, 성경사전, 성경 핸드북, 성경 배경에 관한 책들, 그리고 언어학, 고고학, 성경신학, 문학 비평, 고대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석들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도서는 선물을 받거나, 엄가로 구입해 모은 것이나 단순히 도서 목록에 실린 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선정해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도서와 함께 정기 간행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도 이제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강해 설교를 위해 설교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¹⁰⁸

(2) 본문선택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설교자가 연구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본문 선택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회중의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¹⁰⁹ 스토트는 설교 본문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네가지 주 요소를 제안했다.

첫째는 예전적 절기로 성탄절과 부활절과 같이 절기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본문을 선택할 수 있다. 설교자는 교회력에 속박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같은 절기들을 지켜 본문을 찾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기본적인 주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외적인 요소인데 국가의 일이나, 재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설교자가 민감 해져 필요한 본문을 선택할 수 있다.

세번째는 목회적 요소인데 목회자는 회중들의 필요와 문제거리, 의심과 공포,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 성도를 향한 목회적 민감성은 매주 말씀을 듣고 그 결과로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이끌어 준다.

네번째 요소는 인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명료하고 빛을 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본문을 선택할 수 있다.¹¹⁰

107) Ibid., 172.

108) Ibid., 257-268.

109) 안병만, 「존 스토트의 설교의 원리와 방법」, 91-2.

110) Ibid., 92-4.

스토트는 본문 선택의 한 방법으로 성경의 한권을 정해 시리즈로 설교하게 되면 간과하거나, 회피했던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청중으로부터 표적설교의 의심을 방지할 수 있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소개시켜 성경의 주요 주제와 해석하는 법을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¹¹¹

설교 작성에 있어 단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커크(B. J. De. Klerk)는 단락의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한다.

하나의 단락(pericope 혹은 paragraph)은 성경의 한 부분 자체로서 독립적인 단위로 설정 가능한데, 책의 나머지 부분과의 맥락 안에서 독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단락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연속 설교의 경우, 한 단락은 다른 단락을 뒤 따르며 설명한다. 따라서 단락은 실제적인 출발점이다. 그러나 종종 하나의 단락이 아니라 더 작은 단위인 문장 하나가 관심사가 될 때가 있다. 그러나 문장은 독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락 이야말로 해석을 위한 하나의 최소 단위 (unit)로 취해져야 한다.¹¹²

본문의 길이를 정할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 한 문단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3) 배경 연구

기본적인 성경 해석을 위한 접근을 할 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종합적 접근 방법과, 자세하게 주위를 살피며 필요한 부분을 깊게 파내려 갈 수 있는 분석적 접근 방법이 있다.¹¹³ 곧 성경 전체를 통해 부분을 해석하고, 부분을 통해 전체를 설명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 큰 그림을 이해하면 그림의 작은 조각들도 이해가 될 수 있고, 작은 조각들이 큰 그림을 구성하는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¹¹⁴

큰 그림 곧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연구함으로써 그 시대 청자가 놓여있던 사회적, 문화적 구조를 알 수 있다. 전성민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해석은 모든 설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현대를 사는 청중에게 강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성

111) 김성택, “강해설교 101”, 25. 재인용.

112) B. J. De. Klerk and F.J. Van Rensburg, 「설교 한 편 만들기」, 송영목 역 (서울: 생명의양식, 2018), 15.

113) Terry Hall, 「성경의 파노라마」, 배웅준 역 (서울: 규장, 2008), 17.

114) 김성택, “강해설교 101”, 27.

경의 배경에 서술된 세계관과 규범이 현대적으로 바뀌는 역사적 배경을 해석하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¹¹⁵ 현 시대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성경이 선포된 시기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성경 연구자는 시대적 차이를 파악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 선입견과, 거부감과, 전통 등에 의해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¹¹⁶ 성경해석에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설교자가 더욱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고, 삶과 믿음의 방법이 건강해지게 하며, 분별력이 생기고, 성경적이며,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한다.¹¹⁷

다음과 같은 질문은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자는 언제 그 책을 썼는가? 저자의 사역의 성격은 무엇인가? 저자와 청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저자가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책이 쓰일 당시의 청중은 누구인가?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저자와 청중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청중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책이 쓰였을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 책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역사적-문화적 요소가 있었는가? 우리가 연구하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알 필요가 있는 어떤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쟁점은 있는가?”¹¹⁸

여러 요인들을 살피는 배경연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부정확한 정보는 주해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에 배경연구는 본문을 과거 성경시대로 재구성하는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¹¹⁹

해석을 시작할 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서로 모순되지 않기에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으며 통일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¹²⁰ 동시에 성경 연구자는 구약과 신약의 통합적인 연구와 문학 장르에 따른 연구를 하여야 한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때문에 전체 그림속에 성경 본문을 연구해야 하면서 서신서, 복음서, 네러티브, 율법서, 시가서, 선지

115) 전성민, 「세계관적 설교」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8), 25.

116) 김성택, “강해설교 101”, 27-9.

117) D.A. Carson, 「성경 해석의 오류」, 박대영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26.

118) 김성택, “강해설교 101”, 30, Terry G. Carter 외 2 인, 「성경설교」, 김창훈 역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9), 55에서 재인용.

119) Ibid., 30.

120) Norton T. Sterrett, 「성경해석의 원리」, 한국성서유니온 편집부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78), 27-8.

서, 지혜서와 같이 장르의 배경을 파악하고 주해해야 한다.¹²¹ 스토트는 “성경 저자들이 글을 쓸 때 다양한 장르를 사용했고 각 글은 해당 장르의 규범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서로, 시는 시로, 비유는 비유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어진 글이 사실의 기술이든 비유 든, 영감을 받은 것은 저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단어의 자연스러운 의미입니다.” 라고 했다.¹²² 성경의 장르를 이해하고 본문을 해석할 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역동성을 글을 통해 느끼며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본문의 이해하는데 명료함과 풍요함이 더해질 수 있다.¹²³

(4) 상세 연구

큰 그림 연구를 통해 본문의 전체적 배경이 파악되었다면 상세관찰을 통해 그림의 작은 조각들인 단어와 문맥들의 의미와 상관 관계를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를 상세 관찰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가 문맥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김성택은 문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문맥은 성경저자의 사고의 흐름이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문맥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문을 문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저자의 사고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맥을 무시하여 생기는 문제점은 연결되는 문맥의 의미가 본문의 구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하지 않고 본문에만 초점을 맞출 때에 생긴다. 앞 뒤 문맥을 살피는 목적은 저자의 의도와 메시지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규명하는데 있다.¹²⁴

문맥의 전후 관계를 이해하면서 본문을 연구한다면 본문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본문이 성경속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할 수 있다. 문맥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문맥을 통해 사건의 연결성을 볼 수 있고, 본문의 강조점을 찾을 수 있다. 접속사의 변화나 내용 변화를 연구하면 앞뒤 문맥간의 연계관계를 이해하기 쉽고, 상호 교체 기법이나 교차대구법을 이용해 본문의 강조점을 나타내

121) 김성택, “강해설교 101”, 30-2.

122) John Stott, 「성경이란 무엇인가」, 박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5), 67-8.

123) 권호, “현대 강해설교의 장르 이해와 적용.” 「신학정론」, 36권2집 (2018): 351.

124) 김성택, “강해설교 101”, 33.

기도 한다.¹²⁵

마지막으로 성경 저자에 의해 사용된 단어와 문법적인 구조를 관찰하고 파악하여 본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관찰을 통해 저자가 사용한 긴 단어와, 특이한 단어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은 깊이 관찰해야 한다.¹²⁶ 그리고 단어들은 본문안에 주요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어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위해 김성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안한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들이 무엇인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문맥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원저자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그 단어가 본문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¹²⁷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단어의 종류나 형태, 동사의 시제와 인칭 등을 파악하는 구문적 분석과 통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성경 원어 문장을 통해 본문의 주 동사와 분사의 구조를 찾아내면 단어들의 재배열을 통해 저자가 의도한 것을 명확히 재구성할 수 있다.¹²⁸

(5) 본문해석의 통합

본문의 전체 관찰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의 우리와 아주 다른 상황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초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¹²⁹ 본문의 상세 관찰을 통해 연구한 단어는 퍼즐의 작은 조각들로 큰 그림을 맞출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 파악을 통해 본문 전체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다. 단어의 의미들이 문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이 문맥은 단어의 의미

125) Ibid., 36-8.

126) Richard Ramesh,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41.

127) 김성택, “강해설교 101”, 41.

128) Ibid., 43.

129) J. Scott Duvall and J. Daniel Hays, 「성경해석」, 174.

를 결정하거나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¹³⁰ 본문 해석의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주해를 통해 얻은 내용을 잘 정리해야 본문의 중심명제, 대지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설교에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김성택은 설교자가 주해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성경연구자가 성경을 연구한 것을 통합하여 성경저자가 말하는 본문의 중심 명제(The Central Proposition of the Text)와 주요 대지(main points)를 찾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주해한 것이다. 본문을 통합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저자의 의도(메시지)가 무엇인지, 일차 청중이 이해한 해석을 정리하라. 본문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라. 연구한 관찰, 해석의 중요한 요소들이 해석 통합에 반영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각 단락을 요약한 후에 주해적 주요대지를 한문장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합하여 본문의 중심명제를 한문장으로 만들라.¹³¹

설교자는 본문 해석을 통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강해 과정의 첫 단계인 본문의 중심명제를 만들어야 한다.

2) 강해 과정

(1) 본문의 중심 명제

강해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 얻은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¹³² 청중에게 성경 해석을 통한 문법과 단어의 의미를 나열하고, 그 시대의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여도 저자가 원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강해설교는 아니다. 성경 해석을 통해 찾아낸 내용을 강해 과정을 거쳐 설교를 작성하기 위한 요소들로 변환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연설은 그 연설이 가지는 중심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처럼, 훌륭한 설교도 하나의 단순하고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을 찾아내 전달해야 한다. 그 개념을 전하는 첫번째 단계는 본문의 중심 명제를 만드는 것이다. 중심명제의 다른 이름들로 중심아이디어, 중심주제, 중심논제, 중심

130) Ibid., 234.

131) 김성택, “강해설교 101”, 47.

132)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402.

사상 등 여러가지로 칭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개념은 같다.¹³³

스토트는 중심명제를 지배적 사상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중심명제를 명확히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째, 모든 본문은 하나의 중심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있는가, 그리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본문에는 합리적인 방법과, 몇 가지의 특별한 교훈이 있을 수 있지만 본문이 가지는 하나의 우선적인 주제가 있다.

둘째, 설교는 강의와 다르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의는 방대하고 넓은 분야까지 강의자의 의도에 의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 지배적 사상 곧 중심 명제를 기억하게 전달하는 것이다.¹³⁴

중심명제는 하나님께서 본문의 저자를 통해 원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통합적인 주제인 것이다. 중심명제를 찾기 위해서 각 단락의 주제나 요점을 파악하고 이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전체 본문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명확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에 대해 저자는 어떻게 보충하여 설명하는지 술어가 되는 내용을 찾아야 한다. 이과정을 통해 찾아낸 내용들의 종합을 주제와 술어가 포함된 한문장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심명제를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중심명제는 본문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동시에 본문 전체를 섭렵하게 된다.¹³⁵

본문 중심의 석의적 명제는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의 주제와 서술이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고, 원리가 포함되지 않으며, 청중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설교적 중심명제를 작성하게 되면 설교에서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메시지를 찾기 어렵다.¹³⁶

133)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42-3.

134) John Stott, 「현대교회와 설교」, 242-3.

135) Richard Ramesh,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92-5.

136) 김성택, “강해설교 101”, 67.

(2) 청중 분석

본문의 중심명제를 찾게 되면 설교의 목적을 거쳐 설교의 중심명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환을 할 때 설교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청중을 분석하는 것을 필수적이다. 현대의 청중은 쉽고 간결하며, 선명하고, 단순하고 깊은 터치를 원하고, 주제가 좁고, 감동적이고, 재미까지 포함한 설교를 원한다.¹³⁷ 이렇게 다양한 것을 원하는 청중들이 놓여 있는 배경에 대해 이동원은 네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는 세속주의의 사람들, 두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전자시대의 사람들, 세번째는 절대를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비교하는 상대주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네번째는 세상속의 현실에 장벽에 부딪혀 살아가는 현실주의에 있는 사람들이다.¹³⁸ 같은 본문의 내용을 설교한다고 해도 대상에 따라 전환의 깊이와 요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청중분석을 위해 살펴야 할 요소를 김성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영적상태를 파악하라. 초신자인지 성숙한 성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지식수준을 파악하라. 성경지식, 신학지식의 여부를 살펴보면 설교 시 단어선정과 설명에 도움이 된다.

셋째, 환경을 파악하라. 다양한 사회, 문화, 배경의 다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규모와 개인의 다름을 파악하라. 청중의 규모와, 연령, 성별 등도 설교 전달 방식이나 본문 선택에 영향을 준다.

청중 분석에 중요한 요소는 관계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청중 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들의 상황과 형편, 문제와 기도제목, 영적상태 등을 파악해야 한다.¹³⁹

(3) 설교의 목적

리처드는 설교의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본문의 중심명제에 근거해서 하

137) 박영재. 「원 포인트로 설교하라」 (서울: 요단출판사, 2018), 25-8.

138)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12-3

139) 김성택, “강해설교 101”, 70.

나눔께서는 성도들이 무엇을 이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가?”¹⁴⁰ 로빈슨은 설교의 목적을 설정할 때 왜 저자가 이 본문을 썼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받는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¹⁴¹ 리처드와 로빈슨의 질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찾는 방식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배후에서 찾는 것이다. 강해설교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과 동일 선상에 있어야 한다. 강해자는 청중들로 성경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배경아래 오늘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듣는 청중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려는 지에 대한 목적을 정해야 한다.¹⁴²

김성택은 설교의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통해 청중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변화이다. 설교를 들은 후, 구체적인 반응과 변화를 기대하며 설교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시키는 것과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을 포함한다.¹⁴³

설교의 목적이 유효 적절하게 설정되면 설교를 작성할 때 본문에 삽입되거나 빠져야 할 부분의 결정이 용이하고, 서론과 결론, 적용의 내용들을 집중해 작성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설교의 중심 명제에서 주제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⁴⁴ 주해의 목적은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지만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청중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¹⁴⁵

(4) 설교의 중심명제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서 성경 본문의 구절을 언급하고, 스토리의 흐름도 좋고, 전달 메시지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설교의 중심명제와 본문의 중심명제와 다르다면 성경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강해설교

140) Richard Ramesh,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107.

141)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131.

142) Ibid., 131-2.

143) 김성택, “강해설교 101”, 71.

144) Richard Ramesh,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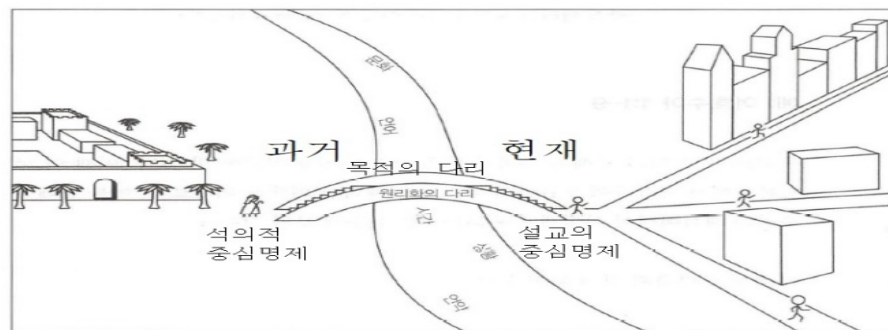
145) 류응렬, “중심사상을 찾아가는 개혁주의 강해설교.” 「신학지남」, 72권 4집 (2005): 215.

가 될 수 없다.¹⁴⁶ 본문 중심명제가 성경시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청중에게 과거에 적용된 이해라면, 설교적 중심명제는 현재의 청중을 위해 보편적 성경 진리로 바꾸는 작업이다.¹⁴⁷ 보편적 성경 진리인 원리가 포함되지 않은 본문의 중심명제는 청중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설교의 중심명제는 현재의 청중을 향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¹⁴⁸

설교의 중심명제도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주제부와,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술어부로 나뉘어진다. 본문의 중심명제는 바뀔 수 없지만 저자와 의도와 일차 정중의 이해에서 나타난 사실은 설교의 목적을 지나면서 본문의 중심명제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변화가 가능하다.¹⁴⁹ 목적의 원리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나 원리가 포함된 설교적 중심명제가 나오게 된다.

권호는 이 과정을 다리를 건너는 연관성으로 표현했다. 설교자들이 원어를 설명하고 본문의 구조까지 치밀하게 분석하여 설교하여도 성도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연관성의 부재로 설명하며 현재의 청중에게 본문을 연관시키기 위해 본문의 인물과, 상황을 오늘날과 적절히 연관시키고 연관성의 포커스를 조절하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관련된 문장과 예화와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라고 설명하였다.¹⁵⁰

<그림 1> 목적의 다리 ¹⁵¹



146) 김지찬, “한국교회 강해설교의 문제점: 설교학자가 아닌 성경학도의 눈으로 본.” 『신학지남』, 66권 3집 (1999): 209-10.

147) 김성택, “강해설교 101”, 72.

148) Ibid., 67.

149) Richard Ramesh,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118-20.

150)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서울: 아카페북스, 2018), 104-37.

151) J. Scott Duvall and J. Daniel Hays, 「성경해석」, 31.

설교적 중심명제는 현대의 청중을 위해 작성되기 때문에 필요 단어와 문장의 사용을 현대 감각에 맞게 작성하여 청중으로 전달이 쉽게 되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적용

청중의 삶을 설교와 연결시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용이다. 하지만 주해와 강해를 통해 설교의 목적과 대지를 만들어도 그것을 성도의 삶에 연결시켜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¹⁵²

류응렬은 잘못된 적용을 세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본문에 근거한 설교를 하였지만 적용은 말씀과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둘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반응하는 삶이 아닌 청중의 윤리적 변화만을 추구하는 적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본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청중의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¹⁵³

헨드릭스 역시 성경연구가 해석으로 시작되어 해석으로 끝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 의미가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아는 적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¹⁵⁴

바른 적용을 제시하기 위해 청중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을 필수적이다. 칼빈 밀러(Calvin Miller)는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가지는 “그래서 어찌란 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하는 청중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실천하기 보다는 들으려고 한다. 이전세대가 쉽게 복음의 선포에 순종하고 변화했다면 지금의 세대는 그냥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다. 설교는 듣는 것이 핵심이지 변화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선포한 후 청중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에 대한 적용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152) Terry G. Carter 외 2 인, 「성경설교」, 김창훈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128-9.

153) 류응렬, “적용을 향해 나아가는 개혁주의 강해설교.” 「신학지남」, 72권 2집 (2005): 223-4.

154) Howard G. Hendricks, and William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정현 역 (서울: 디모데, 1993), 367.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의 이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회피하려 한다. 변화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듣지 않으려는 청중에게 적용은 설교자가 필요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성도의 변화와 순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셋째, 설교의 적용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자신은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감에 있다. 적용을 제시하여도 자신감으로 인해 제외되는 경우는 많다. 죄는 존재하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용에 있어서 청중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반항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¹⁵⁵

설교자는 청중이 가지는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적용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성택은 적용을 찾기 위해 먼저 설교자나 성경연구자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성경 본문의 가르침,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특정한 적용을 현대의 삶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의 도리아니(Daniel M. Doriani)의 세가지 원리를 인용하였다.

첫째, 모든 종류의 성경에서 적용을 발견하리라 기대하라. 율법과 규칙들은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용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본보기를 말해주고, 성경적 상징과 이미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보고 행동하게 한다. 교리는 우리를 확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축복아래 살 수 있음을 말해줄 수 있다. 노래와 기도들을 통해 예배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어떤 경우 본문 적용은 기본적으로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성경 적용에 도전은 성경 문화와 현대 문화 간의 간격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바른 적용을 위해 본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우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이 불순종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기존 원리들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함으로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현대인들 간의 간격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먼저 원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155) Calvin Miller,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박현신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9), 131-42.

오늘날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해야 한다. 본인이 찾은 적용을 다른 성경들과 비교하여 입증하여야 한다.¹⁵⁶

어떤 이들은 어떤 설교가 되든 그리스도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리한 그리스도 결론은 설교의 중심명제를 흐리게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말씀을 항상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중심 진리가 예수의 가르침이나 인격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적용에 연결시켜 삶에게 행하게 하는 것이다.¹⁵⁷

적용에 있어서 설교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김성택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설교자는 청중이 적절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코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구실로 적용을 이용하면 안 된다. 설교자 먼저 자신이 삶에서 적용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회중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삶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¹⁵⁸

적용은 본문에서 나타난 원리에 일치해야 한다. 적용의 원리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성경 본문이 원하는 적용을 현재의 청중이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자는 청중의 언어와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 전달해야 한다.

3) 설교작성과정

김성택은 설교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청중은 설교자가 추측하거나 상상하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며 온다. 그렇기에 자신이 연구한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저자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고 본문의 중심명제를 바탕으로 설교를 작성해야 한다.¹⁵⁹

설교 작성을 할 때 먼저 전개 방법을 정하면 글의 전개가 용이하다. 설교의 형식은 설교자에게 주

156) 김성택, “강해설교 101”, 75, Daniel M. Doriani, 「해석, 성경과 삶의 의미를 찾다」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1), 199-200에서 재인용.

157) 김성택, “강해설교 101”, 76.

158) Ibid., 76.

159) Ibid., 86.

어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문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전개방식을 취하면 된다.¹⁶⁰⁾ 전개의 형태는 원포인트나, 이야기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 본문의 구조와 순서에 입각하여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형태를 연역적, 귀납적, 혹은 두가지를 합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¹⁶¹⁾

전개 방식을 정하고 설교적 중심명제와 대지를 이용해 설교의 아웃라인을 작성하는 것은 설교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고 설교의 살을 붙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⁶²⁾

설교를 작성하면서 생각할 것은 설교를 쉽고 흥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예화나 인용, 통계와 시청각자료와 같은 보조 자료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¹⁶³⁾ 로빈슨 교수는 예화의 경우를 예로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준다. 사실이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개인적인 예화 시 인용을 지키라는 것이다.¹⁶⁴⁾ 보조자료는 설교의 이해를 돕는 보조일 뿐 무리한 예화나 인용을 통하여 설교의 주제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설교작성의 구조와 도구를 결정하면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헨드릭스는 원고에 사용하려는 단어의 의도 하나 하나를 다 글로 옮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는 원고 작성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설교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향상된다. 둘째, 원고를 작성하면서 설교를 전하기 전에 설교자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셋째, 새롭거나 더 좋은 정보들을 얻게 되어 설교의 내용이 향상된다. 넷째, 내용에 예화나, 전환구절, 적용 등을 더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다섯째, 설교 길이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¹⁶⁵⁾

로빈슨은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습관화시키면 설교자가 설교가 점점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

160) 류응렬, “강해설교 전개형식의 기초와 방법론.” 「신학지남」, 73권 3집 (2006): 128.

161) 문상기, “강해설교를 위한 논증법.” 「복음과 실천」, 26호 (2000): 188-9.

162) 김성택, “강해설교 101”, 84.

163) Ibid., 81.

164)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196-7.

165) Richard Ramesh,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181-2.

고, 작성하는 동안 설교의 불순물을 제거되고,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생각들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¹⁶⁶ 원고 작성에 있어서 설교를 시작하는 서론과, 마무리하는 결론은 길이가 짧은데 비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서론에서는 주제에 대해 집중시키고, 설교 내용의 필요와 본문에 전개에 대해서 소개해야 한다. 결론을 작성할 때는 청중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핵심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진리를 청중의 마음과 삶 속에 각인시켜야 한다.¹⁶⁷

설교작성이 완성되면 설교의 전달방법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맥아더는 설교 전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교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또한 능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전달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실천함으로 개선될 수 있다. 설교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강단에서 자연스럽게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달 방법, 목소리의 사용, 시선 접촉, 제스처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전달을 향상시킨다.¹⁶⁸

곧 훈련되어야 할 구두 적인 전달요소는 음조, 음량, 속도 등이 있으며 말을 전달함에 있어 잠시 멈추는 것이나 반복을 통해 청중이 생각할 여유와 강조할 점을 나타낼 수 있다. 또 눈맞춤과 몸짓, 움직임 등도 청중에게 효과적인 설교전달을 할 수 있는 비 언어적인 요소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¹⁶⁹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설교가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청중에게 설교는 의미가 없게 된다. 실패의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연설 위주의 작성이 아닌 에세이 위주의 설교작성은 내용은 같더라도 전달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청중과의 소통이 없거나 지나친 경우, 설교의 내용안에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원리만을 전달하려는 경우도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난다.¹⁷⁰

김성택은 강해설교 작성에 대해 단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성경을

166)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227.

167) Ibid., 226.

168) John MacArthur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444.

169) Daniel Overdorf, 「탁월한 설교자를 세우는 52주 설교 멘토링」. 이우제, 전태경 역. 서울: 도서출판대서, 2018. 126-7

170) 장두만, “교회 갱신과 설교 전달에 관한 연구.” 「신학정론」, 8권 2집 (1990): 282-3.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강해설교로 작성해 전달해야 한다고 한다.¹⁷¹⁾

4) 강해설교 성경연구 모임

(1) 성경연구 모임의 유익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반적 목적에는 서로 간의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독특한 학습 방식을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이 되는 이유가 포함된다.¹⁷²⁾ 모임의 토론은 다양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독립적인 수행보다 새롭고 다양한 사고를 촉발하며, 자신의 사고과정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¹⁷³⁾

보편적으로 설교는 설교자 혼자서 작성하게 된다. 강해설교 작성의 경우 관찰과 주해, 본문과 설교의 중심명제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 홀로 연구하는 경우 주해와 강해의 한계나, 선입견에 의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자료로 인한 해석의 실수 등,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토론의 장점을 활용하고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같은 본문을 여러사람이 함께 연구해 나누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헨드릭스는 성경 공부의 경우도 여러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어 일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말한다. 그는 소그룹으로 모여 공부할 경우 굉장한 동기 부여가 생기고, 자력으로 공부하는 한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 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참여의식과 소속감을 높여 준다고 설명한다.¹⁷⁴⁾ 소수의 사람들과 본문을 깊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혼자서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을 찾고, 가지고 있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다.

(2) 성경연구 모임의 구성

헨드릭스는 효과적인 소그룹 성경공부를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1) 김성택, “강해설교 101”, 103.

172) 송인규, 「성경의 적용」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241.

173) 이은경 외, “토의를 강조한 소집단 활동이 과학고 학생의 탐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양식 사고양식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12권 2호 (2013): 136.

174) Howard G. Hendricks, and William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435.

첫째, 인도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리더는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다른 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인도자는 신뢰할 만하고, 토의를 잘 이끌고, 모임을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모임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성경공부의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이나, 삶의 적용 등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모두 이해하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셋째,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 성경공부 모임은 사람수를 늘리거나 친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신학적 논쟁을 위한 모임도 아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넷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한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토론에 참여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나, 인도자라 할지라도 모임에서 독주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토론을 격려해야 한다. 소그룹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강의가 아니라 토론이다. 인도자는 본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토론 질문을 정해 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진행이 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성경에 집중해야 한다. 본문에서 많이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토론이 겉길로 새지 않게 해야 한다.

일곱째, 칭찬으로 격려해야 한다. 연구모임을 위해 준비한 내용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성경공부가 계속 촉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덟째, 모임을 가능한 작게 유지해야 한다. 여섯 명에서 여덟 명이 가장 이상적인 숫자이고 더 많게 되면 둘로 나누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홉째, 관찰, 해석, 적용의 시간을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공부를 하며 범하기 쉬운 오류는 해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관찰이나 적용에 대해 나눌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세가지 사이에 시간 배분에 균형이 잘 맞게 해야 한다.

열 번째, 목표와 시간 문제에 있어서 처음 정한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모임이 구성된 목적을 달성하고 참여자에게 신뢰와 호응을 줄 수 있도록 모임 시간이나, 모임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¹⁷⁵

강해설교를 위한 성경연구 모임의 경우 목회자와 설교자로 구성이 된다. 성경에 집중해 주해와 강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강해설교에 필요한 원석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임의 목표를 쉽게 정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설교자 혹은 성경연구자들이 신학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음으로 신학적 논쟁이나, 강한 주장으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 독주를 피해야 한다.

(3) 성경연구 모임의 형태

성경연구 참여자의 자세는 소그룹의 형태가 구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성경공부에 참여하게 하는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¹⁷⁶

성경연구 모임에 참여하기전에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성경공부이다. 참여하는 개인들의 풍성한 연구가 전제되면 모임의 토론은 활발해진다. 헨드릭스 교수는 개인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를 성경공부에 설정하고 공부를 위한 스케줄을 짜고 성경공부를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⁷⁷ 성경모임의 인도자는 본인에게 맡겨진 본문의 충분한 이해와 연구를 필수로 한다. 연구 결과를 나누고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토론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이견이나 의견은 모두 기록하여 객관적이고 깊은 연구로 들어가야 한다. 참여자의 각 교단 별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의 교리로 논쟁이나 토론을 하기 보다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 최대한 성경의 원리에 가까운 객관성을 가진 시각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 인도자는 적절하게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자는 성경 본문 외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이 들어가지 않게끔 배려한다.

175) Ibid., 441-2.

176) Ibid., 433

177) Ibid., 430-1

성경연구 모임의 외부적인 형태는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 있다. 7-12 명이 가까운 거리에 앉아 편안하게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권장한다. 시간은 1 시간에서 1 시간 20 분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길면 지적이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폐단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코비드 19(COVID19) 이후 온라인 미팅이 활성화되어 장소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지만 시간과 환경을 잘 고려하여 모임시간을 정해야 한다.

제 3 장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 사례 연구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모두 다르다. 할애된 시간과 주어진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본문 해석에 있어 설교자의 이해와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 설교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성경연구에 자신의 이해에 편리한 주석이나 도구만을 추구하여 본문의 해석이 편향되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해와 깊이가 다른 설교 작성 환경에서 편향성이 되어진 설교가 나오게 될 수 있다. 설교자는 한번 해석되어진 성경본문을 다시 연구할 기회가 있어도 자신이 해석해 놓았던 본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미 해석해 놓은 본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작성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스스로 발견하기 힘들다. 이것은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전제조건으로 인해 관점과 연구에 개인적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각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다른 환경과, 선입견, 그리고 전제조건 등이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모인 그룹이 나누는 것이다. 소그룹 성경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본문 해석은 개인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발견할 수 없던 주제와 의미, 관점에 대해 다룰 수 있다. 3 장에서는 성경연구 모임 사례를 연구하여 강해설교 작성 개선이 되는 방안을 알아본다.

1. 배경

1) 701 한인교회

버지니아 린치버그(Lynchburg)에 소재한 701 한인교회는 이민 이주 성도와 리버티 종합대학(Liberty University)에서 학업 하는 신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그리고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리버티 대학의 창립자 제리 포웰(Jerry Falwell)이 토마스로드(Thomas Road) 침례교회를 시작한 장소의 주소인 701 Thomas Rd.에서 701 을 인용해 701 한인교회로 이름을 명하고 2015 년 1 월 남침례교단 총회에 소속되어 시작하였다. 에베소서 1 장 10 절을 표어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되어 함께 하

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교회의 미션이 “제자를 삼는 것” 인데 이것은 리버티의 창립자 제리포웰이 가졌던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을 훈련하라”는 것과 같다. 교회의 미션이 말씀 훈련과 섬김의 훈련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연구는 필수적이다.¹⁷⁸

2) 교회 구성원

교회의 특성은 각 지역이 가진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외곽지역, 기술이 발달한 지역과 상업, 관광이 발달한 지역, 군인이나 학생들과 같은 사람이 모인 지역 등 지역적 환경과 커뮤니티의 구성에 따라 고유의 특성이 드러난다. 701 한인교회는 린치버그에 상주하는 이민교포들과 리버티 신학대학원과 타 신학교에 재학하는 신학생들, 리버티 종합대학교에서 일반 과정을 전공하는 유학생과 교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5 년 김성택은 701 한인교회와 리버티 대학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강해설교자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리버티 신학대학원 교수와 701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다. 그가 성도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시작된 작은 모임은 현재 2021 년까지 교회의 교제와 섬김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성도들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역자들이다. 701 한인교회는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사역자를 필요로 한다. 청년부, 대학부, 한국어 중고등부, 영어 중고등부, 유초등부로 조직된 교육부 사역과 예배 사역을 담당한다. 대부분 리버티와 타 신학대학의 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교민이다. 린치버그 지역에 상주하며 사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다.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모임의 구성원이 된다.

셋째, 학생 그룹이다. 학생 그룹은 다양해서 신학생, 대학원생, 대학생, 중고등생과 초등생까지 나누어지고 모든 학생 그룹은 유학생그룹과 현지 학생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다수가 유학생으로 701 한인

178) 701한인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http://www.701.church>, 2021년 9월 15일 접속.

교회 성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학업을 수료하고 세계의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리더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701 한인교회 교육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배우고, 나누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

3) 성경 연구 모임의 필요성

701 교회 성경연구 모임이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초대 담임 목사인 김성택의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 그는 성경 연구 모임 전에 가진 세미나를 통해 많은 한국 목회자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며, 설교를 작성할 때 다른 설교를 카피하여 강단에 오르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과 웹사이트에 올라온 설교를 살펴보면 본문과 설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사들이 성경해석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였다. 그는 신학 총장들의 토론회에서 “한국 신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다수의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나와도 설교를 할 줄 모르고, 개인전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르며,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논의된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문제를 파악하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신학교의 상황을 알리며 목회자에게 필요한 자격과 훈련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명하였다.¹⁷⁹

그가 강조한 목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격이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보면 목회자의 재능이나, 화려한 언변이나, 리더십에 스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바른 언어와 가정 생활에 충실한지, 재물을 잘 관리하는 자인지, 남을 대접하는 것과, 겸손 등 신앙 인격에 있어서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디모데에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였다.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진행형으로, 이는 진행의 의미에 있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두 올인하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교회를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교회에 출석하며 생기는 의문들에 대해 이단들은 명쾌하게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평신도들이 이단에 빠져든다. 이단들이 선호하는

179) 김성택, “HOMI 810” lecture note(PDF file), (Lynchburg, VA: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4), 3.

대상자가 교인들인 이유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지 않기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유가 성경의 말씀과 원리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¹⁸⁰⁾

정리하면 목회자의 역할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거짓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성경해석과 그것에 근거한 성경적 설교와 적용된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성택은 설교자에게 말씀연구와 설교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701 한인교회의 성경연구 모임 시작과 함께 주일예배 설교를 모든 사역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선포하게 하였다. 같은 시간에 예배가 드려져 주일 설교가 가능하지 않은 교육부서 사역자들 역시 성경연구 모임에 참석해 같은 본문을 나누고 같은 해석을 기반으로 각 교육부 수준에 맞는 설교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의 구성원과, 각 교육부의 구성원이 같은 말씀의 원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701 한인교회에 강해설교 작성을 위한 성경 연구 모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강해설교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여 나눔으로 설교자의 성장을 기대한다.

둘째, 강해설교 작성 방법을 꾸준히 훈련함으로 성경연구방법이 훈련되며 발전한다.

셋째, 강해설교 작성을 함께 연구해 성도들에게 성경본문이 전하는 원리를 실수 없이 전달한다.

설교자의 인격적, 지식적, 행위적 훈련이 지속되고 보완되어, 훈련된 설교자의 바른 강해설교로 건 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은 필수적이었다.

2. 연구모임 관찰

1) 선행 학습

모임 전 개인이 본문 연구를 해 오는 것을 토론을 위해 필수적이다. 참가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주석과 자료 및 연구도구가 모두 다르고, 개인적 관찰 시각과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상이

180) Ibid., 2-3.

할 수 있다. 도구가 다름에도 토론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모임이 공통적으로 배운 단계별 성경해석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첫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참석자는 세미나를 통해 단계별 성경 연구 방법을 학습한다. 세미나에서 제공되었던 단계별 연구 방법은 2장에 제시되었던 강해설교 작성법과 유사하다. 세미나를 통해 참여자에게 강해설교를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목회자, 설교자의 자세와 강해설교의 정의, 특징, 장점에 대해 나누고 설교준비의 3단계인 주해과정, 강해과정, 그리고 설교원고 작성에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다시 세부적으로 나눈 설교작성의 15단계의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안내와 질문들이 포함되어 연구를 시작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1 단계는 본문선택에 대해서 배운다. 문단 단위는 본문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한 문단 이상을 정해야 한다.

2 단계는 본문배경연구로 본문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망원경 시각이다. 망원경 시각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은 누가 그리고 언제 기록했나?, 저자의 사역의 성격은 무엇인가?, 책을 읽은 청중은 누구인가?,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저자와 청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그 책이 쓰였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문화적 요소나,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가? 등이 있다.

3 단계는 본문연구로 본문을 현미경 시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본문의 관찰에 있어 문학적 특성인 장르를 구별하고, 원문의 분석과 구조, 단어를 이해하고 수사학적 분석등을 통해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 본문연구에 현미경 시각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문맥과, 문단 사이의 연관관계, 이야기 전환, 인물, 반복, 대조, 비교, 나열, 원인과 결과, 질문과 대답, 대화, 목적과 결과에 대한 진술, 감정적용어, 비유적 표현 등을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4 단계는 본문해석으로 관찰한 것을 정리하고 차트로 만들어 석의적 대지를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고 발견한 요소들, 책의 핵심 성구와 메시지, 다른 성경에 있는 같은 메시지 등을 차트로 만들어 비교하면 연구에 도움이 된다. 석의적 대지를 만들 때에는 과거적이며,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징적이고 제한적이며, 청중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작성해야 한다.

5 단계는 청중분석이다. 모임의 종류, 인원, 장소, 성별과 연령, 신앙수준, 지식, 문화나 경제의 상황

을 파악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6 단계는 설교의 목적이다. 설교의 목적을 위한 질문은 “본문의 중심내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청중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가?” 이다. 이는 본문 해석에서 저자가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다.

7 단계는 석의적 대지를 설교적 대지로 만드는 것이다. 설교적 대지는 성경시대와 현대시대의 다리를 놓는 작업으로 현재 지향적이고, 원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편적이고 제한이 없고, 청중이 포함되어 있다.

8 단계는 본문을 전개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방법에는 대조, 설명, 질의응답, 증명, 원리 적용, 귀납적 구성, 연역적 구성, 내러티브, 원포인트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9 단계는 적용을 찾는 것이다. 적용을 찾기 위해 생각해야 할 질문들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내가 드러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내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 있는가?,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등이 있다. 적용의 범위는 개인, 가정, 교회, 이웃, 지역사회 등이 될 수 있다.

10 단계는 보조자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조자료는 설교를 명쾌히 해주고, 청중의 흥미를 돋구어 주며, 실감나게 해고,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며, 적용하기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보조자료를 사용할 때는 핵심 진리의 보조 역할인 것과, 내용과 길이가 적절하고,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설교자가 완전히 소화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을 사용원칙으로 해야 한다. 보조자료에는 통계, 예화, 인용, 유머, 시청각 교제 등이 있다.

11 단계는 아웃라인과 본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아웃라인이 있으면 설교의 명확한 구성이 생겨 설교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아웃라인을 작성할 때는 각 대지나 소지에는 하나의 내용만 포함하고, 유사한 대지와 소지의 반복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과 같은 형태의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 하녀야 한다. 대지나 연구자료 가운데 설교에 포함시키기 부적당한 것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삭제하여야 한다.

12 단계는 본문에 근거하여 서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서론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필요를 표면화시키며, 설교 본론의 소개의 역할을 한다. 서론은 이야기나, 예기치 않은 말, 적절한 인용, 질문, 본문 배경의 설명, 비교나 비유, 최근의 뉴스 등으로 시작할 수 있다.

13 단계는 결론을 구성하는 것이다. 결론은 설교를 요약, 정리하며 청중의 결단을 촉구한다. 결론의 유형에는 요약으로 반복하거나, 호소, 예화, 적절한 성구나 인용, 적절한 질문으로 마칠 수 있다.

14 단계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적절한 제목은 청중에게 설교의 이해와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 설교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좋은 제목은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간결하며, 범위가 좁은 특징이 있다.

15 단계는 설교 전달 연습이다. 바람직한 설교는 바르게 된 내용과 함께 하는 효과적인 전달이다. 전달이 실패하는 이유는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목적과 목표의 불확실성과, 설득이 아닌 주입, 본문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고, 예화가 실패한 경우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평이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구체적인 단어를 선택해 사용하고, 음성의 높낮음과 속도, 강약을 생각하고, 설교자의 드러나는 외모와 복장, 제스처, 눈 접촉 등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익숙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⁸¹

2015 년 701 한인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 자료노트는 리버티 신학교 교수 김성택의 설교학 강의 수업 노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세미나 당시 학습한 단계별 방법은 수년의 시간을 거치며 강해설교 훈련에 적합하게 발전되어 왔다. 김성택의 자료인 “강해설교 세미나노트”와 “강해설교 101”을 통해 연구 방법과 설교 작성 실재에 대해 배웠지만, 실제로 모임에 진행된 토론을 통해 진행되었던 단계는 배경연구부터 중심명제를 찾아내는 7 단계 까지였다. 설교를 전개하는 방법과 작성에 관한 부분은 설교자의 독창성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모임내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적용의 단계는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시 토론 진행이 가능했다.

181) 김성택, “강해설교준비” lecture note(PDF file), (Lynchburg, VA: 701 Korean Church, 2015), 3-8.

2) 진행의 실례

성경연구 모임은 매주 1 회,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진행 방식은 본문 연구를 담당 한 참여자의 내용 발표와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개진과 질문 및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역할로 구성을 나누어 보면 연구내용을 발표하는 발표자와, 질문자, 단순 응답자, 대답자의 형태로 구분 이 되었다. 참여자의 대부분이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종종 성경연구 내용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사역 관련 주제나 이슈 등도 다뤄졌다. 대면모임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모임은 2020 년 초 COVID-19 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모임이 사용되면서 거리적 제한이 사라지게 되고 701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였었던 사역자들도 미전역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본문을 선택하는 것과 청중 분석은 모임에서 고려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문선택은 성경 66 권중 한 권을 정하여 강해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문은 최소 한 단락의 말씀을 선택하여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범위로 정하였다. 정해진 한 권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 성경연구 참여자들은 성경내 선택된 본문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쉽게 파악하여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접하여 지난 설교를 잊을 수 있는 청중들 역시 본문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성경 본문에 대한 기억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본문선택이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문을 표적과 맞추어 설정하는 표적설교와 같은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청중 분석은 교회의 작은 모임과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청중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교를 작성할 수 있었다.

시작하는 성경연구 모임의 사례를 살펴보는 목적은 모임내 진행된 연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찾아 비평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임연구의 진행을 통해 실제로 설교작성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성경연구 모임의 사례는 2021 년 7 월부터 2021 년 10 월까지 하박국서와 베드로전서의 연구 나눔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모임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각각 연구해온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 주석 및 자료에서 인용되거나 발췌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각주를 첨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인용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토의의 실제내용은 4 줄 이하라 하더라도 직접인용 방식을 택하였다. 대화간 간

격은 가독성의 편의를 위해 1 줄 간격으로 하였다.

(1) 배경연구의 사례

책의 각 권을 시작할 때 배경연구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었다. 배경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은 저자와 저작장소 및 연대 그리고 일차 청중에 관한 연구였다. 배경연구 토론의 실재를 살피보기 위해 베드로전서 1 장 1-2 절 본문연구가 진행되었을 때를 참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전 1:1-2).

발표자는 본인이 준비해 온 연구자료에 대해 발표를 시작한다. 자료에는 발표자가 의견을 내어놓은 주제내용에 대한 성경적 그리고 뒷받침하는 내용들의 근거를 함께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각 참여자들은 본인이 준비해 온 연구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나누거나, 의견 및 생각을 토론하였다. 다음은 발표자가 준비한 저자 연구이다.

발표자: 베드로가 저자인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저자에 관하여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는 내적 증거인데, 베드로전서 1 장 1 절에서 베드로라고 한다. 그럼에도 저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베드로의 필력보다 뛰어나 보이는 책의 문체와 세련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전서 5 장 12 절에 나오는 오랜 동역자인 실루아노가 대필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베드로가 맞지만 세련된 문체는 실루아노의 도움으로 인한 것이다. 외적인 증거도 있는데 폴리갑과 클레멘트와 같은 초대교부들이 베드로전서를 인용하여 글을 저술하며 베드로의 저작인을 인정하였다. 베드로의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의 이유로 바울과 비슷한 편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있어 사도들이 통일성 있게 가르쳐져야 하는 부분들이 널리 퍼져 사용되었기 때문이다.¹⁸²⁾

발표자는 베드로전서의 저자에 대해 베드로라는 내적증거 및 외적증거를 제시하였다. 여기 대해 특별한 질문이나 이견 없이 연대에 관한 다음 발표로 이루어졌다.

발표자: 연대를 추정할 때 먼저 베드로가 이 책을 5 장 13 절의 바벨론, 곧 로마에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큰 시련이나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편지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신 핍박을 대비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네로의 본격적인 환난이 시작되기 이전일 것 같다. 또 도미티안 박해의 이전으로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로 볼 수 있다. 62 년에 야고보의 순교

182) 노슬기 외. “베드로전서 개론 성경연구.” 701 한인교회, 2021년 10월 4일 모임영상.

가 있고 그 전에 스테반의 순교 등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때 그 당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차청중은 49년에 글라우디오의 칙령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1장 1절에 나타난 여러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곳은 에베소와 같이 복음이 왕성하게 퍼지는 지역이었지만, 동시에 로마의 행정구역이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련으로 두려움에 떨 수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가지는 유대적 배경의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기 보다는, 이방 땅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이다.¹⁸³

저작 연대에 대해 발표자는 AD 62년과 네로의 본격적인 박해 전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였고, 저작 장소에 대해서는 로마, 그리고 일차 청중에 관하여는 글라우디오 칙령과 같은 행정 명령으로 인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연구한 내용을 설명했다. 본 연구발표에 대한 질문 및 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연대에 관한 질문으로 발표자는 베드로전서의 연대를 로마 대 화재 사건이 있었던 64년 이전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후로 보는가? 로마 대 화재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수신자들이 고난 전이라고 가정한 상황과 고난의 시작 이후로 가정한 상황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해석이 다를 수 있지 않는가? 저작 장소에 대해서도 5장 13절의 바벨론이 로마라고 하였는데, 보편적 견해는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난 이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¹⁸⁴

먼저 연대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었다. 질문자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본격화되었던 주후 64년 로마대화재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저술 장소에 대해 핍박을 피하기 위해 로마라는 표현 대신 바벨론을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저술 연대가 64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답변: 그렇게 보기에 본문의 내용들이 고난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다. 바벨론으로 표현된 것은 믿는 자들이 죄악에 얽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속박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바벨론을 로마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핍박의 강함을 말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¹⁸⁵

발표자의 답변은 본문에 나오는 핍박의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아직 고난이 심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바벨론 표현의 경우 그리스도인을 속박하는 배후를 통상적으로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당시의

183) Ibid.

184) Ibid.

185) Ibid.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 하에 로마가 아닌 속박하는 자의 모습인 바벨론으로 표현되었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꺾박의 강함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일차 청중에 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 1: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편지의 수신자 곧 일차 청중은 누구였는가?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는가?

답변 1: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왕성한 활동이 있었던 에베소와, 큰 교회가 세워졌던 본도와, 유명한 갈라디아와 골로새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할 때 복음을 듣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경로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답변 2: 사도행전 2장에 성령강림때 모였던 사람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지금 1절에 있는 장소들과 접치는 지역이 많다. 지금 수신자의 장소에 사도바울이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답변 3: 1장 12절에 나오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대해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향이기도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안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다. 안디옥과 같이 사도들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질문 2: 그렇다면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인인가?

답변 4: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럴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당시 이 지역의 인구구성은 대략 850 만명, 유대인은 100 만명, 그리스도인은 8 만명 정도로 추정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분포를 할 수 있다.

답변 5: 1장 14절을 나타난 “전에 알지 못할 때에”라는 표현이라든가, 18절의 “헛된 생활방식” 과 같은 수신자의 대한 표현을 보면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던 유대인이나, 이전부터 그런 생활을 했던 이방인으로 보이는데 문맥상 이방인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의견 1: “헛된 생활방식” 과 같은 본문의 상황으로만 이방인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답변 6: 2장 10절에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라는 표현이나, 25절에도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신자에 대해 이방인을 감안한 표현을 사용한다. 유대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답변 7: 이 편지가 돌려서 보는 편지로 생각하고 이런 이방적인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디아스포라와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 수신자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⁸⁶

질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여러 참여자들의 근거 있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사도행전 2장에 모여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당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흩어져 교회를

186) Ibid.

세웠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그 부분이 논의될 때에 두번째 질문이 나왔는데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구체적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다. 답변과 의견을 통해 유대 및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는 그룹으로 결론지어졌다. 답변과 의견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시대적 상황파악, 성경 내부에 나타난 증거, 배경 사전에 나타난 자료, 문맥파악과 단어연구 등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저작 장소에 관한 질문도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질문: 저작 장소에 대하여 5장 13절에 있는 바벨론을 로마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에서 자신들의 정통성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바벨론을 로마로 영해한 것은 아닌가? 베드로의 저작은 내적인 증거가 확실히 있지만, 마가가 함께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지정학적 장소인 바벨론이 타당할 수 있다. AD 45년부터 베드로가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카톨릭은 주장한다. “퀴바디스”의 영화 내용처럼 “교회를 세우러 로마로 간다”는 말도 소설의 회자이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 전설이다. 수백 년간 천 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을 죽여가면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었던 카톨릭의 영향을 배제하고 실제 저작 장소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답변 1: 마가가 당시 로마에 있었다는 내적인 증거가 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것을 말한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도 디모데가 올 것을 확신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였다.

답변 2: 많은 증거가 베드로가 로마에 장기 체류한 증거를 보여준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과 삶의 내용으로 핍박을 극복하라는 것이라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지는 핍박의 근원지는 로마이고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⁷

질문자는 저작 장소에 대해 바벨론이라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왜 로마로 바꾸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전서를 쓰지 않았다는 근거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조작된 종교역사의 폐해를 설명하였다. 다른 참여자들은 성경의 내적증거와 로마시대 당시 베드로주변의 상황을 설명하며 저작장소는 로마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토론을 통하여 발표자는 연대에 관해 명확치 않았던 해석결과를 다른 참여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통해 가장 타당한 연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일차청중에 관한 배경적 지식을 더 폭넓게 파악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저작 장소에 대한 의문점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187) Ibid.

(2) 상세연구의 사례

본문을 연구할 때 전체적인 배경연구 후에는 세부적 연구 곧 현미경 시각으로 내용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연구에 들어가게 되면 본문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자세히 이루어지게 되고, 문맥과 문단의 연계성도 연구해야 한다. 또한 단어의 전환, 반복, 대조, 비교, 표현 등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부적 연구의 사례를 위해 하박국 2 장 1-3 절의 토론을 살펴보았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합 2:1-3).

본문의 배경연구가 이루어진 후 하박국 2 장 1 절에 나타난 “기다리고, 바라보며”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질문 1: 1 절에 나타난 “기다리고 바라보며”라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표현에서 하박국의 어떤 심정이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답변 1, 질문 2: “기다리고”는 응시하고, 지켜보고, 망을 보는, “바라보며”는 숙고하고, 분별하고, 경험하고 등 다수의 뜻이 포함되는데 그런 모든 것의 뜻이 대입되어 심사 숙고한 하박국의 절실한 마음이 표현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 번역본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의역이 많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원어를 잘 찾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어 나오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의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답변 2: 당시에 글을 써서 메신저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 돌판에 명확히 써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 절에 나온 파수꾼과 연계되어 하박국의 메신저의 역할을 표시하는 것이다. “기다리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박국서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 같다.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 느릴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지난 히브리서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 본문이 떠오른다. 더디지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준다.

답변 3: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에 대해서 삶과 연결시켜 어떻게 달려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하박국의 주제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을 돌 판에 새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답변 4: 이 부분은 번역본마다 약간 해석이 다른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읽은 사람이 달려가서 읽은 내용을 선포하라는 것일수도 있다. 확실하지 않아서 이것을 설교시간때 어떻게 정리와 통합을 해 설교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답변 5: 달려가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용례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읽고 가서 전하라는 것이 달려간다는 표현으로 예레미야 23 장 21 절에 나와있다. 그렇다면 하박국도

읽고 가서 전해야 하는 책무가 생겼을 것이다.

답변 6: 원어를 확인하니 “읽는다”가 분사형이고 “달린다”가 미완료 주동사로 되어있는데, 읽으면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다.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 심판의 메시지가 앞부분에서는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바벨론에에도 향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부흥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선지자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¹⁸⁸

“기다리고 바라보며”에서 시작된 세부적 연구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답변 1 을 통해 단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고, 답변 2 를 통해 “기다리라”고 표현된 단어의 반복을 파악해 전체 본문 내용안에 차지하는 이 단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답변 6 을 통하여 원어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고, 답변 4 를 통해 두가지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에 대해 설교자의 결정에 대한 필요성도 알 수 있다. 아래는 연구 모임 이후 작성된 설교의 인용으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문장에 대한 설교자의 결정을 알 수 있는 실제 설교작성의 실례이다.

그렇게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달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파서 내용을 전달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판에 명확히 새겨서 판을 가진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거나, 명확히 새겨진 내용을 읽고 달려가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게 보이라는 것이고 후자는 말씀을 든 선지자나 사람들이 달리면서도 보거나 읽고나서 달려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목시를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속히 전달하고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¹⁸⁹

설교자는 본인이 찾아낼 수 없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내용들을 토론을 통해 알게 되었고, 지나칠 수 있던 단어 속에 있는 뜻과 의미를 파악하여서, 혼자서 찾아내거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단어의 여러 용례와 문맥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3) 핵심메시지의 사례

본문의 배경 연구와 세부적 연구를 진행하는 주된 이유는 주해적 중심명제 곧 핵심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책 전체의 핵심메시지와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찾는 작업은 발표자가 본문 강해와 설교작성

188) 김낙중 외. “하박국 2장 성경연구.” 701 한인교회, 2021년 8월 30일 모임영상.

189) 최영식. “의인은 믿음으로!” 701 한인교회, 2021년 9월 5일 설교원고.

을 하는데 있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과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기준을 제시한다.

다음 모임의 사례를 통해 핵심 메시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질문 1: 하박국 선지자가 다섯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의도를 깨닫는 것이다. 하박국에서 나온 내용중 신약에 중요하게 인용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근간도 되었다. 히브리서를 함께 연구할 때 10 장에도 중요하게 인용되었다. 그러면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답변 1: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박국에 전체에 교차대구 구조가 있는지 나누어 보고 싶다. 하우주석 135 페이지를 보니 어떤 학자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었다. 처음 단락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묻는 하박국은,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답을 얻고, 두번째 단락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온다는 것은 뒤에서 두번째 답에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는 것과 상응하고, 어떻게 바벨론 군대를 사용합니까 라는 세번째 질문은 재앙들이 악인에게 임하리라와 대응하고, 마지막 중앙에 악인은 벌을 받을 테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교차대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중앙에 자리한 것이 핵심메시지이다.¹⁹⁰

질문자는 하박국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약에 중요 인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제시하며,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 질문자는 질문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핵심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고 가진 의견에 대해 토론하고 나누기 원했다. 답변 1은 하박국서의 나타난 교차 대구법을 이용해 책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본문이 하박국의 핵심메시지라고 발표하였다.

답변 2: 전체적인 하박국을 살펴보니, 메시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마지막 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박국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닌가?¹⁹¹

다른 참여자는 답변 2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박국서 3장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고백이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 했던 핵심메시지라고 설명하였다.

질문 2: 메시지를 찾기 위해 욥기와 하박국을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떤가? 둘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190) 김진위 외. “하박국 개론 성경연구.” 701 한인교회, 2021년 7월 31일 모임영상.

191) Ibid.

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심하고 질문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여기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가진 의문이 설득되어져 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과정을 가지라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 아닌가?¹⁹²

질문 2를 통하여 하박국서의 핵심메시지를 찾는 다른 방안이 제시되었다. 욥기와 하박국의 공통적인 이해 상황을 찾고, 그들이 가지는 문제들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서로 비교하여, 그들이 가진 믿음의 태도를 살펴봄으로 성경이 전하려는 핵심메시지를 찾자는 것이다.

답변 3: 둘의 공통점에 대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평가된다면, 둘의 다른 부분은 욥은 자신의 행실에 대한 실제적인 잘못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박국의 경우 민족이 죄악을 저지르고, 선지자들의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¹⁹³

답변을 통하여 욥과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다른 상황들이 놓여 있음을 말하고 이런 경우 같은 맥락의 핵심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나누었고 답변자는 욥기서와의 비교를 통한 핵심메시지 도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질문 3: 욥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상황이고, 하박국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로운 이들을 왜 돕지 않고 고난속에 두고 계시냐는 의문이라면, 그런 관점에서는 욥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답변 4: 앞에서 나눈 것 같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잘 했지만 왜 그렇게 왜 죽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백성들이 가졌을 텐데, 당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두 하박국과 같은 상황을 가질 것이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는데 하박국은 독특한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주고받으며 그 뜻을 전달한다. 욥이나 하박국을 나누며 개인이든, 공동체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 내기를 원하는 것이 공통점인 것이다.¹⁹⁴

질문 3과 답변 4를 통하여 핵심메시지가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욥과 하박국이 본인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의문은 같았을 것을 질문과 함께 설명한다. 답변 4를 통하여 의롭다 여기던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가질 수

192) Ibid.

193)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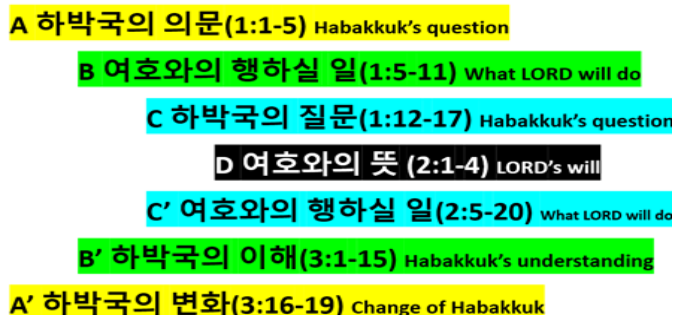
194) Ibid.

있었던 의문에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핵심메시지가 도출되었다.

핵심메시지를 찾기 위한 토론을 통하여 성경 구조를 파악하는 교차대구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성경 본문 관찰을 통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다른 성경 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원리를 찾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발표자가 핵심메시지를 찾는 방법이 한 두가지로 제한될 수 있었지만, 다른 참여자와의 토론을 통하여 여러 해석을 바탕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졌다. 처음 질문에 나왔던 핵심메시지와 마지막에 도출된 핵심메시지는 표현상 의미가 같아 보이지만,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가 포함된 처음과 마지막의 핵심메시지의 의미는 다른 것이 되었다.

다음은 핵심 메시지 설명을 위해 설교 시 영상 자료로 사용되어진 설교자의 교차 대구 슬라이드 영상자료이다. 설교자는 토론 이 후 책 전체에 교차대구를 적용하여 핵심메시지를 2 장 1-4 절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하박국서의 핵심메시지



(4) 대지와 명제에 관한 사례

석의적 대지와 명제가 성경을 주해한 결과로 그 당시 일차 청중에게 적합한 말씀이었다면 상황화 작업을 거쳐 현대의 청중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설교적 대지와 명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에 있는 특정한 이해와 원리는 모든 청중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성경진리로 바뀌

게 된다.¹⁹⁵ 바르게 된 석의적 명제가 없이 제대로 된 설교적 명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모임 안에서 석의적 대지와 명제를 연구는 과정을 살펴봄으로 참여자들에게 생기는 유익을 알아보았다.

발표자는 베드로전서 1 장 13-25 절의 본문을 나누어 석의적 대지와 중심명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대지 1: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차려서 다시오실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고 명령했다(13).

대지 2: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전의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찾지말고 순종하는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했다(14-16).

대지 3: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예수의 피로 없어지지 않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했다(17-21).

대지 4: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형제를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했다(22 -25).

석의적 중심명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거듭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했다.¹⁹⁶

발표자가 제시한 대지는 과거형으로, 원리의 포함없이,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발표자는 대지 4 가지를 통하여 각기 다른 네 가지의 베드로의 권면, 명령을 중심으로 석의적 중심명제를 찾아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다.

의견 1: 3 절에서 12 절까지 원어로 한문장인 것을 감안하면 13 절의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부분의 내용을 곧 구원의 확실성으로 인해 위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13 절부터 동사가 네 번 나오는데 첫번째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14 절 이후에 두번째 동사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세번째 나그네로 있으며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 네번째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문맥의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사구문의 연결이기 때문이다.¹⁹⁷

의견 1 을 통해 본문은 별개의 네가지 대지가 아니고 대지 2-4 까지 대지 1 에 종속되어 나오는 석의적 내용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 문법과 동사의 사용, 그리고 전체적인 문단의 흐름을

195) 김성택, “강해설교 101”, 74.

196) 최용석 외. “베드로전서 1장 성경연구.” 701 한인교회, 2021년 10월 18일, 모임영상.

197) Ibid.

근거로 하였다.

의견 2: 원어 문장을 보면 13 절이 한 문장, 14-16 절이 한 문장, 17-21 절이 한 문장, 22-23 절이 한 문장, 24-25 절까지가 한문장으로 나누어진다. 13 절이 앞선 문장의 결론인지, 뒷문장들의 연결고리인지를 알아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전치사가 중심적으로 보며 구절을 정리하면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¹⁹⁸

의견 2 는 원어 문장의 단락과 전치사의 사용을 파악하여 13 절이 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앞문장에 대한 결론으로 마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로 뒤 이어 나오는 네 문장을 연결하는지, 그리고 네 문장은 동등하여 각각의 명령인지, 13 절에 포함되어 설명되어야 하는지 연구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의견 3: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너희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13 절을 연결고리로 생각한다면, 문장이 연결되는 2 장 10 절까지의 문맥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지금 저자가 제시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인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다.¹⁹⁹

의견 3 을 통하여 석의적 대지와 명제에 생략되어진 내용을 제시하였다. 앞선 본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면, 각 대지와 명제의 주어로 사용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에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내용이 더해져야 할 것을 설명했다. 또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2 장 10 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을 살펴 석의적 대지와 명제에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함을 알려 주었다.

석의적 대지와 명제를 찾아내는 것은 배경연구와 세부적연구를 마쳤다고 하여도 그 연구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이 어렵다. 성경 주석과 배경 및 단어사전을 통해서도 문단 나눔과 부분적 주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합하여 석의적 명제와 대지로 알려주는 자료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자가 본인이 만든 대지와 명제에 관한 잘못된 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문 해석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주제적 관점과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같은 본문을 다양하게 연구한 여러

198) Ibid.

199) Ibid.

토론 참여자를 통해 해석통합의 여러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설교 작성자가 깊게 연구해야 할 시간을 줄이고, 넓게 다른 각도에서 보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적용의 사례

본문 배경 연구와, 세부적 연구를 통해 핵심메시지를 찾는 것과, 중심 명제를 만들어 나누는 것은 모임의 주된 토론 주제가 되었다. 적용점을 나누는 토론의 경우도 있었는데 본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때였다. 다음은 하박국서에 나온 율법에 관한 질문과 적용에 대해 나누는 것이다.

요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지 궁금하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보다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육백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고 풀어주고, 나중에 루터는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을 수 있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구약의 청중과 신약의 청중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까?²⁰⁰

요청은 하박국서에 나타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이 구약시대의 청중들과 현재의 청중을 포함한 신약시대의 청중들에게 다른 의미로 선포된다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그 의미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구약성도에게 의미하는 것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의견 1: 본문에 나타난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구약시대의 믿음인데, 구약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비롯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주어졌는데 의인에 대해 생각했을 때 율법으로 의인이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완성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생기는 믿음이었다.

의견 2: 아직 새언약이 나오기 이전에 율법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많은 이들은 율법에 초점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서 11 장을 통해 설교의 논리를 이끌어가게 될 때,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질문에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의 명령을 외식이 아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한다면 구원의 길이 있었을 것이다.²⁰¹

의견 1 과 2 를 통해 언약과 율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 1 의 설명에 대해, 당시 성도의 마음을 어느 곳에 두고 하나님

200) 최준호 외. “하박국 3장 성경연구 1.” 701 한인교회, 2021년 9월 13일 모임영상.

201) Ibid.

의 말씀을 지켰는가에 따라 구원이 열렸을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명령을 지킴에 있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고 믿고 행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2의 답변이 있는 이 후 다음의 의견이 나왔다.

의견 3: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지킴에 못 미치면 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 설명된 것과 같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음을 말해주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본체가 아닌 그림자, 곧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 밀바탕에 깔려 있어서 신약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언약이 지속되어 온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 성이 무너지는 본문의 설교를 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이 무너졌다고 설교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온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초자연적으로 이행하시는 과정인 것이다. 백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는 행동이었다. 하나님 약속의 관점에서 본문이 다뤄지지 않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땅 밟기 해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곳에 가서 돌면서 기도하는 이상한 적용이 나온다.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해라, 하지 마라로 설교하게 되면 도덕적 설교가 될 수 있으니,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의도를 파악해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²⁰²⁾

의견 3을 통해 율법과 언약의 역할이 정리되었고, 구약 언약의 실체는 메시아의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었다. 여호수아 6장의 예를 통하여 본문이 취하는 적용을 본문사건안에 나온 틀 안에 갇혀 편향되고 잘못된 해석과 적용점을 성도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흐름속에 새 언약이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과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와 완성이 되어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적용은 신구약이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며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에 의해 성도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나누었다.

적용의 토론을 통해 발표자 혹은 설교작성자가 구약의 율법이 믿음에서 차지할 수 있는 편향적 지식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차지하는 율법의 역할을 정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과 율법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언약의 설명과, 성경의 실제적인 예, 현실에 잘못 적용된 예 등을 나누면서 참여자들이 가지는 적용의 관점이 더욱 명확해졌다.

202) Ibid.

3) 평가

성경연구 모임의 사례를 통해 파악한 유익은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첫째, 본문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관찰할 수 있다. 배경연구 사례와 세부적 연구의 사례를 통해 발표자의 발표 이외에 참여자들이 본문을 관찰하고 파악한 내용들을 나눔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폭넓고 깊게 연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

둘째, 본문을 여러 도구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지닌 도서와 자료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도구를 통한 본문 해석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가능했다. 핵심 메시지의 사례를 통해 교차대구의 방법, 주석 및 해석자료를 통하여 원리를 찾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셋째, 본문 해석을 통합하고 원리를 찾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제시한 여러 관찰과 해석들을 종합하여 도출된 대지와 명제를 수정하고 명확히 하는 작업을 의견을 주고받으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관찰, 해석, 통합의 모든 과정의 연구 시간을 줄이고, 객관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넷째, 연구과정을 검증할 수 있다. 적용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토론을 통해 검증되어 발표자가 가지고 있던 편향적인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적용이 설교에 첨부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검증의 과정은 적용의 사례뿐 아니라 배경연구, 관찰, 해석, 명제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 필요시 나타난다.

네가지 경우가 사례연구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익이라면, 성경연구모임을 통해 교회사역에 주는 유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자의 훈련이다. 매주 진행되는 연구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설교자는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다. 설교자는 연구를 지속하면서 성경의 대한 해석과 이해의 과정이 향상되며, 명확한 설교 작성을 통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

둘째, 성도의 훈련이다. 성도는 성경연구 모임을 통한 검증된 설교를 매주 접하게 됨으로, 강해설교가 주는 유익을 그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

셋째, 복음을 위한 사역이다.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훈련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바른

원리를 전하는 사역이다. 성경연구 모임은 바른 성경해석을 통한 설교자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그 사역에 동참한다. 2015 년 버지니아 린치버그 701 한인교회에서 시작된 성경연구 모임은, 2021 년 워싱턴주 시애틀에 여러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또 하나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 설교작성을 준비하지만, 개인의 역량 한계로 인한 부족한 설교가 작성되어 선포되는 피해가 생긴다면,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석과 선포에 힘써야 한다.

제 4 장

설문 연구

1. 설문의 목적과 진행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의 특성과 상황이 설교 준비에 미치는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사역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설교준비는 많은 시간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업무이다. 라이프웨이(Lifeway) 리서치에 의하면 설교자들이 한 주간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평균시간은 12 시간으로 이는 사역에 투자되는 시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³ 이에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이 포함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사역지의 특성 및 업무량과 같은 목회사역 현황이 설교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목회자가 설교작성시 나타나는 어려움의 실제적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첫번째 조사 목적인 목회자의 환경이 설교 준비에 미치는 연관성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설교 준비 시 목회자가 겪는 개인적 어려움의 요소들을 교차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성경 연구 모임 참석자의 응답을 조사해 모임을 통한 강해설교 작성이 참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할 것이다.

2) 연구 대상

리버티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교수인 김윤섭은 2020 년 6 월 “COVID 19 으로 인한 예배중단에 따른 목회자의 심리적 부담에 관한 연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목회자들의 인구

203) Lifeway research, “Pastors’ Long Work Hours Come at Expense of People, Ministry.” [온라인 자료]

<https://lifewayresearch.com/2010/01/05/pastors-long-work-hours-come-at-expense-of-people-ministry/>, 2021년 11월 2일 접속.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COVID 19 이전과 이후의 목회 사역 현황을 조사하여, 팬데믹 상황속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어려움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목회자들이 겪는 심리적, 외적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자는 목회자의 설교 현황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연구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조사에 앞서 리버티 대학교 Liberty University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부서를 통해 설문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 첫번째 설문 조사의 대상은 워싱턴 교회 협의회를 통한 북버지니아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한인교회 목회자들이다. 두번째 설문 조사의 대상은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에 과거에 참가하였거나, 현재 참가하고 있는 사역자들이었다. 북버지니아 인근지역 한인 사역자 그룹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설문 조사에 응하였고, 성경연구 모임 참가자 그룹은 메신저 및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설문지에 직접 작성하였다.

3) 설문 구성과 내용

설문의 구성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 사역환경 특성, 사역자 상황 측정 및 설교사역 특성의 네가지 종류로 분류되었다. 설문 목록과 구성은 “COVID 19 으로 인한 예배중단에 따른 목회자의 심리적 부담에 관한 연구”의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1 차 설문조사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과 학력을 조사하였고, 사역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직책과 목회기간, 교회의 출석 성도 수와 사역자 인원을 조사하였다. 사역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정신적 피로도와 과중한 업무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설교사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교작성시 생기는 어려운 점, 설교 작성의 개선회 여부, 성경연구 모임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2 차 설문조사는 1 차 설문 조사의 파생 질문으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대를 조사하였고, 사역 환경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직책과 월별 설교 횟수를 조사하였다. 설교사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경 연구 모임 참여 기간과, 참여 전 후의 설교에 대한 이해와 설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모임의 필요성과, 연구모임 참가 전 후의 다른 점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서술형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1 차 설문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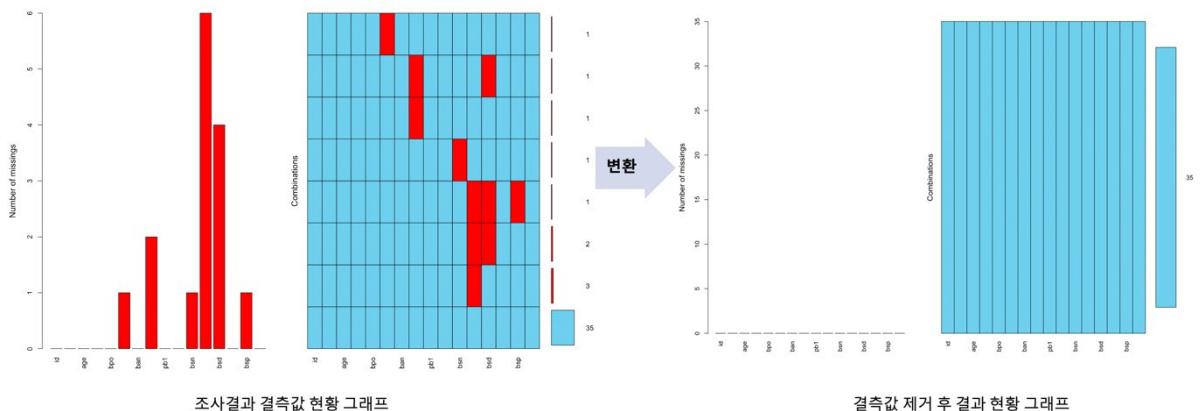
연구자는 R통계(R-Statistics)를 통하여 얻은 설문 결과를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및 의사결정나무 분석으로 진행하여 표와 그림으로 표기하였다. 유의미한 결과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 사역자의 특성 및 사역 환경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빈도분석은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사역적 배경이 설교 준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역 상황과 설교 준비에 관한 파악을 위해 교차분석의 X2 검증 방법(유의 확률 0.05 양측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설문 조사의 문항들이 잘 구성되었는지 관련하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문항 구성 신뢰도 확인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 척도를 살펴보았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0.6990 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연구 설문 결과 중에 전체 데이터에 결측치가 나타났다. 조사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찾아낸 결측값에 대한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전체 데이터 중 결측치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였고 결측값을 제거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그림을 표시하였다.

<그림 3> 결측치 결과



결과적으로 총 48 개의 응답이 있었지만, 중복으로 기록된 하나의 응답과, 결측 답변이 높은 12 개

의 응답을 제외시키고 총 35 개의 표본으로 설문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사역자 특성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수 (N=35)
성별	남성	30 (85.7%)
	여성	5 (14.3%)
	소계	35(100.0%)
연령		55.9 ± 7.6
교육수준	대학교	1 (2.9%)
	대학원	24 (68.6%)
	D.Min.(박사)	10 (28.6%)
	소계	35(100.0%)
직책	담임목사	29 (82.9%)
	부사역자	5 (14.3%)
	원로목사	1 (2.9%)
	소계	35(100.0%)
목회 기간		21.5 ± 7.6
출석 성도 수	50 명 미만	25 (71.4%)
	50-100 명 미만	6 (17.1%)
	100-200 명 미만	2 (5.7%)
	500 명 미만	0 (0.0%)
	500 명 이상	2 (5.7%)
	소계	35(100.0%)
교회 내 사역자 인원		2.8 ± 5.3
일주일간 평균 설교 횟수		3.7 ± 3.7
다른 사역자와 성경연구 필요성 여부	예	27 (77.1%)
	아니오	8 (22.9%)
	소계	35(100.0%)

설문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성이 85.7%, 여성이 14.3%로 나타난다. 여성

사역자의 수치가 약 10% 내로 머무는 한국 교회 환경의 상황보다 약간 높게 분석되었다.²⁰⁴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6 세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라이프웨이에서 2021 년 조사된 리서치의 목회자 평균 연령인 57 세와 매우 근접해 있으며 리서치의 평가와 같이 목회자가 평균적으로 고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⁵ 교육 수준은 대학교가 2.9%, 대학원이 68.6%,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목회자가 28.6%로 대학원 이상 학위의 소지가 전체 97.1%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신학 대학원에서 해석학 및 설교학을 기본과목으로 지정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최소의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역 특성 영역에서 연구 대상자의 사역 위치를 보게 되면 담임 목사가 82.9%, 부사역자가 14.3%, 원로목사가 2.9%로 나타났으며, 사역 평균 기간은 21.5 년이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20 년 이상의 장기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는 50 명 미만이 71.4%, 50-100 명 미만은 17.1%, 100-200 명 미만은 5.7%, 200-500 미만은 없었으며, 500 명 이상은 5.7%로 집계 되었다. 100 명 미만의 교회가 전체 중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회내 사역자 수는 평균 2.8 명으로 나타났으며, 한주동안 평균 설교 횟수는 3.7 번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사역자와 함께 하는 성경연구에 대한 필요성의 여부에서 77.1%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22.9%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3. 교차분석

빈도 분석 시행 후 각 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연령 구분과 교육 구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피어슨(Pearson)의 카이 제곱 통계량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연령과 교육 구분에 따라 강해설교 준비에 대한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카이 제곱 통계량을 도출하고, 유의수준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204) 뉴스앤조이, “여성 교인은 62.5%, ‘여성 담임 목회자’는 8.5%.” [온라인 자료]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73>, 2021년 11월 28일 접속

205) Lifeway research, “Average U.S. Pastor and Churchgoer Grow Older.” [온라인 자료] <https://lifewayresearch.com/2021/11/01/americas-pastors-and-churchgoers-are-getting-older/>, 2021년 11월 28일 접속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카이스퀘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변수 간의 관계성 여부는 아래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표 2> 성별 구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현황)

구분		남성 (N=30)	여성 (N=5)	p-value
연령		56.0±7.7	55.4±7.4	0.879
교육수준	대학교	1 (3.3%)	0 (0.0%)	0.807
	대학원	20 (66.7%)	4 (80.0%)	
	D,Min.(박사)	9 (30.0%)	1 (20.0%)	
	소계	30 (100.0%)	5 (100.0%)	

p<0.05

남성 목회자의 평균연령은 56 세, 여성 목회자의 평균 연령은 55.4 세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 목회자는 대학 졸업자가 3.3%, 대학원 졸업자가 66.7%, 목회학 박사 과정 졸업자가 30%로 나타났다으며, 여성목회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는 없었으며, 대학원 80%, 목회학 박사 과정은 20%였다. 목회자의 교육 수준 역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2) 사역환경 측정

<표 3> 성별에 따른 사역 배경 특성

구분		남성 (N=30)	여성 (N=5)	p-value
사역자 직책	담임목사	25 (83.3%)	4 (80.0%)	0.858
	부사역자	4 (13.3%)	1 (20.0%)	
	원로목사	1 (3.3%)	0 (0.0%)	
	소계	30 (100.0%)	5 (100.0%)	
목회(사역)기간		22.4±7.7	16.0±4.4	0.090
출석 성도 수	50 명 미만	21(70.0%)	4 (80.0%)	8.860
	50-100 명 미만	5 (16.7%)	1 (20.0%)	
	100-200 명 미만	2 (6.7%)	0 (0.0%)	
	500 명 이상	2 (6.7%)	0 (0.0%)	
	소계	30 (100.0%)	5 (100.0%)	
목회자 인원		2.9±5.7	2.2±1.5	0.560

p<0.05

사역자 직책의 경우 남성의 83.3%가 담임목회를 하고 있었고, 부사역자 13.3%, 원로목사 3.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담임목회가 80%, 부사역자는 20%로 나타났다. 목회 사역 기간은 남성이 22.4년 여성이 16년으로 6년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석 성도수의 경우 남성 목회자 교회의 경우는 100명 미만이 86.7%, 100-200명 미만이 6.7%, 200-500명 미만의 경우는 없었었으며, 500명 이상은 6.7%로 나타난 반면, 여성 목회자의 경우 100%가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성별에 따른 사역 환경 측정

구분		남성 (N=30)	여성 (N=5)	p-value
정신적 피로도	매우 그렇다	1 (3.3%)	0 (0.0%)	0.729
	그렇다	5 (16.7%)	0 (0.0%)	
	보통이다	9 (30.0%)	1 (20.0%)	
	그렇지 않다	9 (30.0%)	2 (40.0%)	
	매우 그렇지 않다	6 (20.0%)	2 (40.0%)	
	소계	30 (100.0%)	5 (100.0%)	
사역의 과중도	매우 그렇다	0 (0.0%)	1 (20.0%)	0.099
	그렇다	8 (26.7%)	0 (0.0%)	
	보통이다	3 (10.0%)	1 (20.0%)	
	그렇지 않다	8 (26.7%)	1 (20.0%)	
	매우 그렇지 않다	11(36.7%)	2 (40.0%)	
	소계	30 (100.0%)	5 (100.0%)	

p<0.05

사역의 정신적 피로도를 확인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80%가 보통 아래의 양호함을 나타냈고, 여성 응답자의 전부가 보통 아래의 양호함을 나타냈다. 사역의 업무가 과중한지에 대한 설문은 다양한 응답을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그렇다”라고 한 응답이 26.7%, “보통”은 10%, “그렇지 않다”는 26.7%, “매우 그렇지 않다”는 36.7%로 나타났으며, 여성 응답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20%, “보통” 20%, “그렇지 않다” 20%, “매우 그렇지 않다가” 40%로 나타났다.

3) 설교사역 특성

<그림 5> 성별에 따른 설교사역 특성

구분		남성 (N=30)	여성 (N=5)	p-value
평균 설교 횟수/1 주일간		3.5±3.9	4.4±2.9	0.644
설교 준비의 어려움	본인관점	15(50.0%)	3 (60.0%)	0.405
	멘토부재	5(16.7%)	2(40.0%)	
	자료부족	9(30.0%)	0(0.0%)	
	기타	1(3.3%)	0(0.0%)	
	소계	30 (100.0%)	5 (100.0%)	
본문 연구 중 어려움	강해	11(36.7%)	2(40.0%)	0.423
	주해	1(3.3%)	0(0.0%)	
	적용점	9(30.0%)	0(0.0%)	
	참고문헌	9(30.0%)	3(60.0%)	
	소계	30 (100.0%)	5 (100.0%)	
설교 후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여부	예	20(66.7%)	2(40.0%)	0.520
	아니오	10(33.3%)	3(60.0%)	
	소계	30 (100.0%)	5 (100.0%)	
설교 작성 시, 자신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	성경연구	3(10.0%)	0(0.0%)	0.745
	멘토자문	3(10.0%)	1(20.0%)	
	세미나	2(6.7%)	0(0.0%)	
	구입연구	22(73.3%)	4(80.0%)	
	소계	30 (100.0%)	5 (100.0%)	
설교 준비중 다른 설교자들과의 본 구연구가 필요한가의 생각 여부	예	22(73.3%)	5(100.0%)	0.460
	아니오	8 (26.7%)	0(0.0%)	
	소계	30 (100.0%)	5 (100.0%)	

p<0.05

사역자의 한 주간 설교하는 횟수는 남성의 경우 평균 3.5 회, 여성의 경우 평균 4.4 회로 여성의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1 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5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볼 때

사역의 많은 시간이 설교에 준비되는 할애되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⁶

설교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본인의 관점으로 모든 설교를 준비해야하는 부담감이 남성의 경우 50%, 여성의 경우 60%로 가장 높았고, 멘토의 부재는 남성 16.7%, 여성 40%로 나타났다. 여성 목회자의 경우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려운 점을 홀로 설교를 준비하는 부담감과 성경 연구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없는 멘토의 부재에 대한 응답으로 100%가 나온 것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남성의 30%는 자료의 부족, 그리고 3.3%가 기타 이유로 응답하였다.

설교 준비의 중요한 요소인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중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강해가 남성의 경우 36.7%, 여성은 40%로 나타났고, 주해는 남성만 3.3%, 본문에서 적용점으로서의 연결의 어려움은 남성만 30%의 응답이 있었다. 본문을 연구할 때 참고 문헌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의 응답은 남성이 30%, 여성이 60%로 본문 연구시 문헌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교 후 본인이 했던 설교에서 성경연구와 해석이 잘 못된 적이 있음을 인지한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성의 66.7%와 여성의 40%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설교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실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남성의 73.3%, 여성의 80%가 더 많은 자료와 문헌을 구입하여 연구한다고 답해, 역시 자료와 문헌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교 준비과정 중 다른 설교자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은 남성의 73.3%와 여성의 1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6> 연령에 따른 사역자 직책과의 관계

구분	≤50세	50세<x≤60세	61≤	p-value
담임목사	6 (60.0%)	12 (92.3%)	11 (91.7%)	0.049
부사역자	4 (40.0%)	1 (7.7%)	0 (0.0%)	
원로목사	0 (0.0%)	0 (0.0%)	1 (8.3%)	
소계	10 (100.0%)	13 (100.0%)	12 (100.0%)	

p<0.05

206) 뉴스앤조이, “해야 할 설교는 많고 준비할 시간은 적다.” [온라인 자료]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562>, 2021년 10월 18일 접속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사역자 직책의 유의 수준이 0.04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목회자의 나이가 50세 미만일 때 담임 목사로 응답된 비율이 60%에 그친 반면 50세에서 60세 사이 일때의 92.3%, 61세 이상일 때 91.7%로 나타난 것은 담임 목사의 위치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표 7> 연령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의 관계

구분	≤50세	50세<x≤60세	61≤	p-value
매우 그렇다	0 (0.0%)	1 (7.7%)	0 (0.0%)	0.037
그렇다	4 (40.0%)	2 (15.4%)	2 (16.7%)	
보통이다	1 (10.0%)	0 (0.0%)	3 (25.0%)	
그렇지않다	2 (20.0%)	7 (53.8%)	0 (0.0%)	
매우 그렇지 않다	3 (30.0%)	3 (23.1%)	7 (58.3%)	
소계	10 (100.0%)	13 (100.0%)	12 (100.0%)	

p<0.05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의 관계성은 유의 수준이 0.03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50세 미만의 목회자의 40%가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한 반면, 50세와 60세 사이의 과중성에 그렇다 이상의 응답은 23.1%, 61세 이상은 16.7% 로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교회목사 지위에 따른 출석 정도 수와의 관계

구분	담임목사	부사역자	원로목사	p-value
50명 미만	23 (79.3%)	1 (20.0%)	1 (100.0%)	0.011
50-100명 미만	5 (17.2%)	1 (20.0%)	0 (0.0%)	
100-200명 미만	1 (3.4%)	1 (20.0%)	0 (0.0%)	
500명 이상	0 (0.0%)	2 (40.0%)	0 (0.0%)	
소계	29 (100.0%)	5 (100.0%)	1 (100.0%)	

P<0.05

분석결과 사역자 직책에 따른 출석 정도 수의 유의 수준이 0.0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담임 목사 응답자의 3.4%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담임 목사는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사역

하고 있다. 부 사역자의 경우 5명으로 담임 목사 29명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그 중 2명(40%)이 500명 이상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음은, 중대형 교회에서 부 사역자를 더 높은 비율로 수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9> 교회 목사 지위에 따른 잘못된 해석을 인지한 경험과의 관계

구분	담임목사	부사역자	원로목사	p-value
예	21 (72.4%)	1 (20.0%)	0 (0.0%)	0.034
아니오	8 (27.6%)	4 (80.0%)	1 (100.0%)	
소계	29 (100.0%)	5 (100.0%)	1 (100.0%)	

p<0.05

분석결과 교회 목사 지위에 따른 성경연구와 해석이 잘못되었던 것을 인지한 경험 여부의 유의 수준이 0.0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직책상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의 경우 72.4%가 자신의 설교가 잘못되었던 것을 인지한 반면, 부사역자는 20%, 원로목사는 0%로 나타났다.

<표 10> 교회 목사 지위에 따른 잘못된 해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의 관계

구분	담임목사	부사역자	원로목사	p-value
성경연구	3 (10.3%)	0 (0.0%)	0 (0.0%)	0.029
멘토자문	1 (3.4%)	3 (60.0%)	0 (0.0%)	
세미나	2 (6.9%)	0 (0.0%)	0 (0.0%)	
구입연구	23 (79.3%)	2 (40.0%)	1 (100.0%)	
소계	29 (100.0%)	5 (100.0%)	1 (100.0%)	

p<0.05

분석결과 교회 목사 지위에 따른 성경연구와 해석이 잘못되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유의 수준이 0.02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담임 목사의 경우 79.3%가 성경연구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헌이나 자료를 더 많이 구입해 연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멘토 자문을 찾으려는 노력은 3.4%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사역자의 경우 60%가 멘토 자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응답되었다.

<표 11> 목회 기간에 따른 잘못된 해석을 인지한 경험과의 관계

구분	20년 이하	21년 이상	p-value
예	7 (41.2%)	15 (83.3%)	0.026
아니오	10 (58.8%)	3 (16.7%)	
소계	17 (100.0%)	18 (100.0%)	

p<0.05

분석결과 목회 기간에 따라서 자신의 성경연구와 해석이 잘못되었던 것을 인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의 유의 수준이 0.02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21년 이상 사역을 했던 목회자의 경우 자신의 성경 연구와 해석이 잘못되었던 것을 스스로 인지했던 응답이 83.3%로 나타났지만, 20년 이하 사역을 했던 목회자의 경우 41.2%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본문 연구의 어려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의 관계

구분	강해	주해	적용점	참고문헌	p-value
매우 그렇다	0 (0.0%)	0 (0.0%)	0 (0.0%)	1 (8.3%)	0.021
그렇다	2 (15.4%)	0 (0.0%)	1 (11.1%)	5 (41.7%)	
보통이다	0 (0.0%)	1 (100.0%)	0 (0.0%)	3 (25.0%)	
그렇지 않다	6 (46.2%)	0 (0.0%)	2 (22.2%)	1 (8.3%)	
매우 그렇지 않다	5 (38.5%)	0 (0.0%)	6 (66.7%)	2 (16.7%)	
소계	13 (100.0%)	1 (100.0%)	9 (100.0%)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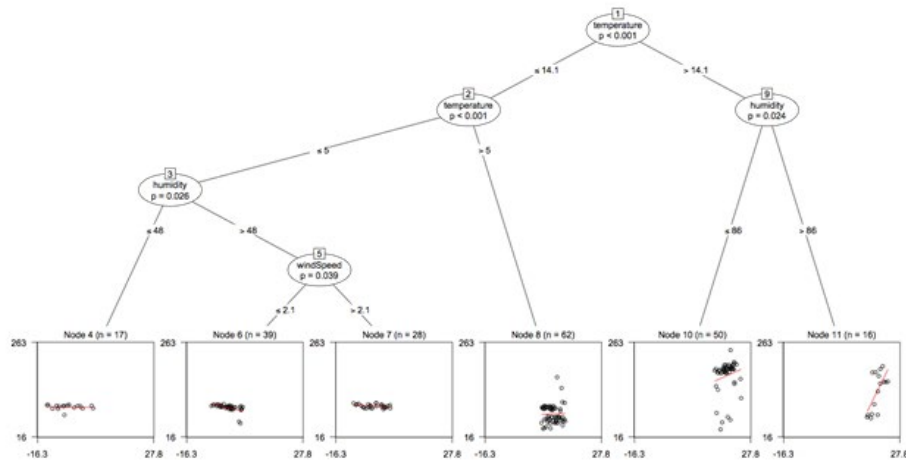
p<0.05

분석결과 설교 준비를 위해 본문 연구 중 어려운 점에 따라서 과중한 업무를 느끼는 관계의 유의 수준이 0.0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업무의 과중함을 보통 이상으로 느끼는 경우 본문연구의 어려움을 참고 문헌의 부족으로 응답한 경우는 75%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자의 84.7%는 강해의 어려움을 나타냈고, 88.9%는 적용점의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4. 의사결정나무 모형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도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그룹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여 자료의 분석 및 예측모형을 제공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분석과정이 나무구조로 도시화되기 때문에 SVM, PLS등의 머신러닝 기반의 통계모형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관련 기호를 보면 Y 는 반응변수, X 는 적합변수, Z 는 분할변수, t 는 모형 내 임의의 노드(예를 들어, 뿌리 노드의 경우 $t=1$), t_L & t_R 는 노드 t 의 자식노드들 (예를 들어, 그림에서 1번 노드의 t_L 은 2번 노드, t_R 은 9번 노드), N 은 뿌리노드의 총 관측치 수 (분석 대상 전체 샘플수), $N(t)$ 은 노드 t 에서의 관측치 수 (해당 노드의 샘플수), $\theta_{\tau}(t)$ 은 노드 t 에서의 추정량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그림나무 모형의 예



1) 나무모형의 구성과정

첫째, 뿌리노드에 있는 모든 관측치에 대해 반응변수(Y)와 적합변수(X)를 이용하여 모수 $\theta(t)$ 를 추정(노드 모형의 추정)한다. 둘째, 모든 분할변수 $Z_1, Z_2, \dots, Z_d$ 에 대해 회귀계수의 안정성 검정 실시. 이 중 가장 불안정한 분할변수를 자료 분류변수로 지정(분류변수의 선택)한다. 셋째, 노드 t 를 자식노드 t_L 과 t_R 로 나누기 위해 국소 최적화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료 분류지점을 선택(분류지점의

선택)한다. 넷째, 노드 t 를 자식노드 t_L 과 t_R 로 나눈 후 각각의 자식노드에서 (1)~(3)의 스텝을 정지 규칙(stopping rules)을 만날 때까지 재귀적으로 반복(나무 크기의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첫번째부터 네 번째의 과정을 통해 설문 대상자의 의료시설 및 정부지원사업 모형화 한다.

2) 세부 알고리즘

(1) 노드 모형의 추정(Estimation of Node Model)

첫째, 임의의 노드 t 에서 계수 $\theta(t)$ 를 추정한다.

둘째, 노드 t 에서 p 차원 적합변수 X 와 반응변수 Y (만족도)에 대한 계수(conditional function of $Y|X$)는 $\Pr(Y \leq \tau | X) = \theta$ ($0 < \tau < 1$)와 같이 정의한다.

(2) 분류변수의 선택(Selection of Split Variable)

첫째, 노드 t 에서 분할 가능한 모든 분할변수 Z_j ($j = 1, \dots, d$)에 대해 $\theta_\tau(t)$ 의 변동성을 검정하여 가장 변동이 심한 분할변수 Z_j 를 해당노드의 분류변수로 지정(예: Z_j 는 교통, 의료시설 등)한다.

둘째, Zeileis and Hornik (2007)이 제안한 점수기반 변동성검정(score-based fluctuation test)을 이용하여 임의의 분할변수 Z_j ($j = 1, \dots, d$)에 대한 변동성의 정도를 아래의 경험 변동 프로세스(empirical fluctuation process)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W_j(t) = \hat{J}^{-1/2} N^{-1/2} \sum_{i=1}^{N(t)} \varphi(Y_{(ij)}, X_{(ij)}, \hat{\theta}_\tau) \quad (0 \leq t \leq 1),$$

여기서 $\varphi(Y, X, \hat{\theta}_\tau) = \frac{d\mathcal{M}(Y, X, \theta_\tau)}{d\theta_\tau}$ 는 목적함수의 스코어함수(score function), (ij) 는 j 번째 분할변수의 i 번째 관측치, $\hat{J} = \sum_{i=1}^N \varphi(Y_i, \hat{\theta}_\tau) \varphi(Y_i, \hat{\theta}_\tau)^T$ 는 그래디언트 추정량의 외적(outer-product-of gradient estimates)이다.

셋째, 변동성 검정의 귀무가설 아래에서 $W_j(\cdot)$ 는 k -차원 브라우니안 브릿지(k -dimensional Brownian bridge)에 수렴하므로 유의확률이 가장 작은 분할변수는 노드 t 에서의 변동이 가장 큰 변수를 의미한다. 변동성 검정에서 가장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여 나무 구조를 키우면 노드 간에는 이질적이며 노드 내에서는 동질적인 자료로 전체자료를 분할 가능하다.

넷째, 유의확률은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연산하며, 연속형 분할변수(예를 들어 습도 등)의 검정 통계량은 Andrew (1993)의 supLM 통계량(supLM statistic of Andrew)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S_j = \max_{i=1, \dots, i} \left(\frac{i}{N} \frac{N-i}{N} \right)^{-1} \left\| W_j \left(\frac{i}{N} \right) \right\|_2^2.$$

S_j 의 극한분포(limiting distribution)는 tied-down Bessel process의 상한에 대한 분포이기에 유의확률 계산 가능하다.

다섯째, j 번째 분할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즉, 범주형 분할변수 W_j 가 Q 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경우, (예를 들어 공휴일 여부 등 등)),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S_j = \sum_{q=1}^Q N \left(\sum_{i=1}^N I(X_{ij} = q) \right)^{-1} \left\| \Delta_q W_j \left(\frac{i}{N} \right) \right\|_2^2,$$

여기서 $\Delta_q W_j(\cdot)$ 는 q 번째 카테고리에서의 경험 변동 프로세스의 증분(increment)이다. S_j 의 극한분포(limiting distribution)는 자유도 $k(Q-1)$ 의 자유도를 가진 카이제곱 분포이므로 유의확률 계산 가능하다.

여섯째, 모든 분할변수중 유의확률이 가장 작은 분할변수 Z_j 를 노드 t 의 분류변수로 지정한다.

(3) 분류지점의 선택 (Selection of Split Point or Set)

첫째, 노드 t 를 자식 노드들로 나누기 위한 규칙 정의한다.

둘째, 본 특허에서는 자료의 해석 및 계산 편의성을 위해 2개의 자식노드 t_L 과 t_R 로 나누기 위한 이진분류(binary segmentation)에 기반한 분류지점 선택 알고리즘에 초점을 둔다.

셋째, 노드 t 에서의 오차함수(impurity function) $R(t) = \sum_{i \in t} \mathcal{M}(Y, X, \theta_t)$ 로 정의한다.

넷째, 노드 t 와 자식노드 t_L 과 t_R 간의 오차함수의 감소량 $R(t)$ 를 평가하여 가장 큰 오차 감소를 보이는 분류 규칙 $Z_j \leq C$ (연속형 분류변수) 혹은 $Z_j \in A$ (범주형 분류변수) 선택한다.

$$R(t) = R(t) - [R(t_L) + R(t_R)].$$

다섯째, 이를 위해 모든 가능한 경우를 탐색하여 자식 노드 t_L 과 t_R 의 후보 분류점 C 혹은 분류집합 A 를 구성한다.

여섯째, 선택된 분류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O(N)$ 의 연산, 범주형인 경우에는 $O(2^{Q-1})$ 의 연산 필

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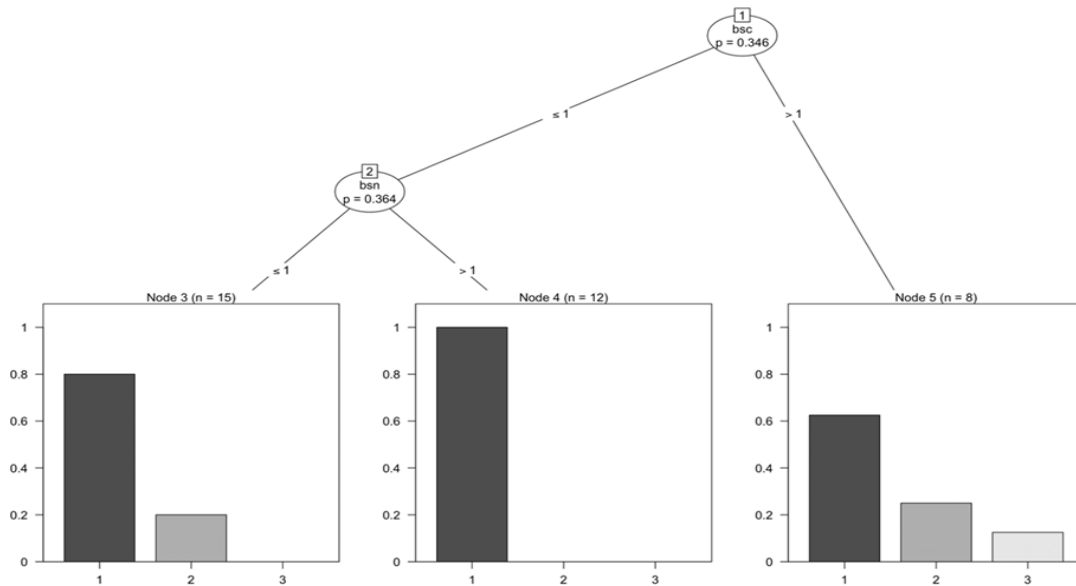
(4) 나무크기의 설정(Determination of Tree Size)

첫째, 노드 t 를 자식노드 t_L 과 t_R 로 나눈 후 각각의 자식노드에서 (1)~(3)의 스텝을 정지규칙(stopping rules)을 만날 때까지 재귀적으로 반복한다.

둘째, 규칙 1에서 노드 t 의 샘플사이즈 $N(t)$ 가 자료 적합이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작은 경우이고, 규칙 2에서 노드 t 의 모형 설명력이 자료를 충분히 설명한 만큼 큰 경우를 나타내며, 규칙 3에서 노드 t 에서 선택된 분류변수의 유의확률이 미리 정의된 유의수준 α 보다 큰 경우이다.

3) 나무모형분석

<그림 5> 다른 사역자와 함께하는 성경연구의 필요성과 평균설교 횟수관계



- 1번 선택 **bsc**: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 \geq$: 예, $1 <$: 아니오)
- 2번 선택 **bsn**: 귀하의 사역활동 중 1주일 간 평균 설교 횟수 ($1 \geq$: 3회 미만, $1 <$: 3회 이상)
- 그래프 **box 1**: 담임목사, **box 2**: 부사역자, **box 3**: 원로목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담임목사, 부사역자, 원로목사 그룹에서 동 연구 주제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담임목사 그룹에서 부사역자, 원로목사 그룹보다 월등히 필요

성을 더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1주일간 설교 수(3회 미만 그룹과 3회 이상 그룹)에 따라서도 일부 차이는 있지만, 담임목사 그룹이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2차 설문결과

두번째 진행된 설문 조사는 1차 설문의 사역의 특성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파생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선택과 무기명으로 이루어졌고, 앞서 동의서를 참가자에게 보내어 참여의사를 확인했으며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절차를 설명하고 조사에 응하게 하였다. 설문 방법은 인쇄된 설문지에 자기 기입식으로 표기하는 방식과 메신저를 통해 설문지를 보낸 후 완성된 설문지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시간은 20 분 이내로 예상하였으며 총 13 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교사역 특성의 설문 조사부터는 성경연구 모임에 참석한 사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모임에 참석하며 생각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1) 일반적 특성 및 사역환경

<표 13> 2 차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역환경

구분		빈도수 (N=13)
성별	남성	12 (92.3%)
	여성	1 (7.7%)
	소계	13 (100.0%)
연령	30~40 미만	6 (46.2%)
	40~50 미만	7 (53.8%)
	소계	13 (100.0%)
사역 직분	목사	12 (92.3%)
	목사 외	1 (7.7%)
	소계	13 (100.0%)
연구모임 참여기간	1 년 미만	2 (15.4%)
	1-2 년 미만	5 (38.5%)
	2-4 년 미만	4 (30.8%)
	4 년 이상	2 (15.4%)
	소계	13 (100.0%)
월별 평균 설교 회수	1	5 (38.5%)
	2	4(30.8%)
	3	2 (15.4%)
	4	2 (15.4%)
	소계	13 (100.0%)

총 13 명의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은 12 명으로 92.3%, 여성은 1 명으로 7.7%이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0- 40 세미만이 46.2%, 40-50 세 미만이 53.8%로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 전원이 50 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50 세 이상의 목회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 차 설문조사의 결과와 대조된다.

연구 대상자의 직책은 1 명 7.7%를 제외하고 모두 목사였으며, 월별 평균 설교 회수는 1 회가 38.5%, 2 회가 30.8% 5 회가 15.4%, 4 회가 15.4%로 고루 분포되었다. 1 차 설문조사에 분석되었던 결과는 한주에 적어도 1-2 회 이상 설교하는 목회자가 대부분이었음을 생각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701 한인교회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를 사역자들이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된다.

성경공부 참여기간 역시 1명 7.7%를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701 한인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지속적으로 성경연구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 전역에서 Online Meeting으로 변환하여 장소에 제한 없이 연구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다.

2) 설교사역 특성

<표 14> 2 차 연구 대상자의 설교 사역 특성

구분		빈도수 (N=13)
연구 모임 참석 전 본인 설교에 대한 만족도	예	3 (23.1%)
	아니오	10 (76.9%)
	소계	13 (100.0%)
연구 모임 참석 전 설교작성에 어려운 부분	없음	0 (0.0%)
	1-2 가지	11 (84.6%)
	3 가지 이상	2 (15.4%)
	소계	13 (100.0%)
연구 모임 참석 전 생각했던 강해설교와 모임 참석 후 강해설교에 대한 차이	예	12 (92.3%)
	아니오	1 (7.7%)
	소계	13 (100.0%)
성경 연구 모임의 필요성	필요하다	13 (100.0%)
	필요하지 않다	0 (0.0%)
	소계	13 (100.0%)

설교사역 특성의 첫번째 질문은 701 모임 참석 전 본인이 작성했던 설교의 만족 여부에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었다. 13 명중 3 명이 모임 참석 전 자신의 설교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10 명의 만족하지 못했던 응답자의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주해 및 연구의 어려움, 시간 부족, 객관성 결핍, 경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를 차지했다. 설교 만족도가 매우 낮게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설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의 부족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질문은 성경연구 모임 참석 전 설교 작성을 하며 어려웠던 점들에 관하여 서술하는 것이었다. 모임 참석 전에 설교 작성 중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서 중복 답변을 포함해 주해의 어려움이 9 명으로 높게 나왔다. 이 외에도 연구 및 설교 검증 및 객관적인 성경 연구, 청중분석 및 적용 등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질문임에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성경주해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세번째 질문은 모임 참석 이전에 생각했던 강해설교와 참석 이후 생각하는 강해설교와 차이에 대해 답하고 서술하는 것이다. 분석한 결과 모임 참석 전후를 기점으로 강해설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에 92.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서술형 응답자 중 4 명이 강해설교에 대해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설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순차적 설교가 강해설교라고 오해하는 범주에 사역자들도 높게 수치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임 참석 이후 강해설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고, 본문에 대한 해석 능력과 설교에 대한 평가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도 포함되어 있었다.

네번째 질문은 701 교회의 모임과 같은 유형의 강해설교 작성을 위한 모임들이 더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하고 서술하는 것이었다. 모든 참여자가 성경연구 모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선택하였다. 필요성의 이유에 대한 주된 이유로는 성경 연구의 공유를 통한 양질의 설교가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역으로 인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 연구 모임을 통해 함께 연구를 하면서 시간이 절약되고, 다양한 관점의 연구 나눔을 통해 혼자서 찾아 낼 수 없는 깊은 연구와 결과의 기대치가 상승하며, 본인의 성경연구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개인적 성경연구 능력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장점도 이유에 포함되었다. 연구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되었다. 참여자들의 원어 실력과, 조직 신학 및 주석을 비교할 수 있는 해석학적 역량이 비슷해야 모임 진행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질문은 서술형 답변으로만 진행되어 <표 14> 에 첨부되지 않았다.

첫 질문은 모임에 혼자서 성경의 내용을 관찰하고 원리를 파악했을 때와 모임에 참여하여 내용을 관찰하고 원리를 나눌 때 비교 차이점에 관한 서술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은 모임에 참여해 토론을 나

누면서 연구가 풍성해지고, 연구의 완성도가 올라가며, 본인이 성경 연구한 사실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 외에도 주해 능력이 향상과 연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두번째 질문은 모임 참석 후 설교작성에 어려웠던 점들이 개선되거나 보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서술해 달라는 질문에서 모임 참석 전 설교 작성시 주해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9명 중 7명이 주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성경연구와 설교의 검증을 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과 주관적 설교 및 적용에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응답자도 역시 주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성경 연구의 시간이 단축되고,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청중을 중심으로 작성되던 설교가 말씀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개선점을 가져왔다고 응답하였다. 성경연구 모임을 통해 주해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질문을 통해 계속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임에 대한 장 단점과 모임을 통해 본인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면 서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점은 주로 개인적 성경연구 능력 향상과, 다양한 관점과 본문 접근을 통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 토론을 통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점등이 있었고, 모임 외 요소이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해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의 요소에 포함한 응답도 있었다. 단점으로는 가끔씩 나타나는 개인적인 연구부족은 토론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지속적인 성경연구 방법론의 부재와, 참여자의 신학교육 수준을 맞추는 것, 그리고 난해한 본문이 나왔을 때 교단 색채로 나눠져 토론으로 인한 피로도와 설교작성 등으로 응답되었다.

한 연구 대상자는 다른 모임이 시작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이 가지는 환경적 특별함을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서술한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에는 첫째로 모임을 이끌어줄 분명한 리더십이 있었으며, 둘째로 같은 방향성을 가진 참여자로 형성되었고, 셋째로 다양한 교단이 존재했음에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관계와 생활 환경이 허락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를 함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설교 강단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6. 분석평가

1차 설문 조사의 빈도 분석을 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연구 대상자의 성별이 남성이 높게 나오고, 담임 목회자의 평균 나이가 56세로 고령화 된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교육 수준은 대학원 및 박사과정을 이수한 목회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사역 기간은 평균 21.5년으로 장기간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많았다. 그럼에도 50명 미만의 교회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자립교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일인 목회자 교회이다. 혼자 교회를 돌보며 설교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료나 문헌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본인 관점으로만 설교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성경 강해를 힘들어 하고 있으며, 설교 점검을 해 줄 수 있는 멘토가 부재에 대한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 1차 설문조사의 연구분석 본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설교작성의 어려움 점들이 사실로 검증되었다.

교차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은 나이가 적으면 업무의 과중성이 높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업무의 과중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담임목회를 하는 분석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담임목회와 사역기간이 길어질수록 설교를 자주 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결과 자신이 했던 설교에서 잘못된 점을 인지한 경험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업무의 과중치가 덜한 대상자에게서 성경 강해와 적용을 찾기 위한 지표가 높게 나타났지만 과중치가 높은 연구 대상자들은 문헌을 통해 해결하려는 분석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1차 설문에서 파생된 질문으로 구성된 2차 설문 조사는 객관형 문항과 함께 연구모임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술형 문항도 함께 진행되었다. 연구모임 참석전의 연구 대상자는 강해설교의 이해에 대해 순차적 설교라고 이해한 경우가 서술형임에도 불구하고 30.8%로 분석되었다. 설교준비의 어려움에는 주해와 시간부족, 경험부족, 객관적 성경연구, 적용 등의 어려움이 응답되었다. 혼자 성경연구 할 때와 그룹 성경연구 모임의 차이점에 관한 서술로서 응답자는 토론을 통한 연구의 풍성함, 연구의 완성도, 본인이 성경연구한 사실에 대한 검증 등이 장점으로 서술되었다. 성경연구 모임에 참석 이후 연구 대상자에 보완이나 개선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시간단축과, 바른 적용, 주해능력 향

상과 말씀 중심의 설교 작성이 응답되었다. 모임의 장단점에 관한 질문에는 다양한 관점의 본문 관찰과 토론을 통한 충분한 연구가 장점으로 응답되었고, 지속적인 성경연구 방법론의 부재와, 교단 별 색채, 개인적 연구부족으로 인한 토론의 저하 등은 단점으로 응답되었다. 그럼에도 701교회의 강해설교와 같은 연구모임의 필요성에 대하여 100%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차와 2차에 걸친 설문조사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혼자 강해설교를 작성했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은 실제 조사에서도 사실로 응답되었고 성경연구모임의 방안은 설교 작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제 5 장

결론

1. 연구결과 비교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요약하였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교회 내면의 문제들도 나타났다.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에 다가오는 여러 공격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할 성도들의 성경적 성장이 요구된다. 교회의 리더와 성도들은 말씀 회복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보여주었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성장할 수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 행하신 강력한 역사를 나타낸 것이 성경의 존재 이유라고 하였다.²⁰⁷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며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행동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성도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의 강해 설교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장점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시도하지만 현실은 강해설교와 거리가 먼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강해설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경 관찰과 주해 및 강해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 혼자 작성하는 설교의 특성으로 인해 해석의 실수가 생기지만, 이를 검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결과 이러한 설교자들이 가지는 문제들이 사실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는 분석을 정리하면 첫째, 많은 목회 자가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회자의 대부분이 50 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역업무의 과중성

207) Martin Lloyd-Jones,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정상윤 외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5), 210-1.

은 많아지고, 사역의 피로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동역자의 부족은 사역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고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연구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설교자들로 하여금 주석과 설교집과 같은 자료 등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한다.

둘째, 강해 설교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다. 평균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매주 몇 번씩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회자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포된 설교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혼자 연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입견과 각 개인이 가지는 성경 지식의 대한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설교 작성 중 나타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멘토를 찾고 문헌을 구입하려는 응답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개선 방안으로 성경연구 모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성경 연구 모임에 참석했던 참여자 전원이 성경 연구 모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참석자들은 설교 작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시간부족, 경험 부족, 객관적 성경연구, 본인이 연구한 성경본문에 대한 검증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을 응답하였지만, 연구 모임을 통해 혼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충족된 응답을 나타냈다.

2. 성경 연구모임 제안

교회의 셀그룹이 형성되는 목적은 증가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그룹이 적정한 인원수로 구성되어져야 하고, 기도와 그룹 리더의 헌신은 필수적이며, 모인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⁸ 하지만 현재 성경연구 모임은 모임 증가에 목적이 있기 보다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연구 학습에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가를 할 수 있는 제안은 모임의 활성화가 유지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을 살펴보고 설교 작성자가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을 형성하게 될 때 권장하는 제안요소는 다음과 같다.

208) Joel Comiskey, 「셀그룹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5-8.

첫째, 같은 방향성을 가진 설교자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한 성경연구 모임에 대한 장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역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교단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연구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오랫동안 고질화 된 설교 작성법과 설교적 편향성으로 인해 단계적 성경연구가 어렵거나, 연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같은 방향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야 모임이 진행될 수 있다.

둘째, 같은 성경연구 방법으로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지닌 설교 작성의 습관적인 연구방법을 버리고 본 연구 2장에 제시한 주해과정과, 강해과정, 설교작성과정을 세미나를 통해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는 다르더라도 원리를 찾아내야 하는 방법이 동일해야 토론이 가능하고, 서로 제시하는 의견을 파악하고 본인의 연구에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성경 연구방법 교재를 본 연구의 부록으로 참조하였다.

셋째, 참여자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여자가 본문을 충분히 관찰하고 연구해야 풍성한 토론이 진행된다. 한 사람의 충분한 준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참여자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발표가 되거나 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난다.

넷째, 성경연구 모임을 이끌어 주는 리더가 필요하다. 성경공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모임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주는 역할이다. 발표의 균형을 맞추고, 순서를 진행하고 돕는 리더로서 본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여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제시가 충분히 오고 갔는지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본문마다 참여자에게 분배해 모임 리더를 번갈아 가며 진행할 수도 있다.

다섯째, 꾸준히 모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모여야 참여자 간의 친밀도와 토론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또한 모임 전 개인이 준비해 오는 본문연구에도 지속적인 훈련이 될 수 있다. 대면 모임이 코비드 19로 인하여 비대면 모임으로 바뀌었지만, 장소의 제약이 없어지고, 준비한 자료화면을 나누어 보기도 가능하며, 모임 장소로 오고 가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고, 모임 화면을 녹화해 다시 보고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3. 후속 연구 제안

강해설교를 위한 많은 문헌들과 연구가 나오는 이유는 본 연구에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설교를 문헌과 자료구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적인 설교라는 부담 아래 설교 작성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강해설교 작성 훈련을 위한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연구 모임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헨드릭스의 책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세 가지 제안 중 소그룹 성경공부를 조직해 나타나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였다.²⁰⁹ 하지만 이 성경연구 모임 제안도 삶의 적용을 위한 제시였기 때문에 실제 목회 현장에서 서로 다른 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설교를 위한 성경연구 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코비드 19 팬데믹 상황에 있는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을 교회 구성원이 되는 성도의 영적 성장 수준을 살펴보고, 강해설교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시작되었다. 그러나 설교자들의 실제 사역 환경은 설교를 작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사역자 역시 강해설교 작성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강해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고, 훈련과 설교작성 개선을 위한 성경연구 모임을 제시하여 설교자가 배우고 훈련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 목회자들이 처한 사역 환경은 701 한인교회 성경연구 모임에 참여하는 환경과 상이하여 모임을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5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에서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한 목회자들과, 일인 목회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 놓은 상황에서, 모임에 두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연구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연구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다.

701 교회 성경연구 모임의 경우에도 타 도시지역에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은 업무와 과로로 인한 모임 불참 사례가 높게 나타난다. 701 교회 연구 모임에서 훈련을 했던 참여자 중 한 명이

209) Howard G. Hendricks and William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435-7.

한국 대형교회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연구모임을 형성하여 시작하였지만 토론 시 나타나는 의견의 불일치로 모임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에 제시되었던 설교자의 범위와 상황, 성경 연구 모임 참가자의 범위와 환경, 지역적 표본 부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경연구 모임이 목회자에서 설교 작성에 많은 유익을 나타냄이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을 확인되었으니, 교회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성경연구모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그룹의 설정, 각 교단별로 모일 수 있는 그룹의 설정, 지역에 상관없이 시간을 맞춰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그룹의 설정 등을 통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모임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방식과 형태를 연구해 방안을 찾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APPENDIX A

부록 A

2015년 701 한인교회 강해설교 세미나 노트 by Dr. Sungtaek Kim

• 교사이면서 목사에게 주신 책임

-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경건한 모범을 보이라: 언어, 가정생활, 재물, 남을 대접, 겸손, 말씀에 순종, 섬김, 경건
-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 성도들을 돌보는 일: 훈련(discipline), 은사를 통해 봉사, 격려하는 것, 교회를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거짓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위해 올바른 성경해석과 그것에 근거한 성경적 설교가 필요하다.

딤후 4:13 “...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해돈 로빈슨의 현대 설교에 대한 우려

“심각한 문제는 강단에 서는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충분한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실이다. ... 이에 따라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의 내용보다도 그 전달 방법에 더 공을 들이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각종 복합 미디어나 영화, 토론, 그룹, 현대 음악 등을 설교에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에서 생각하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물론 현대 장비와 기술을 동원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이들이 아예 메시지를 대치시켜 버릴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강해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요즘에 서점에 가면 강해설교나 성경 강해에 관한 책들이 많다. 주석에도 강해라는 말을 붙인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강해설교라고 할 수 없는 책들이 있다. 시대적 인기에 편승해 제목만 붙인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 강해설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용하려 하나 실제로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지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

강해설교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대한 훈련이 더 필요한 때이다.

설교자는 바른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딤후 4:2-4)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 강해설교란 무엇인가?

강해설교의 정의-해돈 로빈슨

“강해 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자를 통해 다시 회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강해설교의 특징 다섯가지-라이펠드(Walter I. Liefeld)

강해 설교는 하나의 기본적인 본문을 취급한다
 강해설교는 성서 해석학적 성실성을 갖는다
 강해설교는 결집성을 갖는다
 강해설교는 원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청중을 끌고 나가야 한다
 강해설교는 적용을 포함하는데, 적용은 본문의 목적이나 의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강해설교의 다섯가지 요소-메이휴(Richard I. Mayhue)

메시지의 유일한 원천이 성경에 있다
 철저한 석의를 통해 성경으로부터 메시지를 도출한다
 성경을 그 정상적인 의미와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해 메시지를 준비한다
 메시지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메시지는 성경의 의미를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이다

강해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청중이 이에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강해설교는 성경의 본문에 기초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야 한다. 본문은 설교의 근원이다. 강해설교는 성경의 본문으로부터 기원해야 하며, 발전되어야 만 한다. 강해설교는 본문을 설명하고, 예증하며, 적용해야 한다.

강해 설교 장점

설교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준다
 본문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한다
 설교자가 피해야 할 함정을 보여준다
 설교자에게 자신감을 준다
 설교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준다
 본문에 대한 충실성을 요구한다
 설교자가 피해야 할 함정을 보여준다
 설교자에게 자신감을 준다
 설교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게 한다
 설교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게 된다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좋은 방법이다

강해설교의 단점

성경 연구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한권을 시리즈로 설교할 경우 자칫 권태감을 주기 쉽다

• 설교준비의 3 단계

주해 과정 • 강해 과정 • 설교원고 작성

• 강해설교 준비 15 단계

- 강해설교는 귀납적 성경해석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관찰, 해석, 적용

- 성경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들
성경 (다양한 번역본) / 성구 사전 (Concordance) / 성경 사전 (Bible Dictionary)
성경 핸드북 (Bible Handbook) / 성경 배경에 관한 책 / 주석
- 왜 성경연구가 필요한가? 성경시대와 현대의 다리 역할을 한다.
시대적인 차이 / 문화적 차이 / 언어적 차이 / 문학적 차이 / 영적 차이

1 단계 본문을 선택하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어느 본문에서 설교를 이끌어 낼 것인가? 라는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중이나 교회 성도들의 필요에 비추어 어떤 성경말씀을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 정하라.
목회에 효율적인 설교 준비는 설교 계획에서 도움을 얻는다.
최소 한문단의 본문을 정하라.
문단 단위는 본문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성경의 내러티브에서는 한 이야기가 설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해석학적 원리들을 사용하라
영해나 알레고리화와 같은 오류가 많은 해석학적 방법들은 피한다.

2 단계 본문배경연구

망원경 시각으로 관찰하라.
(본문을 큰그림의 흐름에서 이해하라)

성경 어느책에서 본문을 정하든 그 책 전체를 읽으라.
그 책의 기본되는 주제와 목적을 이해하라.
문맥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단락의 앞뒤 장을 읽고 이해하라.

본문 역사적, 문화적 배경 연구

역사적 배경 연구는 원 저자와 원래의 청중들이 직면한 문화,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을 다룬다.

도움이 되는 질문들:

- 저자, 언제 기록했나?
- 저자의 사역의 성격은 무엇인가?
- 저자와 청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책을 쓴 목적, 책을 읽은 청중은 누구인가?
-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 저자와 청중간의 관계와 청중 간의 관계?
- 그 책이 쓰였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 그 책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역사적 문화적 요소는 있는가?
-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가?

성경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라

구약과 신약의 관계

- 구약은 미래지향적이다

구약을 하나님이 역사라는 종이 위에 스케치하고 있는 그림으로 비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림 그리기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과 함께 최종적인 모습과 색깔을 드러냈기에, 구약 속에 내재해 있는 모호함들 역시 해결되었다. 구약의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신약을 통해 온전해진 그림과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읽혀져야 한다.

- 하나의 단일한 구속사가 구약과 신약의 중심을 이룬다

구속사는 옛 언약으로부터 새언약으로 흘러가는 위대한 강이요, 이 두 언약을 함께 붙들어 매는 강이다. 구약 약속들은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 언약, 그리고 구속과 같은 구약의 주제들은 비록 극적인 변형을 겪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약으로 이어져 나간다.

-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의 연결고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신다. 이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도 아니며, 한 분 사람이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율법-복음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약속-성취의 관계/(한분 사람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 신약 저자들은 자신들의 저술을 구약과 융합하고 있다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저작을 구약과 연결짓고 있다. 신약 저자들은 약속-성취, 모형론, 구약의 주제들이라는 방식들을 통해서 뿐 아니라 구약을 인용하거나 암시함으로써 이러한 연결을 짓고 있다. 인용 구절의 수는 250에서 600 개를 헤아리며, 암시의 경우는 650에서 4,000 여개 정도에 이른다.

- 구약은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구약은 신약이 없이는 미완의 책이다. 단일한 구속사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묶는 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구약과 신약을 결합시킨다. 신약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저작들을 구약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네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은 두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결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역사적 연구의 중요성

설교자가 성경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다. 구약의 옛 본문과 현대 교회의 문맥 사이에는 문화적, 역사적 거리가 있다. 고대 세계를 이해하고 동일시할 수 있게 해줌으로 그 이야기들을 그들의 세계관으로부터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설교에서 역사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당신의 교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성경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종종 허구적이라 생각한다. 설교에 역사적 세부 사항을 포함시킨다면 교인들에게 구약에 언급된 인물들과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상기시킬 수 있다.

3 단계 본문연구

본문을 현미경 시각으로 관찰하라.

(작은그림 에서 저자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라)

- 본문을 관찰하라
- 문학적 특성(장르), 원문분석, 구조, 단어의 이해, 수사학적 분석
- 본문을 해석하라.

- 본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 본문에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 현미경시각으로 읽으라.

본문에서 주의 깊게 관찰할 것

- 본문이 전체 책에서 차지하는 부분적 의미 이해 (문맥 연구)
- 문단과 에피소드 사이 연관 관계
- 이야기 전환
- 본문의 구조
- 인물
- 반복
- 대조
- 비교
- 나열
- 원인과 결과
- 질문과 대답
- 대화
- 목적/결과에 대한 진술
- 감정적 용어
- 비유적 표현

저자의 글 쓴 방식을 통해 뜻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관찰이다.

본문의 문법적 구조 연구

- 접속사
- 동사
- 대명사
- 본문 단어 연구
- 본문에 쓰인 단어의 의미를 연구 분석하라
본문이 속해있는 책, 같은 저자의 책, 그 시대에 통용된 의미

4 단계 본문해석

관찰한 것을 정리할 것-차트 만들기

중요한 개념, 주요인물, 주요 용어들, 중요한 정보 (역사적 배경, 지리적인 특성...)들이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리하라

본문의 단락간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라.

관찰한 내용을 요약한 제목과 요점을 적어 나가라
(저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전체에서 같은 메시지를 찾으라.

차트 만들기

책 (책 핵심귀절) / (책 핵심 메시지)	
본문의 장 / 본문의 앞뒤 문단	
본문의 핵심메시지	
본문의 단락	
관책, 해석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항	
다른 성경에서 같은 메시지	
적용	

석의적 대지(Exegetical Outline)

- 본문 해석으로부터 석의적 아웃라인을 만들라
 - 과거적이다
 -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특정적이고 제한적이다
 - 청중에 대한 배려가 없다
- 저자가 성경시대의 1차 청중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찾으라!

5 단계 청중분석

- 모임의 종류
- 모임의 인원
- 장소(실내, 실외)
- 성별, 연령
- 신앙 수준
- 지식
- 문화, 경제

청중분석의 이유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6 단계 설교의 목적을 결정하라

설교 목적을 찾기 위한 질문

“본문의 중심내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청중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가?” Ramesh Richard

본문 해석에서 저자가 청중들에게 무엇을 이해시키고, 어떤 행동으로 적용하길 원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설교의 목적 필요성 6 가지-Ramesh Richard

- 설교 서론의 초점을 분명하게 함
- 설교 본문에 포함할 것이 무엇이고 제외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함
- 설교의 결론과 적용에 영향을 줌
- 예화 선택에 도움을 준다
- 설교의 성공여부를 측정할 객관적 방법제공
- 목적이 분명해야 중심 주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 알게 해 줌

7 단계 석의적 대지를 설교적 대지로 만들라

성경시대와 현대시대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없으면 강해설교가 되지 않는다.

석의적 대지는 성경시대에 1 차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라면, 설교적 대지는 현재 청중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로 바꾸는 것이다.

석의적대지와 설교적 대지의 비교(장두만)

석의적 대지	설교적 대지
과거 지향적이다.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정적이고 제한적이다. 청중에 대한 배려가 없다.	현재 지향적이다.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보편적이고 제한이 없다. 청중이 포함되어 있다.

8 단계 본문을 전개할 방법을 찾으라

본문을 전개하는 방법은 본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다. 그렇기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Grant & Reed)

대조 / 설명 / 질의 응답(문제 해결) / 증명 / 원리 적용
귀납적 구성 / 연역적 구성 / Narrative / One point

9 단계 적용을 찾으라

적용의 원리

- 본문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한다
- 구체적이어야 한다
- 청중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하라
- 청중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적용에 필요한 질문들-하워드 헨드릭스

-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 내가 드러야 할 기도가 있는가?
-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 내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 있는가?
-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적용의 범위

개인, 가정, 교회, 이웃, 지역사회

10 단계 보조 자료 결정하기

보조 자료가 설교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 설교를 명쾌하게 해준다
- 청중의 흥미를 돋구어 준다
- 실감나게 해준다
- 진리를 기억하게 해준다
- 적용하기 쉽게 해준다

보조 자료 사용원칙

- 핵심 진리에 대한 보조 역할이다
- 적절해야 한다
-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길이가 적절해야 한다
- 완전히 소화한 후에 사용하라

보조 자료의 종류

통계 / 예화 / 인용 / 유머 / 시청각교재

11 단계 아웃라인과 본론을 구성하라

아웃라인의 목적

- 설교에 통일성을 주어 횡설수설하지 않게 한다
- 설교를 명쾌하게 하여 청중이 설교의 흐름을 따를 수 있게 한다
- 설교 각부분의 상호 관계를 알게 해준다
- 좀더 깊이 연구할 부분을 알게 한다

아웃라인의 기본형태

본문:

제목:

중심내용:

설교 목적:

서론

1.

2.

첫째 대지

첫째 소지

소소지

둘째 대지

첫째 소지

소소지

결론

1.

2.

아웃라인의 작성 원칙

- 각 대지나 소지, 소소지에는 하나의 내용만 포함해야 한다
- 유사한 대지나 소지는 만들지 말라
- 같은 형태의 표현을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라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 번호는 일관성있게 사용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포괄적인 부분이 대지, 연구해 놓은 자료 가운데 설교에 포함시키기 부적당한 것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과감히 잘라 버려라

12 단계 본문에 근거하여 서론을 구성하라

서론의 목적-(로빈슨)

- 주의를 집중시키라
- 필요를 표면화 시켜라
- 설교 본론을 소개하라

서론의 유형

- 이야기로 시작
- 예기치 않은 말로 시작
- 적절한 인용으로 시작
- 질문으로 시작
- 본문 배경의 설명으로 시작
- 비교나 비유로 시작
- 최근의 뉴스로 시작

13 단계 결론을 구성하라

- 결론의 목적
- 설교를 요약, 정리한다
- 청중의 결단을 촉구한다

결론의 유형

요약 반복 / 호소 / 예화 / 적절한 성구나 인용 / 적절한 질문

14 단계 설교 제목을 정하라

적절한 제목은 청중으로 하여금 설교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설교에 관심을 갖게 한다

좋은 제목의 특징

-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
- 간결하다
- 범위가 좁다

15 단계 설교전달연습

가장 바람직한 설교는 좋은 내용과 함께 효과적인 전달이다

전달실패 이유

- 구어체보다 문어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공감대 형성의 실패
-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음
- 설득보다 주입하려 할 때
- 본문연구가 충분하지 못할 때
- 예화의 실패

전달방법

- 단어 선택- 평이한 단어 사용,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체적 표현
- 음성 사용- 고저, 속도, 강약
- 복장, 외모
- 제스처
- 눈 접촉

익숙할 때까지 연습하라.

강해설교 작성 단계

본문 선택

본문연구

본문해석- 석의적 아웃라인

청중 분석

설교의 목적

석의적 아웃라인을 설교적 대지로 바꾸라

설교 전개 방법을 결정하라.

적용을 찾으라

보조자료 결정

설교의 아웃라인을 만들라.

설교작성: 본문, 서론, 결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딤후 4:2 쉬운 성경)

APPENDIX B

부록 B

주일설교 원고, 2021년 9월 5일, 버지니아 701한인교회, 최영식

하박국 2 장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I will stand at my guard post and station myself on the lookout tower. I will watch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I should[a] reply about my complaint.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The Lord answered me: Write down this vision; clearly inscribe it on tablets so one may easily read it.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For the vision is yet for the appointed time; it testifies about the end and will not lie. Though it delays, wait for it, since it will certainly come and not be late.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Look, his ego is inflated; he is without integrity. But the righteous one will live by his faith.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말씀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 장 17 절과 갈라디아서 3 장 11 절에서 인용하였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저자도 10 장 38 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인용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것도 “오직 믿음”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다시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박국은 3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빨리 읽으면 5 분내에 다 읽을 수 있고,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 세번역으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도 10 분내에 모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잠깐 읽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당시 유다의 배경과 암울한 미래, 그리고 의인이 겪는 어려움 거기에서 나오는 고민과 의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쾌하게 담겨있는 책입니다.

PPT 표

A 하박국의 의문(1:1-4)

B 여호와와의 행하실 일(1:5-11)

C 하박국의 질문(1:12-17)

D 여호와와의 뜻 (2:1-4)

C' 여호와와의 행하실 일(2:5-20)

B' 하박국의 이해(3:1-15)

A' 하박국의 변화(3:16-19)

자료를 통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기억 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악이 이렇게 무성한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소연과 같은 하박국의 A 의 의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B 의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진행하실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되는 거지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나은 민족인데, 그래도 여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하박국은 그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C와 같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D**가 나오는 데요, 책의 중앙에서 하박국과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순차적으로 ABCDC'B'A' 이렇게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로 책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렇게 위아래로 색을 넣은 이유는요, 저렇게 A에서 가졌던 하박국의 의문의 자세는 A'에서 변화된 하박국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B에 나타난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은 하박국의 기도와 이해로 B'에 나타나고 C의 하박국의 강력한 항의는 여호와와의 행하실 일로 C'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차대구**”라고 하는데요, 순차적으로도, 또 교차대구로도 **D에 위치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시길 유다 너희 민족에게 바벨론과 같은 악한 백성을 보내 모두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이잖아요.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시는게 “**웁으니까?**”라고 하박국은 묻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린 후 기다리는 하박국의 자세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PPT 1 절

하박국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루의 파수하는 곳이라고 하면 항시 깨어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하고 또 어떤일이 일어날 때 제일 빨리 눈치채고 알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보면 침투할 때 거의 먼저 타깃이 되어 으악~ 하고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실제로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일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자신이 파수꾼처럼 주님의 응답을 살피겠다는 뜻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는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선지자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파수꾼으로 비유한 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파수대에 실제로 섰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파수대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파수대에서 기다리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던, **이제 그는 파수꾼과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또 절실하게 바라보며 한가지 말을 더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질문이라는 부분에서 질문이라는 단어가 항의도 될 수 있고, 질책도 되고, 책망, 체벌, 꾸짖는다는 여러 뜻이 있어서, 나의 항의에 어떻게 답해 주시는지 보겠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을 책망하거나, 꾸짖을 수는 없는 위치이니까 혹시 하박국이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지도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에 자신이 “옳으니까?”라고 했던 질문에 자신이 자신의 옳지 않음을 짐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절 PPT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곧 하박국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라**”고 합니다. 새기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 세번만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정확히 이루어 질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달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파서 전달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판에 명확히 새겨서, 판을 가진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게 보이라는 것이고 후자는 말씀을 든 선지자나 사람들이 달리면서도 보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둘 다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묵시를 **속히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 절이 나옵니다.

3 절 PPT

지금 주시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합니다. 그 “정한 때”는 “종말”과 같이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묵시가 종말과 같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한 때”는, 계절이 바뀌는 때, 그러니까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그런 시기가 **정해진 때**로 나타납니다. 또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나, 그 날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속히”라는 것은 ‘숨을 급하게 내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될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 때는 오고,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처럼 그 종말을 맞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는 것과 같이 급하고 또 숨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가지 더 말씀해 주시기는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뜻을 주관하시면서 일들을 이루어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시고 진행될 일들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이 내일인지, 일주일 후인지, 일년 후인지, 몇 백년 후인지 알 수 없고, 아니면 지금 예배당을 나가 도시락을 받고 있는데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내일 있을 연인과의 데이트와 같이 좋은 것을 기다린다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그런 분들은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내일 아침이면, 오늘 밤은 아주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때와 내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종말의 때의 “사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여기였으면 (손짓 뒤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과거, 혹은 역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앞에 있으면 (손짓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다가올 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 이 사이를 바로 **우리의 삶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하박국이 받고 있는 종말의 때는 언제 입니까?

아주 가깝게는 유다 민족 내에서 일어나는 악행과 탄압 때문에 일어나는 곧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 많은 민족을 말살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살았던 유다의 멸망이나, 바벨론의 멸망으로 생각하며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유대민족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 심판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던 약속을 파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심판과 종말의 예고속에는 항상 소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Zephaniah 3:17

Yahweh your God is among you, a warrior who saves.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gladness. He will bring you quietness with His love. He will delight in you with shouts of joy.” 라고 말씀하십니다.

렘 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Jeremiah 31:33

“Instead, 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the Lord’s declaration. “I will put My teaching within them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예레미야는 끔찍하게 멸망 당할 자신의 백성들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소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심판의 때를 본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 등 역사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주옥 당겨서 보면 유다가 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로 생각되었겠지만 조금 더 길게 살았던 이들에게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신것을 알고 신약의 말씀을 받고 종말의 때와 지금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종말과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4 절 PPT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임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현실을 이기며 달려가는 것이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야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착하거나, 잘나거나, 부자여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신약인 우리는 이런데 하박국 이전에 구약의 의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11 장을 통해 많은 의인들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 행했던 일들이 나열되고 받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 장 26 절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For he considered the reproach because of the Messiah to be greater wealth than the treasures of Egypt, since his attention was on the reward.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실체의 그림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이겨 나가고 헤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때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가오는 것이 “더딜지라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될 때 까지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4 절 PPT

4 절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기 전에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속으로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한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의인은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하박국 설교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이 시작할 때와 마지막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 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지금 하박국 주위에 상황이 바뀐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대면 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생각이 달라지고 또 결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와 정직하지 못한자에 대해서는 앞서 1 장에서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도구에 제사를 지내는 분향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펙이 좋고 뛰어나서 돈을 잘 벌고,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처리 능력이 빨라서,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탈란트가 많아서 잘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신이되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그렇다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늘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바보같고, 남들있는 능력도 없고, 자랑할게 없어서 겸손할것도 없고, 힘들기만 한데요, 그런데 하박국서가 들여다 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그분의 신실함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하게 된다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테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모두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러다가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다 하더라도, 우리의 종말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지금의 나의 삶과 그 ‘사이’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701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IBLIOGRAPHY

참고자료

1. 단행본 및 번역서

권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서울: 아카페북스, 2018.

김남준. 「게으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김도인. 「설교는 글쓰기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_____. 「설교자와 묵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명성훈. 「교회성장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 가지 설득의 법칙」. 서울: 규장문화사, 1997.

_____. 「원 포인트로 설교하라」. 서울: 요단출판사, 2018.

박영철. 「구명난 복음을 기워라」. 서울: 규장, 2016.

소재찬. 「설교,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안병만. 「존 스토티의 설교의 원리와 방법」. 서울: 프리셉트선교회, 2001.

윤익세. 「당신도 명설교자가 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 칼빈대학교출판부, 2005.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이훈구. 「설교학총론」. 서울: 양문문고, 1996.

송인규. 「성경의 적용」.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전성민. 「세계관적 설교」.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8.

정인교. 「설교학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Barna, George and David Kinnaman. 「처치리스」. 장택수 역. 서울: 터치북스, 2015.

Black, William. 「강해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박명섭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0.

Brueggemann, Walter.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홍병룡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Carson, D.A. 「성경 해석의 오류」. 박대영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Carson, D. A, and others. 「IVP 성경주석」. 신현기 역. 서울: IVP, 2010.
- Carter, Terry G, and others. 「성경설교」. 김창훈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Comiskey, Joel. 「셀그룹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Cox, James W. 「설교학」. 원광연 역. 경기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Duvall, Scott J. and Daniel Hays. 「성경해석」. 류호영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9.
- Gold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영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Hall, Terry. 「성경의 파노라마」. 배응준 역. 서울: 규장, 2008.
- Klerk, B.J.De. and F.J. Van Rensburg. 「설교 한 편 만들기」. 송영목 역. 서울: 생명의양식, 2018.
- Lloyd-Jones, Martin.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정상윤 외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5.
- Hayes, John H. and Carl Holladay. 「성경 주석학」. 김근수 역. 서울: 솔로몬 말씀사, 1988.
- Hendricks, Howard G. and Willam Hendricks.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 정현 역. 서울: 디모데, 1993.
- MacArthur, John, and others. 「강해설교의 재발견」.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Miller, Calvin. 「내러티브 강해의 기술」. 박현신 역. 서울: 베다니, 2009.
- Mohler, R. Albert. 「말씀하시는 하나님」. 김병하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 Overdorf, Daniel. 「탁월한 설교자를 세우는 52 주 설교 멘토링」. 이우제, 전태경 역. 서울: 도서출판대서, 2018.
- Ramesh, Richard. 「삶을 변화시키는 7 단계 강해설교 준비」. 정현 역. 서울: 디모데, 1988.
- Richards, Lawrence O. and Gary J. Bredfeldt. 「창조적 성경교수법」. 안영혁, 이순옥 역. 서울: 그리심, 2010.
- Robinson, Haddon W.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 Ryrie, Charles C. 「평신도 신학입문」. 이한규 역. 서울: 두란노, 2002.
- Schultz, Thom. And Joani Schultz 「지루함을 깨뜨리는 가르침의 기술」. 마영례 역. 서울: 디모데, 2000.
- Sterrett, Norton T. 「성경해석의 원리」. 한국성서유니온 편집부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78.
- Stetzer, Ed and Mike Dodson 「다시 부흥한 324 교회 성장 리포트」. 김광석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10.

Stott, John. 「성경이란 무엇인가」. 박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5.

_____.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2. 정기간행물

권호. “현대 강해설교의 장르 이해와 적용.” 「신학정론」, 제 36 권 2 호 (2018): 327-351.

김금용.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기독교사회윤리」, 제 27 집 (2013): 129-158.

김지찬. “한국교회 강해설교의 문제점: 설교학자가 아닌 성경학도의 눈으로 본.” 「신학지남」, 66 권 3 집 (1999): 194-226. 209-210

_____. “한국교회 설교의 근본적 문제점: QT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해석의 심리와-사사화와 적용의 정형화.” 「성경과 신학」, 67 호 (2013): 261-290.

김지혁. “설교자의 자기기만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9 호 (2016): 135-157.

김창훈. “강해설교의 이해.” 「신학지남」, 72 권 2 집 (2005): 192-211.

_____.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에 있어서 네 가지 관심.” 「신학지남」, 71 권 3 집 (2004): 116-140.

김태근.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 「국제사회 보장리뷰」, 1 호 (2017 여름): 93-97.

김홍진.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의도와 성도의 설교에 대한 니즈의 비교 분석.” 「대학과 복음」, (2009): 179-208.

류응렬. “강해 설교의 아버지 해돈 로빈슨의 설교신학.” 「신학지남」, 74 권 1 집 (2007): 225-243.

_____. “강해설교 작성법.” 「복음과 신학」, 13 집 (2011): 245-277.

_____. “강해설교 전개형식의 기초와 방법론.” 「신학지남」, 73 권 3 집 (2006): 108-128.

_____. “개혁주의 강해설교가 나아가야 할 다섯 가지 방향.” 「신학지남」, 72 권 3 집 (2005): 201-227.

_____. “설교의 개요 이렇게 작성하라.” 「신학지남」, 73 권 2 집 (2006): 210-233.

_____. “적용을 향해 나아가는 개혁주의 강해설교.” 「신학지남」, 72 권 2 집 (2005): 212-232.

_____. “중심사상을 찾아가는 개혁주의 강해설교.” 「신학지남」, 72 권 4 집 (2005): 212-232.

_____. “한국교회 설교의 역사적 흐름과 성경적 설교를 위한 제언.” 「신학지남」, 309 호 (2011): 231-260.

문상기. “강해설교를 위한 논증법.” 「복음과 실천」, 26 호 (2000): 159-192. 188-9

_____. “성경적 설교로서의 강해설교.” 「설교한국」, 제 1 호 (2009 가을): 52-80.

- 박완철. “설교에서 성경 본문의 중요성.” 「신학정론」, 27-2 호 (2009): 323-353.
- 박태현.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신학지남」, 81 권 4 집 (2014): 301-304.
- 박희천.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 「신학지남」, 51 권 4 집 (1984): 180-207.
- 손달익. “주눅 든 현대 설교자를 위한 치유서.” 「눈에 띄는 좋은책」, (2015): 98-103.
- 유해룡. “교회의 위기와 복음선포에 대한 고찰.” 「장신논단」, 46 권 1 집 (2014): 149-176.
- 이규민.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대안 모색.” 「신학논단」, 81 집 (2015): 201-233.
- 이성현. “목회자와 설교준비.” 「신학지남」, 38 권 2 집 (1971): 6-11.
- 이승진. “강해설교,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기독교사상」, 48 호 (2004): 118-129.
- 이은경 외. “토의를 강조한 소집단 활동이 과학고 학생의 탐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양식 사고양식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12 권 2 호 (2013): 115-140.
- 장두만. “교회 갱신과 설교 전달에 관한 연구.” 「신학정론」, 8 권 2 집 (1990): 281-296.
- _____. “청중이 귀를 기울이는 설교, 어떻게 해야 하나?” 「성침논단」, 5 권 (2007): 5-46.
- 정장복. “설교 백년, 회고와 성찰의 전망.” 「기독교사상」, 43 권 (1999): 38-53.
- 정성구. “강해설교와 성경해석.” 「신학지남」, 57 권 3 집 (1990): 99-127.
- 정홍열.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 「한국조직신학논총」, 제 20 집 (2008): 11-38.
- 최철광. “강해설교 제대로 하기: 강해설교는 포인트 설교가 아니다.” 「성침논단」, 12 집 (2018): 269-297.
- 한동구. “한국교회의 강단의 위기와 영성적 설교.” 「복음과 신학」, 5 집 (2002): 9-30.

4. 미간행물

- 김성택. “강해설교 101” PDF lecture note, Lynchburg, VA: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21.
- _____. “강해설교준비” PDF lecture note, Lynchburg, VA: 701 Korean Church, 2015.
- _____. “HOMI 810” PDF lecture note, Lynchburg, VA: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4.
- 이재룡. “소그룹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한 설교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9.
- 박애란. “한국 교회 설교의 한 대안으로서 적용의 연구와 한국인 청중의 이해를 통한 강해설교의 진로: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0.

5. 온라인 자료

- 구권효. “여성 교인은 62.5%, '여성 담임 목회자'는 8.5%.” 뉴스앤조이[온라인 자료]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73>, 2021 년 11 월 28 일 접속.
- 넘버즈. “교인 수 50 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온라인 자료]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67th_201016_Full_Report.pdf, 2021 년 5 월 3 일 접속.
- _____. “미국 크리스천의 교회출석 이유.” [온라인 자료]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29th_200103_b1.pdf, 2021 년 5 월 5 일 접속.
- 양민경, 김아영. “한국교회 미래, 여교역자를 세워라.” 국민일보[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34757>, 2021 년 10 월 30 일 접속.
- 이샤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국민일보[온라인 자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25679>, 2021 년 5 월 15 일 접속.
- 지유철. “해야 할 설교는 많고 준비할 시간은 적다?” 뉴스앤조이[온라인 자료]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562>, 2021 년 10 월 30 일 접속.
- 크리스천 투데이. “미주한인교회 현황.” [온라인 자료] <http://www.christiantoday.us/25300>, 2021 년 11 월 3 일 접속.
- 교회소개. “701 한인교회 홈페이지.” <http://www.701.church>, 2021 년 9 월 15 일 접속.
- Lifeway research, “Average U.S. Pastor and Churchgoer Grow Older.” [온라인 자료]
<https://lifewayresearch.com/2021/11/01/americas-pastors-and-churchgoers-are-getting-older/>, 2021 년 11 월 28 일 접속
- _____. “Pastors and Time in Sermon Preparation.” [온라인 자료] <https://lifewayresearch.com/2015/06/08/pastors-and-time-in-sermon-preparation>, 2021 년 11 월 2 일 접속.
- _____. “Pastors’ Long Work Hours Come at Expense of People, Ministry.” [온라인 자료]
<https://lifewayresearch.com/2010/01/05/pastors-long-work-hours-come-at-expense-of-people-ministry/>, 2021 년 11 월 2 일 접속.

6. 기타 자료

- 김낙중 외. “하박국 2 장 성경연구.” 701 한인교회, 2021 년 8 월 30 일 모임영상.
- 김진위 외. “하박국 개론 성경연구.” 701 한인교회, 2021 년 7 월 31 일 모임영상.
- 노슬기 외. “베드로전서 개론 성경연구.” 701 한인교회, 2021 년 10 월 4 일 모임영상.
- 문지현 외. “하박국 3 장 성경연구 2.” 701 한인교회, 2021 년 9 월 20 일 모임영상.
- 최영식. “의인은 믿음으로!” 701 한인교회, 2021 년 9 월 5 일 설교원고.

최용석 외. “베드로전서 1 장 성경연구.” 701 한인교회, 2021 년 10 월 18 일, 모임영상.

최준호 외. “하박국 3 장 성경연구 1.” 701 한인교회, 2021 년 9 월 13 일 모임영상.

IRB APPROVAL IRB 승인

Choi, Young Shik (Rawlings School of Divinity Instr)

From: irb@liberty.edu
Sent: Thursday, June 11, 2020 3:43 PM
To: Kim, Yunseop (School of Divinity Instruction); Choi, Young Shik (Rawlings School of Divinity Instr)
Subject: IRB-FY19-20-390 - Initial: Initial - Exempt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June 11, 2020

Yunseop Kim
Young Choi

Re: IRB Exemption - IRB-FY19-20-390 A STUDY ON MINISTERS' PSYCHOLOGICAL BURDENS FROM SUSPENDING WORSHIP SERVICE IN COVID-19 SITUATION

Dear Yunseop Kim, Young Choi: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the following exemption category,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 101(b):

Category 2.(i). Research that only includes interactions involving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including visual or auditory recording).

The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by the investigator in such a manner that the identity of the human subjects cannot readily be ascertain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Your stamped consent form can be found under the Attachments tab within the Submission Details section of your study on Cayuse IRB. This form should be copied and used to gain the consent of your research participants. If you plan to provide your consent information electronically, the contents of the attached consent document should be made available without alter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modification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Universi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completing a modification submission through your Cayuse IRB accoun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modification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Research Ethics Office